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탐색에 관한 연구

- 연구기관명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2023.10.~ 2024.6.
- 연구책임자 : 윤승준(단국대학교)
- 공동연구원
 - 이향배(충남대)
 - 임현정(단국대)
 - 송영일(충남대)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6
3. 연구 방법	8
II. 전인교육의 추진 배경 및 현황	15
1. 전인교육의 개념과 특성	17
2. 해외의 전인교육 추진 현황	54
3. 우리나라의 전인교육 추진 현황	92
4. 전인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124
III. 현장 의견 조사	129
1.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129
2. 초점 집단 인터뷰(FGI) 조사	201
3. 전문가 포럼 및 콜로키움	228
IV.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240
1. 전인교육의 재개념화 및 구성요소	242
2.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245
3.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검토 과제	256

4.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263
참고문헌	266

표 목차

<표 I-1> 국내외 전인교육 실시 현황 조사	7
<표 I-2> 델파이 조사 조사대상	9
<표 I-3> 델파이 조사 조사방법 및 표집방법	9
<표 I-4> 델파이 조사 분석방법	10
<표 I-5> 전문가 포럼 기획안	11
<표 I-6>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12
<표 II-1> 전인교육 개념 분석틀	29
<표 II-2> 총체성 지향 가법적 접근	30
<표 II-3> 정신적 신성성 지향 승법적 접근	30
<표 II-4> 전인교육에 대한 접근방법(Williams & Schaps, 1999: 김수진, 2015 재인용)	39
<표 II-5> 전인교육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방법(박형빈, 2022)	40
<표 II-6> 전인의 덕목(성경희 외, 1990)	41
<표 II-7> 인성교육 구성요소(류청산 외, 2006; 오기성 외, 2012)	42
<표 II-8>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장창우 외, 2013)	43
<표 II-9> KEDI 인성 예비검사 문항 구성 (현주 외, 2014)	44
<표 II-10>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조난심, 2016)	45
<표 II-11> 전인교육의 요소(원동연, 2017)	45
<표 II-12> 그 외 학자들이 제시한 덕목(이선경, 2017)	49
<표 II-13>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덕목과 인성역량	49
<표 II-14> 역량지수 (김창환 외, 2013)	50
<표 II-15> 균형적 성장과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학력지표(김경희 외, 2019) ..	51
<표 II-16> WCD 주제별 평가 요소	54
<표 II-17> 헤센주 카를-바이간트-슐레 플로슈타트의 방과 후 활동	65
<표 II-18> 독일 정치교육의 주요한 주제들	69
<표 II-19>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초등학교 「사물수업」 과목 4 단원 교육과정 내용 ..	70
<표 II-20> CASEL 의 5 대 핵심 사회정서역량	74

<표 II-21> SSES 사회정서역량 및 설명	91
<표 II-22>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적 인간상의 변화	92
<표 II-23>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역량 간 관계(안)(교육부, 2020)	110
<표 II-24> 인성교육과 타 교육정책 간 관계(예시) (교육부, 2020)	111
<표 II-25> 제 2 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교육부, 2020)	113
<표 III-1> 전문가 집단 인적 사항	130
<표 III-2> 델파이 조사 개요	131
<표 III-3> 델파이 조사 내용	132
<표 III-4>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1	135
<표 III-5>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2	135
<표 III-6>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의 전인교육 개념 수정 의견	135
<표 III-7> 1 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한 전인교육의 개념	137
<표 III-8> 전인교육의 하위 영역과 영역별 구성요소	139
<표 III-9>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별 구성요소의 타당성(범주별 응답분포)	141
<표 III-10>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별 구성요소의 타당성(기술통계 및 내용타당도) ·	142
<표 III-11>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인지사고 영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면의견	143
<표 III-12>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서심리 영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면의견	144
<표 III-13>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사회관계 영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면의견	145
<표 III-14>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신체건강 영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면의견	146
<표 III-15>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도에 대한 범주별 응답분포	148
<표 III-16>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148
<표 III-17>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인지사고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응답범주별 반응분포)	149
<표 III-18>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인지사고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149
<표 III-19>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정서심리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응답범주별 반응분포)	150
<표 III-20>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정서심리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150
<표 III-21>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사회관계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응답범주별 반응분포)	151
<표 III-22>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정서심리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151

<표 III-23>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심신건강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응답범주별 반응분포)	152
<표 III-24>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심신건강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152
<표 III-25>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확정된 전인교육의 개념 및 구성요소	153
<표 III-26> 전인교육의 영역별 구성요소의 개념	154
<표 III-27>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인지사고 영역의 학교교육 충실도	157
<표 III-28>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서심리 영역의 학교교육 충실도	158
<표 III-29>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사회관계 영역의 학교교육 충실도	160
<표 III-30>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심신건강 영역의 학교교육 충실도	161
<표 III-31>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구성요소	162
<표 III-32>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인지사고(메타인지)	163
<표 III-33>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인지사고(디지털 리터러시)	164
<표 III-34>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인지사고(창의·융합적 사고)	165
<표 III-35>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리정서(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166
<표 III-36>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리정서(열정과 도전의식)	167
<표 III-37>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사회관계(신뢰와 존중)	168
<표 III-38>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사회관계(책임감과 리더십)	169
<표 III-39>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사회관계(세계시민의식)	170
<표 III-40>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신건강(건강한 정신)	170
<표 III-41>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신건강(놀이와 여가활동)	171
<표 III-42>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신건강(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172
<표 III-43>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기술 통계: 인지사고 영역	174
<표 III-44>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기술 통계: 심리정서 영역	179
<표 III-45>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기술 통계: 사회관계 영역	183
<표 III-46>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기술 통계: 심신건강 영역	188

<표 III-47> 영역별 구성요소별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최우선 추진 과제 (종합)	192
<표 III-48> 전인교육 실현의 장애요인	194
<표 III-49> 전인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 주체별 노력 및 협력 방안	195
<표 III-50> FGI 조사 대상	199
<표 III-51> FGI 조사 일정 및 내용	200
<표 III-52> 콜로키움 일정 및 내용	231
<표 IV-1> 전인교육의 재개념화 및 구성요소	240
<표 IV-2> 전인교육의 영역별 구성요소의 개념	241
<표 IV-3> 전인교육의 정책 방향 및 세부 영역	255

그림 목차

[그림 II-1]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행의 방향 (김경희 외, 2021)	33
[그림 II-2] 교육지표의 영역별 하위요소 (김경희 외, 2021)	34
[그림 II-3]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 덕목	46
[그림 II-4] 서울시교육청(2022)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	46
[그림 II-5] 경기인성교육 로드맵	47
[그림 II-6]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Jubilee Centre, 2017)	48
[그림 II-7] 인지, 사회정서, 신체 영역의 구성요소(김경희 외, 2021)	53
[그림 II-8] 독일의 학교제도 (권희경 외, 2023)	57
[그림 II-9] 인간 발달의 구(Developmental Spheres)	60
[그림 II-10] 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CSED) 모델	72
[그림 II-11] Clover Model	73
[그림 II-12] Framework for Syst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74
[그림 II-13] Character Lab 의 성격강점모델(Character Strengths Model)	75
[그림 II-14] SEE(Social, Emotional, and Ethica 모델의 9 요인	76
[그림 II-15] 환사(川沙) 고등학교의 체육 교과 배정	82
[그림 II-16] OECD Education 2030 학습 역량 프레임워크	84
[그림 II-17] OECD 학습나침반 2030	86
[그림 II-18] The Big Five 모형의 요인과 SSES 요인과의 관계	89
[그림 II-19] SSES 사회정서역량 구성 요인	90
[그림 II-20]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교육부, 2021)	99
[그림 II-21]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연계성(경상남도교육청, 2023)	101
[그림 II-22] 인성교육의 방향(교육부, 2016)	105
[그림 II-23] 제 1 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 과제(교육부, 2016)	107
[그림 II-24] 제 1 차 종합계획의 추진성과(교육부, 2020)	108
[그림 II-25]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인성교육 재해석 및 정책 과정 개념도(교육부, 2020) ..	109
[그림 II-26] 제 2 차 인성교육종합계획 추진체계(교육부, 2020)	112
[그림 II-27] ‘공동체형 인성’의 핵심가치와 덕목(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117

[그림 II-28] 서울인성교육 추진체계도(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119
[그림 II-29] 서울인성교육의 영역 및 추진 과제(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120
[그림 II-30] 경기인성교육의 목표 및 추진 과제(경기도교육청, 2024)	122
[그림 II-31] 경기인성교육 협의체(경기도교육청, 2024)	123
[그림 III-1] IPA 매트릭스 과제 우선순위 해석 (정미경 외, 2017)	134
[그림 III-2] 1 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한 전인교육의 영역 및 구성 요소	147
[그림 III-3] 개선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IPA 분석: 인지사고 영역	173
[그림 III-4] 개선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IPA 분석: 심리정서 영역	178
[그림 III-5] 개선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IPA 분석: 사회관계 영역	183
[그림 III-6] 개선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IPA 분석: 심신건강 영역	187
[그림 III-7]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전문가 포럼	2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문민정부의 제1차 교육개혁방안, 이른바 ‘5·31 교육개혁’ 이후 30년만에 범국가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이 연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을 목표로 하였다. 대한민국의 향후 교육정책 방향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기대와 고민,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기대와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교육정책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정범모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 역사를 ‘발전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한국 역사는 ‘성숙의 연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성숙의 연대’에는 그에 걸맞은 철학이 있어야 하며, 그 철학이 반영된 인간상이 상정되고 그 실현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인간상을 ‘전인(全人), 공인(公人), 생산인, 자율인, 그리고 내재적 가치, 역사적 현재, 보편과 특수, 자연과의 조화’라는 여덟가지 개념으로 제안한 바 있다(정범모, 2011). 나아가 이 모두를 집약하는 기본 개념이 ‘전인’이라고 하면서, ‘전인’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궁극적 인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길러내야 할 인간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제9조 ③항에서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 교육 과정에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다. ‘전인교육’ 혹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제4차 교육과정 총론(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에서부터 등장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전인’을 국가 교육 과정의 목적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교육부, 2009.12.)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진흥법’(2015),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기조는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교육과정의 목적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먼저 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로 인한 자기 성장, 사회에 올바르게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은 교육적 가치의 훼손과 교육목적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강현석, 2023). 또한 교과 간의 단절 내지 분절적 접근으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특정 교과에서의 변화 내지 행동의 수정이 과연 인간의 변화, 교육적 변화, 전인적 변화를 의미하거나 수반할 수 있는지, 그것이 총체적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의지와 감정, 신체의 변화 등과 연동되어 교육되고 있는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승호, 2022). 나아가 교과별 교육과정 속에서 구체화하고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열린 개념이어야 할 ‘전인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전인’을 구성하는 요소(핵심역량) 몇몇에 제한된 닫힌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통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핵심역량의 총화가 곧 국가 교육 과정이 목표로 하는 ‘전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노철현, 2021).
- 이와 같은 교육 내적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 외에도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빅데이

터, 클라우드, IoT, AI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처리 방식이나 직업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다. Gig Economy가 가속화되면서 비정형 근로 형태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민원기, 2023). 정보가 폭증하고 정보가공이 쉬워지면서 딥 페이크(Deep-fake)와 탈진실(post-truth)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함께 윤리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송하석, 2023).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본질과 가치,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하였다. 팬데믹을 넘어 환경, 전쟁, 식량, 자원, 질병 등 우리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2023)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기후재난, 팬데믹, 식량난, 동식물 멸종 등 여러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책무 역시 우리 교육이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외면해서도 안 된다.
- 그뿐만 아니라 최근 마약, 디지털 성폭력 등 사회 환경의 유해성이 심각해지고,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의 문제가 급증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전인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뒷받침할 구체적이면 서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전인교육,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개념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현장교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문헌 연구를 통해 전인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2)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FGI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아울러 3)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학교 교육의 현실과 방향을 점검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전인교육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한 기초 연구:** 이 연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무엇보다 전인교육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를 1차적인 연구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의 실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인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인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인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 분석할 것이다.

<표 I -1> 국내외 전인교육 실시 현황 조사

국내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교육의 전통적 개념 ◦ 전인교육 관련 국가 수준의 정책 ◦ 시·도 교육청별 전인교육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 미국 ◦ 중국 ◦ OECD

- **학교 현장의 전인교육 실태 파악:** 교육정책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기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역시 학교 교육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초해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인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인교육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그와 같은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전인교육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 탐색:** 교육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시도할 것이다. 의견 수렴 결과는 중요성 혹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다. 요구 분석에 기초한 이 같은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전인교육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제안:**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이 일관성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류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교육철학을 토대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순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은 오늘의 사회와 현실이 학교 교육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교육의 본질적이면

서도 항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인교육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추가적인 목표로 한다.

3.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 및 통계 분석, 워킹그룹과 초점 집단 인터뷰(FGI), 자문위원 협의회 운영(콜로키움 개최), 전문가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가. 문헌 연구

- **전인 및 전인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전인 및 전인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 업적을 폭넓게 검토한다.
- **인성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정책 분석:**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하여 온 인성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인성교육 관련 법령과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 시도별 주요 인성교육 정책의 비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분석 등이 포함될 것이다.
- **해외 주요국의 전인교육 현황 분석:** 이 연구에서는 또한 미국이나 독일, 중국 등 해외 여러 나라의 전인교육 및 인성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OECD Education

2030, UNESCO 미래 교육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델파이 조사 및 통계 분석

- **델파이 조사:** 전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한다. 초·중등학교 교사와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관계자를 선정하여 델파이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전인교육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표 I -2> 델파이 조사 조사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8	100.0
학교	초등교육	7	25.0
	중등교육	8	28.6
전문가	고등교육	5	17.9
	교육청	8	28.6

<표 I -3> 델파이 조사 조사방법 및 표집방법

구분	조사방법	표집방법
학교	◦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개방형 질문 포함)	◦ 표집: 추천 및 임의 표집 ① 학교별 인성교육 담당자
전문가		◦ 표집: 추천 및 임의 표집 ① 시·도 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② 인성교육 연수 강사 ③ 전인교육 및 교육학 전공 교수 ④ 첨단과학분야 전공 연구원 및 교수

- **통계 분석:**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통계 분석을 시행한다.

<표 I-4> 델파이 조사 분석방법

분석방법	분석내용
기술통계 분석	응답 빈도 및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타당도 분석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영역 비교	전인교육 영역별 실천 정도, 만족도, 요구도 비교, 우선순위 도출
텍스트 분석	개방형 질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

다. 워킹그룹과 초점 집단 인터뷰(FGI)

- **워킹그룹의 구성 및 운영:**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전인교육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해 온 분들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이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관련한 교육 현실 및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추진한다. 워킹그룹은 초·중등학교 교사와 시도교육청 장학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 **초점 집단 인터뷰(FGI):** 초점 집단 인터뷰는 초·중등학교 교사, 장학사, 교수 3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학교급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한다. 2회 이상의 인터뷰를 시행하고 서면 조사를 통해 전인교육을 위한 요구사항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자문위원 협의회

-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및 자문의견 수렴:** 전인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들을 차례로 초빙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과 관련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그 내용을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한다. 자문위원 초청 콜로키움은 교육정책 및 추진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연구진에서 진행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받는 기회로도 활용한다. 온라인 회의나 서면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문위원 협의회를 운영한다.

마. 전문가 포럼

- **전문가 포럼 개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받고, 교육 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 계획한 전문가 포럼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로 4월 26일(금)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전문가 포럼 기획안은 다음과 같다.

<표 I -5> 전문가 포럼 기획안

일시	2024년 4월 26일(금) 14:00-17:30		
장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502호		
주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주제 발표 및 토론	14:00-14:10	등록 및 개최	
	14:10-15:30	제1~2 발표	사회:윤정현(한성대)
	발표1 전인교육의 개념과 현실, 교육 방향에 대한 교사와 전문가 의견 발표: 임현정(단국대), 토론: 송영일(충남대)		

주제 발표 및 토론	발표2 학교 교육의 현실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표: 김현식(계천제일고), 토론: 권혁선(한국기술부사고)	
	15:20-15:30	휴식
	15:30-17:00	제3~4 발표 사회:윤정현(한성대)
	발표3 인공지능 시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발표: 변순용(서울교대), 토론: 윤미선(단국대)	
	발표4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오대영(가천대)	
	16:50-17:00	휴식
	17:00-17:30	종합토론 좌장: 김원중(단국대)
	윤승준(단국대), 이지영(한성대), 서윤경(푸단대), 심은경(단국대)	
	17:30-	폐회

-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을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 -6>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전인교육 쟁점 및 요구 현황 ○ 국내 전인교육 정책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주요 인성교육 정책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 해외 주요국의 전인교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및 정책 분석 - 언론 동향 분석 - 해외 동향 분석 ○ 자문위원 협의회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전인교육의 실태 조사 ◦ 전인교육의 장애 요인(애로사항) ◦ 전인교육의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파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및 전문가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교육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정책 방향 탐색 ◦ 전인교육의 주요 쟁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파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및 전문가 설문 ○ 초점 집단 인터뷰(FGI) ○ 자문위원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도출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구안 ◦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범사회적 정책 제언 ◦ 전인교육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파이 조사 ○ 전문가 포럼 개최 ○ 자문위원 협의회 ○ 워킹그룹 운영

II

전인교육의 추진 배경 및 현황

1. 전인교육의 개념과 특성
2. 해외의 전인교육 추진 현황
3. 우리나라의 전인교육 추진 현황
4. 전인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Ⅱ. 전인교육의 추진 배경 및 현황

1. 전인교육의 개념과 특성

가. 전인교육의 개념

1) 전인(全人, whole person)의 의미

- 전인교육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인(全人, whole person)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인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전인은 ‘지(知)·정(情)·의(意)를 모두 갖춘 사람’(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인간의 세 가지 심적(心的)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고려대한국어대사전).
- 삼육론(三育論, 3H)을 주창한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는 진정한 교육의 본질은 지성을 상징하는 머리(Head), 감성을 상징하는 가슴(Heart), 기능을 상징하는 손(Hand)을 골고루 도야함으로써 조화롭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육성하는 것으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적 모델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 동서고금의 여러 학자들 또한 이상적 인간형으로서의 전인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한 바 있다. 플라톤(Plato, B.C.427~B.C.347)은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 유능한 신사’, 수호믈린스키(Vasily A. Sukhomlinsky, 1918~1970)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힘차고 건강하며, 친절한 성격에, 아름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재능을 사용하는

진정한 인간'이라고 정의했다. 동양의 공자(孔子, B.C.551~B.C.479)는 ‘도에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노니는 사람[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이라고 하였으며, 맹자(孟子, B.C.372~B.C.289)는 ‘천성을 실천한 사람[形色, 天性也. 惟聖人然後, 可以踐形.]’ 또는 ‘인륜의 지극한 사람[聖人, 人倫之至也.]’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공자는 또 전인(全人) 되는 조건으로 ‘글과 행실과 충성과 믿음’을 말하기도 하였다(子以四教, 文行忠信).

- 김승호(2022)¹⁾의 「전인의 재개념화 모색」이라는 논문에서는 ‘전인’의 핵심적 의미는 총체, 융합, 자연이라고 제시하면서 ‘총체로서의 인간’은 전인(whole man)의 ‘전(全)’ 또는 ‘whole’이 가리키는바, 우주 또는 총체로서의 세계를 그의 마음 안에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자로 ‘전인(全人)’은 인간의 본바탕 그대로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온전하고 원만한 인격체이며, 영어로 ‘whole person’은 총체적 인간, 총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라틴어로 ‘호모 카팍스 유니베르시(Homo-capax universi)’는 우주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인간을 뜻한다고 하였다.

- 또한, 교육은 본질적으로 전인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받은 사람은 총체로서의 세계를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교육은 전인,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파악할 능력이 있는 인간, 곧 우주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인간(homo-capax universi)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융합’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전인은 총체로서의 세계와 그 완전한 질서가 그의 마음 안에 오롯이 반영된 결과로서 몸과 마음과 정서가 겪게 되는 변화가 최고조에 도달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전인과 세계의 관계는 ‘융합적 동연(同延)’의 관계이다. 즉, 단순한 산술적 집합이나 기계적 협응, 유기적 조화의 관계를 넘어선 융합적 동연의 관계이며, 태생적 선후 또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합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은 ‘전인’을 길러내는 데 있어야 한다. 전인이야말로 축적된 인간의 경험을 한 데

1) 김승호(2022). 전인의 재개념화 모색, 교육연구논총 43(4), 107-136.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집약하여 전인성을 통해 한 조각 광휘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 ‘자연’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전인은 그 인간 됨됨이가 별도의 인위적 조치가 없어도 저절로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전인은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이나 일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되는 사람이다.
- 따라서 김승호(2022)는 ‘전인’은 총체로서의 세계와 그 질서를 내면화한 결과, 그의 마음이 그것과 가장 이상적으로 융합하여 전 신체적인 변화를 겪음으로써,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이나 주어진 일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 전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표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온전한 인간, 원만한 인간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과 특성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을 의미하며, 지덕체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된 통합된 인간 또는 총체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홍은숙, 1999; 최의창, 2009; 허희정, 2004).

2) 전인교육(全人教育, whole person education)의 개념

- 전인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전인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인지적 영역 등의 특정 영역의 발달에만 치우거나 한정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발달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영역이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하는,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학생 내부에 계발되어야 할 잠재 가능성(지성, 도덕성, 정서, 신체, 사회성, 창의성, 심미성 등)이 다양한 능력으로 고루 발달하도록 하는,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이 전인교육인 것이다(김정환, 1997; 심성보, 1998).
- 또한, 온고지신의 차원에서 과거 동·서양의 전통 교육에서 언급되었던 전인교육의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서양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코

메니우스, 로크, 페스탈로치, 스펜서, 슈타이너, 수호믈린스키, 동양의 공자, 맹자, 장자, 주자, 왕양명, 우리나라의 이황, 이이, 이기, 안창호를 중심으로 전인교육의 개념을 살펴본 바 있다.²⁾

-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기르는 데 전인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플라톤은 국가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생산자, 수호자, 통치자)이 각자 자기의 소임(절제, 용기, 지혜)을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했다. 그는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6세 이전의 유아기에는 동화와 신화를, 6~18세는 체조와 음악을, 18~20세는 체육과 군사 훈련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20세 이후부터 30세까지는 고등교육 단계로 수학,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을, 최종 단계에서는 변증법을 수용하여 지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식을 습득한 후 그 지식을 개념 측면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활용해보는 실천 훈련을 중시했다. 그가 말하는 변증법은 그의 용어로 선(善: 좋은 것,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데아를 직관하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B.C.322)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Eudaimonia)을 누리는 데 전인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그는 이를 위해 건강한 신체 단련, 좋은 습관의 형성, 지성의 도야를 강조하였으며, 유덕하고 선(善)한 관조적인 생활, 즉 영속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자유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최관경, 1987). 그는 7세, 14세, 21세를 심신 발육상의 변화기로 보고 그 단계별 교육을 제시하였는데, 출생 후 7세까지(가정교육기)는 신체적 발육과 도덕적 습관 형성을, 7세부터 14세까지(공공교육기)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습관 및 정서 훈련을, 15세부터 21세까지(공공교육의 연속기)는 시민 훈련과 이성 도야에 중점을 두어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 코메니우스(Johann A. Comenius, 1592~1670)는 인간의 지식, 도덕성, 신앙심,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완성된 상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교육을 통해 그 내

2) 손인수, 『교육사 교육철학 연구』, 문음사, 1986; 손인수, 『한국교육사상가 평전』, 문음사, 1990; 김정환, 『전인교육의 이념과 방법』, 박영스토리, 2014; 윤길근김진규, 『전인교육 사상가 평전』, 도서출판 신정, 2021.

부에 존재하는 씨앗을 발육하여 인간다운 속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인간은 자신을 위해 모든 사물의 지식을 겸비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선(善)을 행할 줄 알아야 하고,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경건한 인격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의 연령 단계에 따른 4개 학교(0~6세: 어머니 무릎학교, 7~12세: 모국어 학교, 13~18세: 라틴어 학교, 19~24세: 대학)를 제안하였다. 어머니 무릎학교는 가정교육을 의미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 사물에 해당하는 단어의 개념과 사물의 용도, 외적 형태를 학습한다. 이를 위해 그는 『유아교육 안내서』와 『세계도회』를 집필했다. 모국어 학교에서는 지식, 덕성, 신앙을, 라틴어 학교에서는 역사교육, 문법, 윤리, 수사학 등을, 대학에서는 신학, 정치학, 의학, 저명한 사상가 작품 등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대교수학』에서 인간이 겸비하여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신중성(prudentia), 절제(temperatia), 강인성(fortitudo), 정의(justitia)를 제시하였다.

- 로크는 유능한 신사(gentleman)를 길러내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그는 이를 위해 체육, 덕육, 지육 모두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로크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유베날리스(Juvenalis)의 말을 인용하여 신사의 체육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덕성, 지혜, 품위, 그리고 학식 등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적게 먹기, 옷을 얇게 입기, 찬물에 목욕하기 등을 권장했으며, 일정한 연령에 따르는 습관 형성을 위해 구속 내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릴 때는 권위로 엄하게 대하고, 아이가 성장하여 스스로 통제력이 생기면 자녀와의 간격을 줄여 친구와 같이 대하고 그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확립된다고 했다. 또 아동의 호기심을 지식욕으로 이끄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으며, 여행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교육의 최종 단계로 세계 여행을 강조하였다.
- 페스탈로치는 교육이란 인간이 본래 지닌 지력, 심력, 기능 혹은 머리, 가슴, 손의 삼자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교육목적은 인간의 사회적 경쟁이었다. 즉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이를 통한 사회 개선에 중점을 두었는

데, 인간을 자연적 인간, 사회적 인간, 도덕적 인간의 세 가지 상태로 분류하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덕적 인간의 양성으로 보았다. 또 개인의 전인적 완성을 위해 삼육론, 즉 지육, 덕육, 체육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가정을 인간 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곳으로 보았으며, 종래의 기초교육인 읽기, 쓰기, 셈하기(3R's)에 도덕교육과 실제 교육(사랑하기, 일하기)을 덧붙였다. 실제 교육이란 경제와 노동에 대한 소양과 관심을 기르는 일이다. 정신력의 도야를 위해서는 수(數 : 물건을 수하여 분류함), 형(形 : 눈으로 파악함), 어(語 : 언어에 의하여 그 물체를 기억함)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그의 교육 원리는 합자원의 원리로, 구체적으로는 가정교육의 원리, 인간 교육의 원리, 자기 계발의 원리, 도덕교육 중시의 원리, 직관의 원리, 기초 도야의 원리로 요약된다.

-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는 『교육론(지육, 덕육, 체육)』에서 교육이란 완전한 생활을 위한 준비라고 정의하면서,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 발전에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을 얻고,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 삶의 활동을 중요도에 따라, 직접 자기 보존에 기여하는 활동(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 간접적 자기 보존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획득하는 활동(의식주에 필요한 직업적 지식),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활동(부모로서 자녀의 이해를 위한 지식), 적절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 유지에 관련한 활동(국민, 집단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 생활의 여가를 즐기는 활동(여가 선용에 필요한 예술 문화)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영역을 골고루 준비하는 것이 교육이며, 그 순서에 따라 교과목의 가치를 정하고 당시 학교 교육에서 생리학, 자연과학, 육아학, 심리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
-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인간을 신체, 영혼, 정신의 통합적 존재로 파악했다. 인간의 신체는 광물적, 식물적, 동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혼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에 마주하여 자신의 독자적 모습을 드러내며(영혼은 외부 세계와 대비되는 내면세계임: 감각지각, 감정, 의지로 구성됨), 정신은 인간의 이성을 통한 사고의 영역으로, 신체와 영혼과 정신이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로 작용할 때 참다운 의미의 인간 존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1919년 담배공

장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해 그가 설립한 발도르프(Waldorf) 학교는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인지적 영역에 치우친 주지주의 교육을 반대하고, 신체와 정신적 성장에 맞춘 감정, 사고, 의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했다.

- 수호믈린스키는 진정한 인간을 기르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그는 진정한 인간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힘차고 건강하며, 친절한 성격에, 아름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재능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전인교육의 5가지 구성요소로 신체 교육, 도덕교육, 지식교육, 예술교육, 노동교육을 말했다. 이 중 그가 강조한 노동 활동에는 기본 4원칙이 존재했다. 생산적 노동에 이른 시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 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어야 효과적이며, 모든 노동 활동에는 창조적 차원과 지적 차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노동으로 인해 다른 관심사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 공자는 성인(聖人) 또는 군자와 같은 인격적 인간의 완성에 뜻을 두었다. 그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여겼던 군자는 수기적(修己的) 심성 수양을 통해 지(智)·인(仁)·용(勇)을 겸비하고 나아가 일정한 형식과 격식에 구속되지 않고 편견이나 편파적이지 않은 조화로운 인간이다. 공자는 “도에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노닌다.”라고 했다. 공부할 때는 도(道)를, 행동은 덕(德)에 근거하고, 배움과 정치는 인(仁)에 의지하고, 평소에 생활할 때는 육예(六藝)에서 유유자적하는 전인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자는 시(詩)·서(書)·예(禮)·악(樂)을 자주 거론함으로써 시와 음악과 예를 통한 전인적 삶을 중시하였다.
-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사단(四端)의 마음을 본래부터 소유하였으므로 스스로 본성을 회복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맹자가 이상적으로 여겼던 인간은 호연지기를 지닌 대장부(大丈夫)라고 할 수 있다. 대장부는 인(仁)이라고 하는 천하의 넓은 집에 살면서, 예(禮)라고 하는 세상의 바른 자리에 서서, 의(義)라고 하는 천하의 큰 도를 행하며, 뜻을 이루면 백성들과 더불어 바른 도를 실천하

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혼자서 자기의 도를 실천하여 부귀나 빈천으로도 그 마음을 흔들 수 없고 무력의 위협으로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다.

- 장자(莊子, B.C.360~286년경)는 진인(眞人) 또는 지인(至人), 천인(天人)을 이상적 인간으로 여겼다. 만물제동(萬物齊同)이라 하여 모든 사물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겼던 장자가 생각한 이상적 삶은 근심의 근원인 자신의 육체정신을 버리고 ‘허정(虛靜)’, ‘염담(恬淡)’의 심경에 도달하여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어떤 것에도 침해받지 않는 자유·독립을 얻어 세상 밖에서 초연하게 노니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실현한 사람을 ‘진인(眞人)’ 또는 ‘지인(至人)’이라고 했다.
- 주자는 수기치인을 통한 내성외왕(內聖外王) 즉, 안으로는 성인(聖人)이 되고 밖으로는 훌륭한 임금의 덕을 갖춘 사람, 곧 학식과 덕행(德行)을 겸비한 사람이 이상적 인간으로 여겼다. 그는 교육 단계를 기초교육인 소학 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 교육으로 구분했는데, 소학 교육은 6, 7세 경에 시작하여 육예(禮, 樂, 射, 御, 書, 數)와 쇄소(灑掃), 응대(應對), 진퇴(進退)의 예절을 공부하고, 15~16세 경에 이르러서는 대학 교육인 삼강령(三綱領), 즉 명명덕(明明德: 밝은 덕을 밝힘), 신민(新民: 백성을 새롭게 함), 지어지선(止於至善: 지극히 선한 경지에 그침)을 교육목적으로 삼았다. 그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을 개인의 인격 완성 방법으로,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은 개인적으로 성현이 되기 위해 공부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와 백성으로 발전시켜 삼대(하, 은, 주)의 태평성대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몸은 바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였다. 인식과 실천은 마음의 두 측면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식은 단순히 인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지행합일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양지(良知)’의 체득과 실천을 강조했다. ‘심즉리(心卽理)’라는 근본 입장을 확립하여, 외물(外物)에서 이(理)를 구하는 주자학적 격물론(格物論)에서 탈피하여, 마음속의 부정(不正)을

없애고 양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즉 낱낱의 사물에 존재하는 마음을 바로잡고 선천적 양지(良知), 양능(良能)을 갈고 닦는다는 새로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또 명명덕(明明德)·친민(親民)을 통하여 대동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 우리나라의 이황(李滉, 1501~1570)은 인간의 본성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이성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를 종합적·전인적으로 겸비한 심성론에 침잠하였다. 그는 교육의 목적을 자기 수양을 통해 덕을 이룩하고 인(仁)을 체득한 성인(聖人)이 되는 데 두었으며, 공리를 통하여 사물의 이치와 우주의 운행 원리를 탐구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데 두었다. 그는 내면적, 주관적 덕성 함양인 거경(居敬)과 이치의 탐구인 객관적 공리(窮理)를 통해 도덕과 지식을 일체화하는 온전한 인성 함양을 강조하였고, 공부의 3단계, 즉 깊이 생각하고 익히는 단계인 ‘사지습지(思之習之)’와 참되게 실천하는 단계인 ‘진천리지(眞踐履之)’,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실천을 거듭하는 단계인 ‘반복종시(反復終始)’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 이이(李珣, 1536~1584)는 성현의 가르침에 정통하여 이를 실천하는 사람, 즉 벼슬에 나가서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고 물리나서는 교화를 베풀어 배우는 사람을 깨우치는 이를 참된 선비[진유眞儒]라고 하면서, 참된 선비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입지(立志), 거경(居敬), 공리(窮理), 역행(力行)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은 성지자(誠之者)로 누구나 입지(立志)를 돈독히 하고 실천해 나가면 성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문을 위한 구심적 정신자세인 거경(居敬)으로 초지일관해야 하고, 참다운 앎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사고하고 관찰하는 공리(窮理)를 해야 하며, 독서, 논인물(論人物), 접물(接物)을 통해 자주적으로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을 점진적, 지속적으로 온전히 실천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인지적 측면에서 입지와 공리를, 정서적 측면에서 거경을, 행동적 측면에서 역행을 강조한 것이다.
- 이기(李沂, 1848~1909)는 실학사상에 근거한 이용후생(利用厚生)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가 이용후생 교육을 강조한 것은 조선말 쓰러져 가는 국권을 회복하

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과거 학문의 공리공담적 천착이 결국 국권 상실의 주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부벽과론(一斧劈破論)」에서 삼육론(體育, 德育, 知育)을 말하였는데, 체육은 옛적의 작무(勺舞) 상무(象舞)와 사(射)·어(御)로부터 나온 것이며, 덕육은 충효(忠孝)의 윤리(倫理)와 같은 것이고, 지육은 사물의 이름을 알고 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했다. 체육(體育)을 통해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자기의 지기(志氣)도 펴고 혈맥을 유통시켜 몸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임금이나 부모 혹은 국가, 가족에 대한 예의를 조석으로 교육해야 충효(忠孝)를 실천하는 덕육(德育)을 기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사물의 이름을 알고 그 작용을 배워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체 생활을 통한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 안창호(安昌浩, 1878~1938)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는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자기개조(自己改造)를 강조하였는데, 이 자기개조는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대 정신이 핵심이다. 또한 그는 덕육, 체육, 지육을 기르는 전인교육을 제창하였는데, 덕(德)이 없는 인간의 지식(知識)은 악의 힘이 되기 쉽고, 몸[體]이 약한 자는 불평불만의 씨가 되기 쉽다고 하면서 덕(德)이 가장 중요하고 지육(知育)은 맨 마지막이라고 했다. 대성학교를 세워 건전한 인격 함양,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족운동가 양성,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 강한 체력의 훈련을 교육지침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했다.
- 한편 정재걸(2010)³⁾은 ‘만두모형’ 교육관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전인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공교육은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교육은 개인의 노동력 가치를 높이는 일, 국가나 사회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현대 교육은 ‘주물모형’의 교육과 ‘도토리모형’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것이다.

3) 정재걸(2010). 『오래된 미래교육』. 살림터.

- ‘주물모형’의 교육은 주물에 쇳물을 부어 일정한 모양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교육이란 아동에게 일정한 교육내용을 전달하여 그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교육관이다. 즉,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현대 전기의 교육, 교육내용 중심의 교육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토리모형’의 교육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여, 교육이란 아동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즉 타고난 능력이나 소질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즉,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현대 후기의 교육, 아동 중심의 교육관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현대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의 종말이 오고 있다. 현대 문명에서의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은 ‘자아’라는 분리 독립된 개체의 자기 확인과 확대를 의미한다. ‘노동의 종말’과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 탈현대 사회 건설의 핵심은 분리 독립된 ‘나’라는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보다 높은 능력인 ‘영성’ 혹은 ‘종교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만두모형’의 교육을 제안하였는데, ‘만두모형’ 교육이란 학습자의 마음속에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가 들어 있다고 간주하여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여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깨달도록 하는 것이라는 교육관이다. 마음공부를 통한 깨달음의 도정에 교사는 암중모색 중인 학생의 등불이자 안내자로서 스승의 현존 자체가 학생의 나아가갈 방향을 알려주고 달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정재걸은 말로만 전인교육을 부르짖고, 진정한 의미의 전인교육이 추진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노동이 아니라 수행과 낙도를 통해 진정한 자기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현대 문명의 실현은 제도적 구조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탈현대의

실현은 감동을 통한 인간의 변화를 통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공교육의 성립 이후 가장 중요하게 전개되는 논쟁은 평등과 수월성이지만, 이 두 가지 입장에 공통되는 면은 교육이 결국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교육관은 서구 현대 공교육 형성과정의 기형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서구 근대 공교육은 순치된 노동력의 양성과 사회적 비용 감축이라는, 자본과 국가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전통에서는 교육을 공공의 이익(이익 패러다임)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공의 패러다임)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즉 교육은 공익이든 사익이든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라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공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공의 패러다임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익 패러다임 속에서는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재걸의 관점이다. 그는 공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 전통인 공의(公義)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자신의 내면을 주시함으로써 욕망을 다스리고 피부밑 자아를 극복하도록 하는 인성교육,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도록 하는 환경교육,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평화와 공존을 배우는 통일 교육, 세계 시민으로서 자국의 문화적 전통을 체득하고 나아가 상대 문화의 장점을 이해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깨닫는 죽음 교육 등이 공공의 정의를 위한 교육이며, 이러한 공공의 정의를 위한 교육만이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재걸은 5·31 교육개혁의 기본 논리는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이를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연결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5·31 교육개혁은 넓은 시각에서 보면 '교육의 시민사회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방 후 국가 영역에 포함되었던 교육이 이제 시민

사회 영역으로 이관된 것이다. 교육의 시민사회화는 교육이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31 교육개혁의 주된 논리는 결국 ‘공교육의 시장화’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5·31 교육개혁은 공공영역에 있는 학교를 시장경제에 맡겨 상품 논리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여 학생들 간의 무한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한용진과 신현정(2021)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담론이 핵심역량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역량 중심의 인간관은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분절화된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기에 인간성의 본질에 관해 통합적인 홀리스틱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멀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인재상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핵심인재의 조건을 논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 한용진과 신현정은 기존 학자들의 전인교육의 개념을 <표 II-1>에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정적 전인성, 인성계발적 전인성, 정신적 전인성의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적 전인성은 어떠한 교과를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지도하여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진 유형이고, 인성계발적 전인성은 개인적 소질의 총체성을 전제, 지적·기능적·도덕적 기본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 유형이다.

<표 II-1> 전인교육 개념 분석틀

개념 분석틀	교육과정적 전인성	인성계발적 전인성	정신적 전인성
정재걸 관점	주물모형	도토리모형	만두모형
이홍우 관점	가법적 접근		승법적 접근
요시다 관점	기계론적 패러다임		홀리스틱 패러다임

4) 한용진, 신현정(2021). 문명사적 전환기의 전인교육 개념 재고. 인문사회 21, 12(1), 843-858.

- 따라서 <표 II-2>에 제시된 것처럼 교육과정적 전인교육과 인성계발적 전인교육 모두 총체성을 지향하는 가법적 접근 방식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표 II-2> 총체성 지향 가법적 접근

총체성(wholeness) 지향: 가법적 접근	
교육과정적 전인교육	인성계발적 전인교육
분절적 교육내용의 총체성 사례: 동양의 六藝, 서양의 7자유학과	다양한 소질의 총체적인 계발과 성장 사례: 페스탈로치 3H, 스펜서 삼육론
오바라 구니요시(小原国芳)의 전인교육론 4차산업혁명위원회: 미래사회 핵심역량의 4C(창의,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 정부 인재상의 공통 핵심요소: 지식, 스킬, 인성, 메타학습	

- 정신적 전인성은 정신적 신성성을 지향하는 전인교육의 개념으로 인간으로서의 완전함(perfection)에 주목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근대 공교육 체제에서 종교교육을 배제하면서 위축되게 된다. <표 II-3>에 제시된 것처럼 정신적 신성성 지향 승법적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표 II-3> 정신적 신성성 지향 승법적 접근

정신적 신성성(spiritual holiness) 지향: 승법적 접근	
종교적 신성성(Religious holiness)	미적 신성성(Aesthetic holiness)
코메니우스의 인간관, 불교의 覺者, 神仙, 侍天主, 人乃天	그리스의 美善人(Kalokagathos) 동양의 군자, 선비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의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전인교육을 지·정·의가 완전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인교육이 공리주의와 입신 출세주의를 동기로 하거나 극단적인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교육에 반대하여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육은 인간의 성장 발달이 통합적이라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발달 영역을 신체적·정신적 또는 지적·정의적·심동적(psycho-motor) 영역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사고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각 영역의 학습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련 하에서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변화로 인해 획일성, 고정성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인교육을 위해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혹은 지역사회 등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교육의 근원적인 목적 자체가 이미 전인교육 자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인교육에 관한 주장들은 지식교육에 치중된 기형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영재 외(2006) 연구자들은 전인교육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제안했다.

- 첫째, 전인교육은 인간의 모든 측면, 즉 지·정·의, 혹은 지·덕·체 등이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인 자체의 의미가 모든 측면이 조화롭게 발달한 인간을 뜻하므로, 전인교육은 특정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 전인교육이 인간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발달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양교육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양교육은 실용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기능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이며, 비실용적이라는 측면에서 전인교육과는 다르다. 전인교육은 현실과의 분리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실제 생활에 응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움의 깊이와 넓이를 확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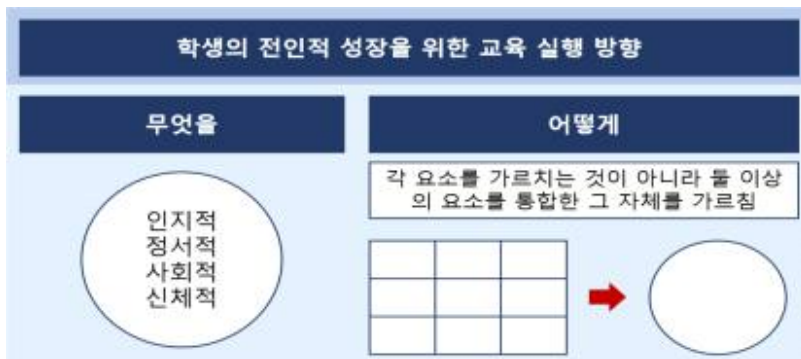
- 둘째, 전인교육은 인간의 모든 측면 간의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전인교육을 지·덕·체 등 세 측면의 조화로운 발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각 측면은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측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덕·체 요소는 서로 관련되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교과든 각기 다른 교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교과 내에서 지·덕·체 모든 측면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 셋째, 전인교육은 지식교육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교육을 포함한 상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식교육도 전인교육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 학교 교육이 지식교육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할 때 그 대안으로서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인교육은 지·덕·체 모두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는 것을 말하므로, 인간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인교육은 실생활과 연결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식교육 또한 강조한다.
- 넷째, 전인교육은 정서교육을 추구한다. 정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사회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발달을 촉진한다. 타인의 슬픔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감각한 인간, 혹은 감정을 지나치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인간은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는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기 어렵다.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인교육에서는 그러한 정서 표현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성교육도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은 인간의 성격 또는 사람됨의 정서, 정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서 주로 덕성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김정환, 1997).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이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하며, ‘인성교육진흥법’(2015)에서도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인교육은 정서교육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과 특성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을 양성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으므로 인성교육과 서로 관련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섯째, 전인교육은 몸 교육을 추구한다. 전인교육에서는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단순히 지식이 아닌 몸으로 직접 활동하고 체험함으로써 단지 지식이 아닌 행동과 태도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신체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시한다.
-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지덕체 중심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대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인적 성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김경희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결과 전인교육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홍익인간, 지덕체 등으로 대표되는 개념을 승계하되 논의 및 의사전달의 편의상 전인적 성장을 ‘인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영역에서의 조화로운 발달’로 구체화했다. 특히, ‘전인’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그동안 개인적 수준에서 논의됐던 소극적 해석을 넘어, 나와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적 영역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행의 방향을 [그림 II-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1]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행의 방향 (김경희 외, 2021:41)

–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표를 아래 [그림 II-2]와 같이 5개 영역의 26개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김경희 외, 2021:60). 학생들이 인지적, 사회·정서적, 건강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영역을 지표화하여 그 수준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 교육 활동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학교 환경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에 맞게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지표 구성 방향 및 범주	영역	하위요소
학생의 전인적 성장 • 학생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인지	직업성취, 기초학력,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정서	긍정적 자아개념, 시민성,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성, 공동체성, 예술감상 및 표현, 자기관리 및 통제, 정서조절
	신체	건강, 기초체력
학교교육 지원 • 학교교육이 학생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교육정책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 지원 인력 배치, 교육 시설 구축 및 개선
	교육활동 및 학교 환경	다양한 교육 활동의 균형적 제공, 선택교과 비용,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학교 안전,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그림 II-2] 교육지표의 영역별 하위요소 (김경희 외, 2021:60)

나. 전인교육의 특성

○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오영재 외(2006)의 연구자들은 통합성, 균형성, 관계성, 체험성, 인간성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전인교육은 통합적이어야 한다.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인식할 때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인교육은 인간의 지·덕·체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유사 교과 단위를 넘어서서 개별 교과를 통합하며, 교과와 삶의 상황 혹은 환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둘째, 전인교육은 균형성을 추구한다. 전인교육은 각 요소,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 중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의의 조화, 개별학습과 집단 학습의 조화,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의 조화, 내용과 과정의 조화, 학문과 삶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셋째, 전인교육은 관계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고립되거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상호의존적이고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자아와 자아의 관계, 자아와 타자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아와 공동체 및 세계와의 관계, 자아와 우주의 관계 등 전인교육을 통해 관계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전인교육은 한 개인이 타인, 공동체, 세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자신에 대해 깊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을 키워 줄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전인교육은 모둠학습이나 협동 학습 등 대인관계 속에서의 배움, 지역사회 내에서의 배움, 세계 속에서의 배움을 강조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전인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등이 협력하여야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 넷째, 전인교육은 체험을 강조한다. 전인교육은 단지 이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활용해 보면서 지식을 내면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다섯째, 전인교육은 인간 존중에 기반한다. 전인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며 차이와 다름을 수용한다. 따라서 전인교육은 개개인의 특별함과 다름을 전제로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 및 능력을 최대한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김승호(2022)는 「전인의 재개념화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체로서의 세계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는데, 그는 ‘치명적인 교과 간의 단절’, ‘단순한 학문의 묶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양과목들을 통합 교과적으로 가르쳐서 그 배움이 총체로 바

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연습(practice)’ 또는 ‘학습(learning)’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전인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연습이나 학습은 전인적 합일을 지향하여, 예를 들어 지와 정, 또는 정과 의, 또는 덕과 체, 또는 감정과 힘줄, 체와 신경세포 등등의 사이의 갭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이다.

- 김승호는 역량 중심 교육이 처음부터 총체로서의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현실에서 요구되는 일이나 과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전인교육과 대척점에서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인교육은 학생이 총체로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주어지는 모든 일에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접근이라면, 역량 중심 교육은 전인교육과는 역방향으로 총체로서의 마음을 배제하고 주어진 일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어떤 능력과 인과적으로 관계에 있는 마음의 특정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차별화하였다.

○ Raja (2016)는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삶과 관련 있는 교육을 강조하며 전인교육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인교육은 하나의 운동이며, 새로운 방향이요, 새로운 경향이요, 새로운 지향이다. 그것은 하나의 태도요 접근방법이며, 새로운 교육적 관점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요 행동양식이다. 그리고 개개 학생의 전체적인 삶이나 환경 및 조건과 관련되는 방식으로 지식, 기능, 태도, 정서를 다루는 과정이다. 전인교육은 교육의 과정을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며, 재미있고 자아실현적이며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동기 부여적이며, 통합적이고, 적합성이 있는 것이며, 의미 있고, 내성적(introspective)이며, 외향적(extrospective)으로 다루는 방식이요, 과거 경험 전체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며, 오늘의 도전을 적절하게 다루며, 더욱 현명하고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다(Raja, 2016). Raja의 이러한 교육철학은 전인교육의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 첫째, 전인교육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준비이어야 한다. 이는 초등학교

때의 어린 시절부터 삶의 중요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둘째, 전인교육은 자아실현에 대해 자기충족적이어야 한다.
- 셋째, 전인교육은 각각의 인간 관념, 자연, 살아있는 인격체와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인격의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는 흔히 교육 현장에서 부르고 있는 ‘학생 중심’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 의미는 하나(개인)가 아니라 개인, 인격, 전인(全人)의 인격주의(personalism)로 역동적인 전체를 뜻한다.
- 넷째, 전인교육은 정신적, 지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주지교과에 치우쳐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다섯째, 전인교육은 학생의 흥미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이는 전인교육의 출발이 학생의 내면에서 시작됨을 암시한다.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들 나름의 소중한 경험 세계와 생각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소위 ‘학생 중심’이라는 교육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 여섯째, 전인교육은 서로 다른 교과를 통합하고, 교과를 삶의 상황 및 환경과 통합하며, 내용과 방법을 통합하는, 즉 그 성격이 통합적이어야 한다. 이는 통합과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 현행의 교육에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교육을 위한 좋은 방법 예라고 할 것이다.
- 일곱째, 전인교육은 학생들의 수준과 그들의 삶에 적합해야 한다. 이는 학년별로 학생들의 수준과 그들의 실태(환경)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여덟째, 전인교육은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전인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개인적 수준에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의미의 부여는 곧 우리의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의미 있게 만든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적응을 해야 하므로 그가 속한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긍정적으로 계속된 성장을 할 수 있다.

- 아홉째, 전인교육은 내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전인교육은 외재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결국 성장해 가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 만큼, 학생들 스스로 내재적 힘을 기르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 열째, 전인교육은 외향적이어야 한다. 교육은 곧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성숙을 지향한다. 곧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는 사회적 성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전인교육은 외향적 충족을 위한 관계성 형성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로써 전인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발전을 충족할 수 있다.

다. 전인교육의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방법

- 전인교육(인성교육)의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Williams와 Schaps(1999)⁵⁾는 전인교육(인성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접근방법을 <표 II-4>와 같이 ‘전통적 관점’, ‘아동 발달적 관점’, ‘구성주의적 접근’, ‘배려 공동체 접근’, ‘배려 윤리 접근’, ‘절충적 관점’, ‘사회정서학습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Williams & Schaps, 1999; 김수진, 2015 재인용).

5) 김수진(2015) 재인용. 인성교육의 주요 접근 및 쟁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Williams, M. M. & Schaps, E. (1999). Character education: the foundation for teacher education: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표 II-4> 전인교육에 대한 접근방법(Williams & Schaps, 1999: 김수진, 2015 재인용)

접근방법	구분	주요학자	특징	의의	한계
전통적 관점 (traditional perspective)	행동	Bennett, Bohlin, Kilpatrick, Ry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관의 형성, 덕목의 함양 강조 덕목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덕목의 실천, 행동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화로 흐를 위험 덕목의 습득과 행동의 불일치 문제
아동 발달적 관점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	인지	Berkowitz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을 옳은 것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특징으로 봄. 아동의 발달에 따른 인성 발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이 지속적으로 점차 발달해가는 것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단계에서의 특정 가치의 발달
구성주의적 접근 (constructivist approach to sociomoral development)	인지	DeVries, Kohlberg, Piag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 강조 토론, 규칙 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갈등 해결, 자치 등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적 능력 강조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자율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고려 부족 인지 능력과 행동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예측 불가 내용보다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
배려 공동체 접근 (community of care)	정서	Battistich, Solomon, Wat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 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내적 동기, 신뢰, 소속감, 효능감 등) 발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 존중과 같은 감정적 측면 중시 배려의 분위기 조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적 측면에 관련되는 가치들에 대한 고려 부족 배려 공동체에서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 소홀
배려 윤리 접근	정서	Lick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 관계의 발달에 초점 학생들의 윤리적 이상 고양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 존중과 같은 정의적 측면 중시 관계성, 맥락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적 측면 소홀 타인의 필요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배려를 적용할 위험

접근방법	구분	주요학자	특징	의의	한계
절충적 관점 (Eclectic perspective)	인지 정서 행동	Lick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아우르는 인성의 통합적인 발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을 인지, 정서, 행동이 관련된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 정서, 행동이 실제로 구분되는 것처럼 오해될 위험 여전히 특정 덕목들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
사회정서학습 접근	인지 정서 행동	Elias, Weissberg, Z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을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봄. 자기 자신, 타인,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성의 개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정서 기술의 습득이 행동으로 연결되는가의 문제 사회정서학습과 학업적 성공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

- 국내에서는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한 ‘가치·덕목 중심 접근 방법’과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역량 중심 접근 방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박형빈(2022)은 이를 아래 <표 II-5>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표 II-5> 전인교육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방법(박형빈, 2022)

접근방법	
가치·덕목(value virtue) 중심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적 맥락 속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강조되어야 할 요소
역량(competency) 중심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중심이란 인성을 인간 삶에 필요한 능력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이를 길러주는 것으로 인성교육을 이해 역량 중심 인성교육은 특히 정의적, 사회적 측면에 초점

가) 가치·덕목 중심 접근

- 전인교육(인성교육)의 구성요소에 대해 가치·덕목 중심으로 접근한 사례로는 「인성교육진흥법」(2015)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 연구를 들 수 있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핵심 가치·덕목’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핵심 가치·덕목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이 통합된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 전인 및 전인교육에 대한 논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성경희 외(1990)는 일찍이 전인의 덕목으로 7개 영역과 그에 따른 하위 덕목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표 II-6> 전인의 덕목(성경희 외, 1990)

영역	하위 덕목
창조적인 사람	기본적인 학습, 과학적인 사고력, 창의적 사고
도덕적인 사람	올바른 가치관, 인간 존중의 태도, 인류애
민주적인 사람	민주주의 본질 인식, 민주시민 생활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와 과정 준수
심미적인 사람	문화 의식, 미적 감수성, 예술 활동의 생활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강인한 의지, 건강한 생활
기술적인 사람	생활 기술의 습득, 생활 정보 활용, 건전한 직업의식
자주적인 사람	주체성의 확립, 의사결정 능력, 진취적인 정신, 지도력

- 류청산 외(2006)의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구성 요소를 자기, 타인, 자기타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오기성 외(2012)의 연구에서는 품성으로의 인성

과 정의적 특성 및 도덕적 능력으로서 인성의 하위요소를 각각 구분하여 인성교육 구성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II-7>과 같다.

<표 II-7> 인성교육 구성요소(류청산 외, 2006; 오기성 외, 2012)

구분		내용	
류청산 외 (2006)	자기	자발성, 신중, 정직, 자부심, 성실, 일관성, 적응, 청결	
	타인	공동체의식, 정중, 애국심, 인류애, 봉사정신, 질서의식, 관용	
	자기타인	진, 선, 중용, 생산성	
오기성 외 (2012)	품성으로의 인성	개인적 덕목	정직, 성실, 책임, 절제
		인간관계 덕목	배려, 관용, 정의, 협동
	정의적 특성 및 도덕적 능력으로서 인성	심리적 특질	자기존중감,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열정과 의지, 도덕적 국가정체성
		도덕적 특질	관점채택능력(perspective taking), 공감능력, 판단능력, 행위능력

- 한편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장창우 외(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의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을 아래 <표 II-8>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II-8>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장창우 외, 2013)

차원	덕목	정의
개인적 차원	지혜	어떤 상황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 인지를 분별하는 것
	용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성실	거짓됨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
	절제	스스로의 욕구, 감정 등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관계적 차원 (타인, 공동체, 자연과의 관계 차원)	효도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 고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
	예절	사람이 만든 질서에 따라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알맞게 표현하는 것
	존중	정중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그들 이 존엄성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배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책임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각 구성원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 실히 이행하는 것
	협동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 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
	준법	기본생활규칙과 공중도덕, 법, 그리고 기타의 사회적 약속과 의 무 등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성향
정의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고자 하는 항상적이고 영속적인 의지	

- 현주 외(201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 수준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개 덕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II-9> KEDI 인성 예비검사 문항 구성 (현주 외, 2014)

인성 덕목(요인)	구성내용	문항수
정직	솔직성(정직성), 용감성	20
절제	자기조절, 인내(끈기)	14
자율	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결정	14
책임 및 성실	근면, 약속이행, 책임	16
배려 및 소통	(타인이해 및) 공감, 관대(용서), 친절(이타성), 사회지능(사회성)	28
예의	효도, 공경, 공손(겸손)	18
정의	공정(형평), 인권존중	12
시민성	협동, 질서 및 준법, 애국심	19
인류애	세계시민의식 및 세계평화, 타문화 이해	12
지식 및 지혜	개방성, 창의성, 지혜	17
합 계		170

-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조난심(2016)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을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의 8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표 II-10>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조난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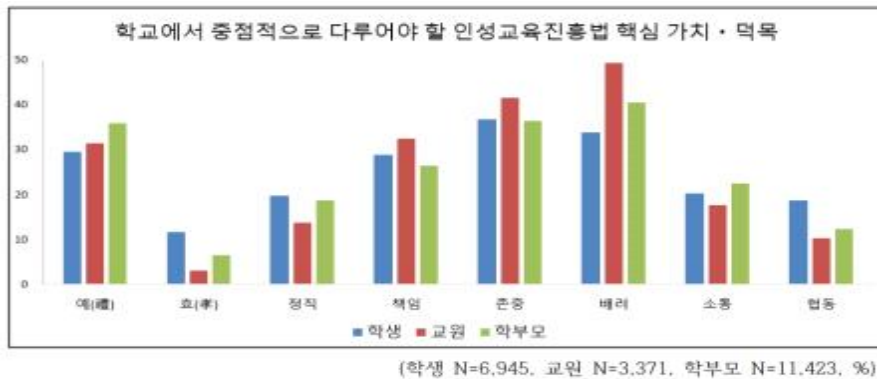
핵심 가치·덕목	의미
예(禮)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가짐과 태도, 친절, 겸손
효(孝)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사랑으로 지내려는 마음가짐과 태도, 우애, 경애
정직	마음이나 행동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성실
책임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사회적 규약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각. 역할 책임. 행위 책임
존중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타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가치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존중, 타인존중, 인권의식, 생명존중
배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도덕적 민감성, 온정성. 타인에 대한 배려, 역지사지(易地思之)
소통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개방성, 공유성, 피드백, 경청,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협동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협업, 조정, 협력, 참여, 공동체 의식

- 원동연(2017)은 5차원 전면 교육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조하였는데, 논자는 지력, 심력, 체력을 기반으로 자기관리능력과 인간관계능력을 더한 5가지를 전인교육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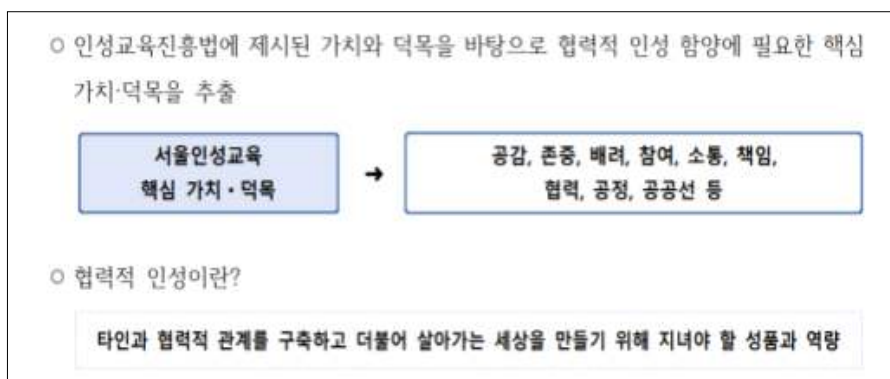
<표 II-11> 전인교육의 요소(원동연, 2017)

영역	하위 덕목
지력	정보처리 능력, 다중언어 능력, 자연세계 이해 능력, 역사 이해 능력, 창조적 지성
심력	삶의 목표 의식 확립, 반응력 기르기, 풍부한 정서력 기르기, 긍정적 사고방식, 바른 세계관 확립
체력	5차원 건강관리법, 최대출력법, 노동과 삶, 직업관, 전면적 인성의 확립
자기관리능력	자유에너지 확장, 시간관리, 재정관리, 언어와 태도 관리, 융합적 능력
인간관계능력	

- 2022년에 진행한 정책연구 실태조사(청정연)에서는 교사 대상 설문 결과, 정서 > 윤리 > 공동체의식 순으로 신규 덕목 추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1에서 재인용).
- 서울시교육청(2022)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덕목[그림 II-3]을 포함하면서도, 공감과 존중의 협력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협력적 인성의 덕목으로, 공감, 존중, 배려, 참여, 소통, 책임, 협력, 공정, 공공선 등의 덕목을 [그림 II-4]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3]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 덕목



[그림 II-4] 서울시교육청(2022)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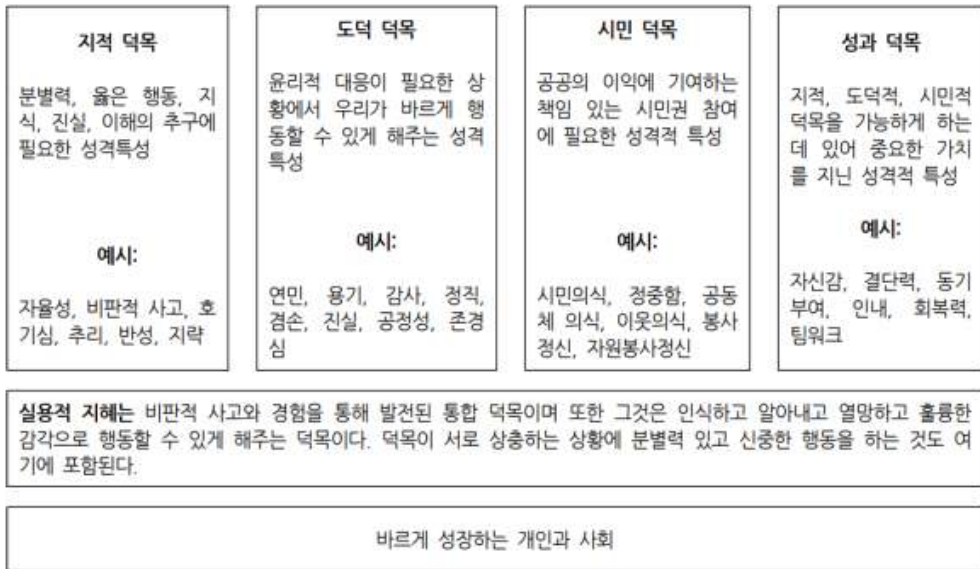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미래교육 2030」에서 제안한 핵심 가치 중 ‘공존(지속가능성)’과 ‘포용(다양성)’을 「2023 서울인성교육 시행 계획」 수립 시 지향할 비전과 목표에 반영하였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으로 배려, 존중, 책임, 소통, 협력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기도교육청(2022)에서는 2023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의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통해 인성의 요소로 도덕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 지적 인성, 수행적 인성을 [그림 II-5]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5] 경기인성교육 로드맵

- 한편 영국 버밍엄대학교 주빌리 인성 덕목센터⁶⁾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변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4가지 차원의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⁷⁾



[그림 II-6]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Jubilee Centre, 2017)

- 이선경(2017)의 연구에서는 이밖에 여러 학자들이 인성교육의 핵심적인 덕목으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6) 주빌리 문화센터는 영국에 위치하며 인성과 덕목, 그리고 그들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센터로, 2012년 제임스 아더 교수에 의해 설립되었음.
 7) The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 virtues(2017). A Framework f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https://uobschool.org.uk/wp-content/uploads/2017/08/Framework-for-Character-Education-2017-Jubilee-Centre.pdf>

<표 II-12> 그 외 학자들이 제시한 덕목(이선경, 2017)

구분	내용
Berkowitz & Grych (2000)	자기통제, 감정이입, 사회적응, 자존감, 사회적 기술, 순종, 양심, 도덕추론, 정직, 이타심
Pearson & Nicholson (2000)	책임, 자제, 용기, 자아존중, 정직, 존중, 친절, 감정이입, 공정성, 정의, 시민의 덕
Lickona(2004)	지혜, 정의, 불굴성, 자기통제, 사랑, 긍정적인 태도, 근면, 성실, 감사, 겸손
Peterson & Seligman (2004)	지혜 및 지식(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인간애(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용기(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절제(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정의(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초월(감사, 낙관성, 심미안, 유머 감각, 영성)

나) 역량 중심 접근

- 전인교육(인성교육)의 구성요소에 대해 역량 중심으로 접근한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양정실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덕목과 인성역량을 <표 II-1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13>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덕목과 인성역량

가치덕목·인성역량	포함되는 인성 요소
존중	자기존중: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긍정적인 태도
	타인존중: 인권 존중,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 갖지 않기
배려	관용, 연민, 양보, 친절, 봉사, 헌신
책임	자기 임무 완수, 정직, 성실, 신뢰, 윤리적 책임감
참여와 협동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 협력, 도움주기, 팀워크

가치덕목·인성역량	포함되는 인성 요소
공감과 수용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타인의 입장 이해, 미적 공감, 심미적 수용
대화와 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문제와 갈등해결능력	문제인식, 가능한 해결 방안 모색, 결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보기, 도덕적 성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정의	준법, 규칙준수, 공정

- 김창환 외(2013) 연구에서는 학생의 다면적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역량지수 체계를 개발하여 <표 II-14>와 같이 제시하였다. 김창환 외(2013)에서는 ‘학생역량’의 개념을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미래 삶의 세계와 직업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복합체(또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역량)”로 정의하였다.

<표 II-14> 역량지수 (김창환 외, 2013)

대영역	소영역	지표
신체 역량	체력	운동 실천율, 체력 수준
	체격	BMI 지수
	영양	영약 및 식습관, 아침식사 여부
정신 역량	정신건강역량	우울감, 불안감, 공격성, 학업스트레스관리
	자율역량	자기주도성, 자기통제
	긍정적 자아역량	행복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지적 역량	창조적 역량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정보역량	정보활용능력
	학습역량	학업기초

대영역	소영역	지표
진로 역량	자기이해역량	자기이해
	진로탐색역량	진로계획역량, 진로선택역량
	진로준비행동역량	진로준비행동역량
대인관계 역량	관계형성역량	공감능력 및 수용성, 관계역량(긍정적 친구/교사/부모 관계 비율), 의사소통역량
	협동력	사회적 협력
	갈등해결역량	갈등해결역량
시민 역량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역량	신뢰, 배려정신, 약자보호 정신, 양성평등 태도, 다문화 수용적 태도,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역량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학교참여
	규칙준수역량	규칙준수

- 한편 김경희 외(2019)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역량 기반 교육의 강조, 미래학력, 참학력, 신학력 또는 새로운 학력 등 새롭게 학교교육의 결과를 조명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교과 지식 중심의 학력지표를 넘어 새로운 학력 지표를 <표 II-15>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표 II-15> 균형적 성장과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학력지표(김경희 외, 2019)

구분		내용
기초기본능력		문식성, 수리력, 영어문식성,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적학습역량		인지, 메타인지, 동기, 행동
인지적 역량	문제해결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역량	관계성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다양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구분		내용
사회적 역량	협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의 목표를 향해 타인과 협력하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배려, 협업기술, 갈등대처 기술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속한 지역, 국가, 세계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찾아 충실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와 가치, 행동 경향성,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보편적 가치와 이성적 판단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의식, 참여/자치, 도덕적 인식/책무
정서적 역량	정서인식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여 표현하고 사고를 촉진하는 감정을 생성시키고 접근하는 능력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타인정서 인식, 공감
	정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정서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정서조절, 회복탄력성, 적응유연성

–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학력지표는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능력, 실천 의지 등의 사회 정서적인 측면까지 아우르는 균형적인 인간상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학생의 인지, 사회,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다면적인 학력지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탐색한 것이라고 하겠다.

- 또한 김경희 외(2021)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지적, 사회·정서적, 건강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지, 사회정서, 신체 영역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교육지표 구성 방향 및 범주	영역	하위요소
학생의 전인적 성장 • 학생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인지	학업성취, 기초학력,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정서	긍정적 자아개념, 시민성,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성, 공동체성, 예술감상 및 표현, 자기관리 및 통제, 정서조절
	신체	건강, 기초체력
학교교육 지원 • 학교교육이 학생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교육정책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 지원 인력 배치, 교육 시설 구축 및 개선
	교육활동 및 학교 환경	다양한 교육 활동의 균형적 제공, 선택교과 비중,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학교 안전,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그림 II-7] 인지, 사회정서, 신체 영역의 구성요소(김경희 외, 2021)

- 오스트레일리아의 ACER(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의 WCD(Whole Child Development)에서는 총체적 아동 발달, 즉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을 토대로 모든 아동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와 교육시스템의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29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WCD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가치, 안전한 환경, 학생참여, 사회정서적 학습, 학문적으로 도전적인 학습, 학문적 지식, 공동체, 정신, 생활기술, 성인의지 등 11개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 평가요소를 <표 II-16>⁸⁾과 같이 제시하였다.

8) Porticus &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2020). Measuring what matters: Insights on the value of Whole Child Development. https://research.acer.edu.au/monitoring_learning/46

<표 II-16> WCD 주제별 평가 요소

주제	평가 요소
건강	위생, 영양, 신체적 및 정신적 웰빙, 신체 발달, 신체 건강
가치	공감, 친절, 배려, 공정
안전한 환경	학교 공동체, 연결 및 소속, 신뢰
학생 참여	적응성, 호기심, 차별화된 지도, 타인과의 교류, 상상, 포용, 교육 환경, 진취성, 동기, 열린 마음, 인내, 개인적 책임
사회·정서적 학습	대처능력, 정서적 자기조절, 공감, 긍정적 관계 구축 및 유지, 정체성, 회복탄력성, 책임 있는 의사결정, 자기효능성, 자기반성
학문적으로 도전적인 학습	학업 우수성,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교육과정, 추가 교육 및 진로 준비, 고차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제2외국어 및 문화 학습
학문적 지식	언어, 문해력(읽기, 쓰기), 수학, 과학, 미술,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공동체	시민권, 지역사회 참여, 다양성, 글로벌 시민, 원주민의 역사, 이주 배경, 평화 증진, 관계(가족, 친구)
정신	연민, 믿음, 소망, 알아차림
생활 기술	21세기 역량, 협업,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글로벌 역량, 메타인지, 문제해결, 전달 가능한 기술, 횡단적 역량
성인의 지지	높은 기대, 양질의 교육 및 교사, 학습 환경 육성, 개별화된 학습 환경,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성인

2. 해외의 전인교육 추진 현황

가. 독일의 전인교육 정책

1) 독일의 학교 제도와 전인교육의 뿌리 ‘빌둥(Bildung)’⁹⁾

9)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한 내용은 김도협(2013), 「독일의 단계별 교육시스템과 진로교육에 대한 고찰」(『교육법학연구』 25-1, 대한교육법학회)과 김상규(2019), 「세계의 교육제도와 사학」(『사학연구』 36,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회), 정기섭(2021), 『독일의 학교교육』(살림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 <기본법>에 따르면, 독일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주권을 가진 주정부가 주의회에서 의결한 학교법을 통해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감독을 실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주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나, 9학년에서 10학년 까지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하고, 그 후 18세까지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중등교육 II단계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중등교육 II단계인 김나지움 상급반에 진학하면 직업학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독일의 교육제도이다.
- 독일에서는 4년 간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중등교육 I 단계의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중등교육 I 단계에서 진학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은 전통적으로 세 갈래로 구분된다.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이렇게 세 갈래로 구분되는 3분기 복선형 학교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독일이다. 주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Grundschule)를 졸업한 학생의 50%는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고, 30%는 레알슐레, 20% 정도는 하우프트슐레로 진학한다.¹⁰⁾
- 초등교육은 6세부터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4년간(주에 따라서는 6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말과 글, 수학, 외국어에 대한 기초 교육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4학년이 되면, ‘초등학교의 상급학교 추천제(Grundschulempfehlung)’라는 제도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적합한 상급학교 유형을 추천한다.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학업성적과 학교생활, 학습태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부모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상담하고, 세 가지 유형의 중등교육 I 단계 교육기관 가운데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의 학교를 추천한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학부모가 한다.
-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는 5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중등교육 1단계 학교(공업·기술계열)로, 실용성이 높은 직업교육 준비에 역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반교육(교양교육)을 실시하며, 실용적 능력이나 기술

10) 임병호(2007). 「국가별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교육 실태」, 한국교육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쪽.

등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하우프트슐레에서는 특히 직업교육(훈련) 학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직업교육 서비스를 수업 구성 요소로 만든다. 하우프트슐레를 수료한 다음에는 직업전문학교나 상급 직업/기술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또다른 중등교육 1단계 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는 5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6년제 학교로, 까다로운 직업교육(상업·서비스계열)을 위해 더 나은 자질을 갖춘 졸업생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레알슐레는 하우프트슐레보다 수준 높은 일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게 한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외국어, 경제, 기술, 건강과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신의 직업을 모색한다. 졸업 후 직업전문학교나 김나지움 상급 단계를 거쳐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 김나지움(Gymnasium)은 5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중등교육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포함한 중등교육 기관이다.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을 갖추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김나지움에서는 학생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일반교양을 가르친다. 김나지움에서는 직업교육보다 인문학적 소양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
- 이처럼 이른 나이에 복선형 학제로 갈라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에 따라서는 중등교육 I 단계 학교의 5~6학년 과정을 진로 탐색 단계(Orientierungsstufe)¹¹⁾로 두고 7학년부터 본격적인 중등교육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11) 검증단계(Erprobungsstufe)라고도 한다. 적절한 진로를 발견하고 결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제5~6학년에서 최초 2년간 마련되어 있다. 이 기간에는 학급담임 및 교과담임에 의해 학생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교육수준 및 교육내용이 관찰, 검증되며 이 단계가 종료되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에 진학할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김상규(2019), 「세계의 교육제도와 사학」, 『사학연구』 36,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회, 345쪽.

나이	학 년	학교 제도				단계									
23		대학교	종합 학교 오버 슈투페	전문 대학교/ 직업 아카데미/ 이원적 대학	전문학교/ 전문 아카데미/ 보건학교	고등 교육 단계									
22	김나지움 오버슈투페						직업학교체계	이원적 직업교육	과도기 체계 20)						
21										김나지움	종합학교 ²⁰⁾ 또는 복합적학교 체계	레알슐레 (실업학교)	하우프트슐레 (주요학교)	독수 학교	
20															중등 2 단계
19															
18	13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17	12														
16	11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15	10														
14	9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13	8														
12	7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11	6														
10	5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9	4														
8	3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7	2														
6	1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5															
4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3															
2		초등학교	유치원	취학 전 단계											
1															
0		영·유아 돌봄기관													

[그림 II-8] 독일의 학교제도 (권희경 외, 2023:57)

- 초등학교 졸업 후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한 울타리 안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종합학교(Gesamtschule)가 등장하였다. 종합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면서도 확장된 혹은 넓고 심화한 일반교육(교양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성향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 독일의 학교 제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3분기 복선형 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 기관이 일반교육(교양교육)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업교육과 인문교육 가운데 어떤 경로를 선택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든, 자율적·사회적·문화적·도덕적 인간을 길러내는 일반교육(교양교육), 즉 ‘빌둥(Bildung)’을 공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 일반교육은 심화된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중등교육 2단계의 직업학교(Berufsschule)나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어떤 직종의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반교육, 즉 독일어, 사회, 경제, 종교, 체육 등 직업 횡단적인 교육에 일정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은 1 대 2의 비율로 편성)
- 그렇다면 독일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교육(교양교육), ‘빌둥’은 도대체 무엇인가? ‘빌둥’(Bildung)이라는 말은 원래 이미지를 뜻하는 ‘bild’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신이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켰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신의 형상이 아닌 완전히 발달된 자아를 지칭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나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Schiller), G.W F. 헤겔(G.W F. Hegel)과 같은 독일 신인문주의자들의 탐구가 커다란 기여를 했다. 당시 시인이었던 크리스토프 마르틴 빌란트(Christoph Martin Wieland)가 프랑스어 단어인 에듀케이션(Education)을 ‘빌둥’으로 번역하면서 신성한 개념이었던 빌둥은 세속적 개념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인문주의자들이 주도했던 낭만주의, 이상주의,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의 개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갈망하는 빌둥에 대한 생각들과 밀접하게 얽히게 되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나아갈 것을 주장했던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문학작품을 통해 숨 막히는 사회 규범에 맞서 질풍노도처럼 거침없는 도전장을 던졌던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본능적 목적의 굴레

에서 벗어나 이성적 목적의 단계로 자신을 끌어올릴 것을 주장했던 프리드리히 실러 같은 경우가 당시 대표적인 신인문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이 주장한 바는 해방, 더 높은 해방을 향한 노력이라는 ‘빌둥’의 개념으로 귀결되었다. 독일 신인문주의자들의 빌둥 개념은 감정적이며 본능적인 인간 단계에서 이성적 인간으로의 변화(칸트), 이성적 인간에서 도덕적 인간으로의 변화(실러) 두 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완성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¹²⁾

- 빌헬름 폰 훔볼트(Friedrich Wilhelm Christian Carl Ferdinand von Humboldt)는 빌둥(Bildung), 즉 보편적인 전인교육이 특수한 직업교육(Ausbildung)에 선행한다는 입장에서 프로이센의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특수한 직업교육은 인간의 근원적 힘을 계발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언어교육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사회적 신분과 기능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조직원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보편적 전인교육이 학교 제도의 근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훔볼트의 주장은 이후 독일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훔볼트는 또한 국가의 요구에 따라 국민을 교육하려는 모든 정책을 거부했다. 국가는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위해 국민을 기능화해서는 안 되며, 개별적 인간의 자유로운 성장을 보장하는 법적 기관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교가 해야 하는 일 역시 인간을 특정한 지식과 기술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항구적인 자기도야(Selbstbildung)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¹³⁾
-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시험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습의 의미와 기쁨을 빼앗고 있다. 정신과 영혼의 결핍된 영양을 채우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면의 소명, 양심, 책임 의식을 키우는 것이 빌둥이다. 테크놀로지나 과학, 윤리, 역사, 종교, 미학, 정치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빌둥

12) 레네 레이첼 안테르센 지음, 이원준 옮김(2023), 『빌둥에서 배운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47-81쪽.

13) 정영근(1991), 「신인본주의 교육사상의 형성과 빌헬름 폰 훔볼트」, 『한국교육사학』 13, 317-324쪽; 안성찬(2009), 「전인교육으로서의 인문학 -독일 신인문주의의 ‘교양(Bildung)’ 사상-」, 인문논총, 62, 117-122쪽.

이 아니다. 발달이란 모든 영역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도전하고 의심하고 탐구할 때,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전모를 보지 못해 생기는 오해로부터 시달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작동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푸시백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발달의 핵심적인 부분들이다.¹⁴⁾ 자기 자신을 더 넓고 더 포괄적이게, 그리고 더 높고 더 깊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발달인 것이다.



[그림 II-9] 인간 발달의 구(Developmental Spheres) ¹⁵⁾

- 발달은 그런 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긴밀하게 연동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과 인문교육 가운데 어떤 경로를 선택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든, 자율적·사회적·문화적·도덕적 인간을 길러내는 일반교육(교양교육), 즉 발달(Bildung)을 공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독일의 학교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교육이 자기주도성과 자기책임성을 함양한 개인의 양성과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발달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권희경 외, 2023)

14) 레네 레이첼 안데르센 지음, 이원준 옮김(2023), 『발등에서 배운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65쪽.
 15) The Nordic Secret. 레네 레이첼 안데르센 지음, 이원준 옮김(2023), 『발등에서 배운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81쪽에서 재인용.

2)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와 방과 후 활동

- 독일의 학교는 반일제학교 형태가 전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19세기 말 반일제학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오전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오후 수업을 하는 형식의 전일제학교가 독일의 통상적인 학교 형태였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말 의무교육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족의 생계를 아동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던 빈곤 계층에서는 아이들을 온종일 학교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의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거리 통학생이 증가하게 되자, 하루 2차례 학교와 집을 왕복하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반일제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 그런데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고학력 여성의 증가, 기혼 및 미혼 직장 여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편부모 가정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전일 보살핌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교육 기회의 균등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서 전일제학교는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Bildung(교육)의 개념이 확대되고 비형식적 교육(informale Bildung)이 중요해지면서 전일제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주목되게 되었다. 특히 가정의 사회화 기능을 학교가 보완한다는 교육정책에 따라 전일제학교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¹⁶⁾
- 독일의 주문화부장관협의회는 2003년 3월 전일제학교의 개념과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¹⁷⁾

16) 정기섭(2021), 『독일의 학교교육』, 살림터, 149~164쪽.

17)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KMK)(2018), *Allgemeinbildende Schulen in Ganztagsform in den Länd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Statistik 2012 bis 2016-*, 2-5. ; 정기섭(2021), 『독일의 학교교육』, 살림터, 163쪽에서 재인용.

－ 전일제 학교에서는 ① 오전 수업 이외에 최소한 일주일에 3일(1일 최소 7시간) 학생들에게 전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②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에는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③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감독과 책임하에 오후의 활동이 조직되고 학교관리자와 긴밀한 협조에서 행해지고, ④ 오후의 활동은 오전 수업과의 연관성에서 이루어진다.

· 완전 결합 전일제학교: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3일(1일 최소 7시간) 전일제 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학교

· 부분 결합 전일제학교: 학생 중 일부(예: 몇 개의 학급 또는 학년)만이 일주일에 3일(최소 7시간) 전일제 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학교

· 열린 전일제학교: 주일에 3일(1일 최소 7시간) 전일제 활동을 제공하는 학교로서 활동의 참여 여부는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오늘날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살핌과 지도의 과제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미래 세대에게 학교는 전일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일제학교에서의 청소년 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청소년 단체 및 기관들과 친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그들을 학교로 끌어들이어야 하며, 이러한 협조 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단체 및 기관들과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독일에서는 전일제학교가 확대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방과 후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 또한 도모해오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독일 아동·청소년 계획(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1994)¹⁸⁾을 수립하여 연방 차원에서 학생의 전인

18) 「독일 아동·청소년 계획」은 1950년 독일 국회에서 공포된 「독일 청소년 계획」을 모태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 지원의 근본원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데

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 틀로 삼고 있다. 「독일 아동·청소년 계획」은 ① 인격 교육, ②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가치의식의 촉진, ③ 기회의 균등, ④ 참여, ⑤ 사회적인 삶에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⑥ 위험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러한 것을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기르기, ⑦ 국가적인 차원과 유럽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 강화하기, ⑧ 유럽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만남과 경험의 강화, ⑨ 자질 개발, ⑩ 아동·청소년 지원에서 혁신적인 콘셉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지원의 모든 영역과 행위의 장에서 ① 아동·청소년 지원활동과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 교육(청소년 정치교육, 아동·청소년 문화교육, 스포츠에서 아동·청소년 지원활동, 아동·청소년 협회/동아리 활동, 국제적 청소년 활동), ② 청소년 사회교육활동과 통합, ③ 주간아동보호 시설에서의 아동 지원, ④ 가정, 청소년, 부모, 다른 교육 보호자를 위한 지원, ⑤ 그 외의 연방 차원의 아동·청소년 지원 과제 등의 대책을 장려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사회법전 제8권>의 제84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아동·청소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노력과 성과를 담는다. 2000년대 이후 제출된 『아동·청소년 보고서』를 보면, 독일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2002년 제11차 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생활 상황과 생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적합한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강조해야 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학교 제도를 뛰어넘어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에서 획득되는 교육 요소들도 교육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돌봄과 지도의 과제도 수행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일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2009년 제13차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핵심 주제로 삼음으로써,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건강한 생활 관리를 통해 특정한 병들을 효과적으로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역량, 문화역량, 상호문화역량, 정치역량, 젠더역량, 매체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 밖 학습 및 교육 장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기섭(2021), 『독일의 학교교육』, 살림터, 174쪽.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3년 제14차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공공책임의 증대’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2017년 제15차 보고서는 제14차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주제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치교육, 정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전일제학교의 확대 실시에 대한 중간 점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전일제 프로그램이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초등이나 중등의 프로그램이 비슷해서 고학년이 되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거나, 학교 밖의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는 스포츠와 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에 따라 쉽게 깨지기 쉬운 관계에 있다는 점 등 전일제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은 우리나라의 방과 후 활동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 독일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청소년 교육과 여가시간 형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인격의 발달과 공동체 능력 발달에 기여하는 틀에서 조직되도록 한다.
 - ② 인간 문화 활동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신인문주의 발달(Bildung)의 개념을 시대에 맞게 포괄적 교육 개념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문화적, 물질적, 사회적, 주체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능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③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 돌봄의 구분을 하지 않고 교육과 돌봄의 과제를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단체들의 과제로 인식한다.
 - ④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 ⑤ 아동·청소년을 컴퓨터 게임, 인터넷, TV와 같은 매체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체능력을 강화한다.
 - ⑥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언급될 만큼 전일제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제공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 ⑦ 청소년의 성장 환경이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르게 변화하였음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 성장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한다.¹⁹⁾

19) 정기섭(2021), 『독일의 학교교육』, 살림터, 187~189쪽.

- 독일 중서부에 있는 헤센주(Land Hessen)의 카를-바이간트-슐레 플로슈타트(Karl Weigand-Schule Florstadt)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등교육 1단계인 하우스프트슐레, 레알슐레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이다. 방과 후 활동 신청은 자유이지만, 신청을 하면 1년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018-19학년도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제에 대한 도움과 노작공동체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노작공동체 활동은 14:00-15:30까지 이루어지는데, 요일별로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 가운데 자신이 참여할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표 II-17> 헤센주 카를-바이간트-슐레 플로슈타트의 방과 후 활동

요일	월	화	수	목	금
활동 (학년)	핸드볼 (3-6학년)	배드민턴 (7-10학년)	바느질 (4-6학년)	복치기 (3-6학년)	가라테 (3-6학년)
	학교위생봉사 (7-10학년)	축구1 (7-10학년)	전자기기 (5-8학년)	놀이 (3-6학년)	1년간 만들기 (3-6학년)
	테니스 (5-8학년)	기타 연주 (3-4학년)	축구2 (3-7학년)	놀이와스포츠 (3-5학년)	예술 (3-6학년)
	예술 (7-10학년)	요리 (7-10학년)	독서클럽 (3-4학년)	도자 만들기 (3-6학년)	
	현미경 관찰 (7-9학년)	배구 (7-10학년)	벌꿀 관찰 및 실험(3-7학년)	카드 놀이 (3-6학년)	
	여성 호신술 (3-6학년)	컴퓨터 (3-4학년)	그림자 연극 (4-8학년)		
	나무 곤충 (3-6학년)	사진 촬영 (7-10학년)	인공암벽타기 (7-10학년)		
		연극 (7-10학년)			
		댄스 (3-4학년)			

- 독일에서는 방과 후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완전 기숙사학교와 전일제 학교도 퍼지

고 있으며,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연방 차원, 주 차원, 지역 차원의 협조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방정부, 연방의회, 국회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아동위원회가 협조하고, 주 차원에서는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주 정부, 주 의회, 주 의원 단체, 주 청소년 연합, 주 독일 스포츠 청소년 연합, 정치적 청소년 연합위원회, 기타 주 차원의 다양한 단체들이 협조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청소년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시 또는 권역별 청소년 위원회 및 청소년 연합, 지역 스포츠 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협조한다.²⁰⁾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이 변화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만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독일의 학교제도와 사회적 협조 체계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 독일의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²¹⁾

-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독일의 정치교육은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관을 독일 국민에게 내면화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용하게 하고, 민주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주적인 의식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독일의 시민교육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학교 내외의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연방정치교육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연방정치교육원은 수많은 교육기관을 지원하면서도 교육내용에 간섭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기관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1976년 정치적으로

20) 정기섭(2021), 『독일의 학교교육』, 살림터, 190~193쪽.

21) 독일의 시민교육, 정치교육의 내용은 변순용(2021), 「독일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주로 참조하였다.

다양한 입장을 취했던 학자들이 만든 시민교육의 기본 원리로서, 강압(교화) 금지(Ueberwaeltigungsverbot) 원칙, 논쟁성(Kontroversitaet) 원칙, 이해관계 인지(Interessenorientierung) 원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체제와 질서에 대한 이해, 해당 체제에 대한 지지 형성,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의 형성을 목표로 삼는 교육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사회 문제 해결에의 적극적 참여까지 목표로 한다. 민주시민의 기본적인면서도 본질적인 특징은 갈등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엮힐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논쟁이 필수 불가결한데, 이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가 받아들임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누구도 독재자로 태어나지 않지만 성숙한 시민 또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 판단과 성찰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강압(교화)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교수 방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주체성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일종의 사회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강압 금지의 원칙이다.
-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잘 하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을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일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한

논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추상적 추론을 넘어 논쟁적 민주주의가 요청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논쟁적 이슈를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따돌림, 인종차별, 인종학살, 동성애 혐오증, 동물복지, 핵 개발, 이민의 유입, 테러리즘, 세계화 등과 같은 논쟁적 이슈를 교육과정 속으로 과감히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은 교실을 민주적 공론장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담론 윤리와 대화의 물, 그리고 상호 존중과 관용의 원칙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이해관계 인지 원칙은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주제가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학생 중심적이고 경험 중심적이며 행위 중심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해관계에 대한 집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수업 내용 및 교육 활동의 경계선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면 할수록 교육 현장은 더욱 생동감 있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 독일의 시민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대에는 나치의 과거 청산, 독일연방 공화국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 제도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변화해 왔다. 60년에는 전체주의의 이념 갈등과 냉전 체제가 고착되면서 과거사 청산, 공산주의, 사회변혁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고, 70년대에는 경제문제, 동방정책, 학교 시민교육의 교과과정과 교수법이 강조되었다. 80년대에는 원자력 발전, 핵무기, 실업, 대중매체,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환경문제, 평화 및 안보정책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고, 90년대 이후에는 동독의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 통일과 사회통합의 문제, 유럽통합의 문제, 극우주의 등이 강조되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정치교육의 주요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표 II-18> 독일 정치교육의 주요한 주제들

영역	주제
1. 학교생활	대화과 협력을 통한 갈등 해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 함께 하기, 장애 학생과 함께 하기 등
2. 가족생활	세대 간의 갈등, 가족 내의 역할 분담, 실업 등
3. 소비생활	시장 원리의 이해, 소비자의 권리 이해 등
4. 환경문제	상품 포장의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5. 법률문제	청소년 범죄, 외국인 범죄 등
6. 정보의 활용	정보 전달 및 감별 능력 등
7. 정부조직	의회의 조직, 법의 제정 과정, 여야의 주요 논쟁 주제 등
8. 지방자치	지역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 제시 등
9. 노동문제	기술의 발전, 노동조직의 변화, 노동시간의 유연성 등
10. 세계평화	제3세계의 빈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국제 난민 등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주 헌법으로 모든 학교가 공동사회(Gemeinschaftskunde)를 정규교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학교(Grundschule)에서는 「향토와 사물수업」(Heimat-und Sachunterrichts)을 통해 정치교육과 관련된 사회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고, 김나지움(Gymnasium)의 중등 I 과정에서는 사회과목에 해당하는 시수를 8~10학년 동안 1시간 혹은 2시간씩 배정하고 있다. 중등II과정(11~13학년)에서는 사회 과목이 편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독립된 과목으로서 필수교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초등학교 「사물수업」 과목 4단원 교육과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주제가 점점 좁혀져 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9>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초등학교 「사물수업」 과목 4단원 교육과정 내용

단원 학년	4단원: 고향과 낯섬	
	주제	내용
1-2	지역 경치와 문화 자산 알기	특히 주변 공간 살피기 과거의 내용
	지역의 생활기반에 대한 정보 알기	예를 들어 해안가 낮선 교통수단, 어부 양치기
3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가장 중요한 차변 항복의 바람에 대해 이해하기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안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 순수한 바닷가 공기, 풍력 에너지 생성에 대한 의미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자연공간에 대해 알기	북해: 해군의 행군, 불모지, 광야, 습지 빙하기부터 오늘날까지 헬고란트 섬
4	식량 중심지로서의 도시들	주요 운반도시: 킬, 튀벡, 플렌스부르크
	군(郡)에 대해 알기(인구의 중요성)	노르트프리스란트와 라우엔부르크 등에 있는 농장들
	우리 주의 중력 조사하기	자연공원 국립공원 북해와 동해
	정치적 통합 인지하기	내가 사는 동네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

- 논쟁을 통해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면서도 때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향성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독일의 시민교육, 정치교육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토론과 숙고의 과정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를 하나의 공론장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체험하게 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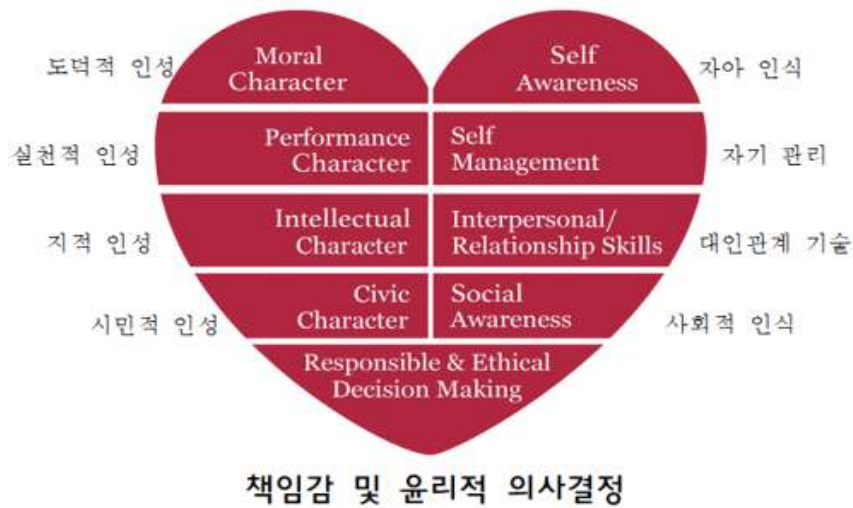
- 독일의 학교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생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든, 학교 교육은 자율적·사회적·문화적·도덕적 인간을 길러내는 일반교육(교양교육), 즉 ‘빌둥(Bildung)’을 공교육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 돌봄의 과제를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단체들의 과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셋째, 초·중등 과정에서 토론과 숙고의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 즉 비판적 판단과 성찰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을 일관된 원칙 아래 실시한다는 점이다.

나. 미국의 전인교육 정책

- 미국에서 전인교육 정책은 주로 각 주의 교육 부서와 비영리 기관들이 주도하며,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학교 인성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텍사스를 포함한 18개 주에서는 인성교육이 의무는 아니지만, 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인성교육에 관한 “학생시민법(Student Citizen Act)”이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에는 주 내에 소재하는 모든 지방교육청은 해당 법이 제시하는 기본 덕목(용기, 올바른 판단, 성실, 친절, 인내, 존중, 책임, 자기도야)을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 반영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교사 및 학교 직원에 대한 존중, 학교시설의 안전, 타인을 위한 봉사,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의 인성교육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이 아닌 광범위한 교육개혁으로 단순히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닌,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모범 사례 학교의 경우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다양한 사설기관에서 인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의 교육 및 이론모

형은 다음과 같다.

- 1993년에 설립된 Character.org는 학교 지도자와 인성교육 연구자들이 개발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인 “학교를 위한 11가지 원칙 프레임워크: 인성 문화 육성 가이드”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년 동안 1,000개 이상의 학교가 Character.org에서 국립 인성학교로 인정을 받았다. 해당 기관에서는 학교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 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CSED) 모델을 제공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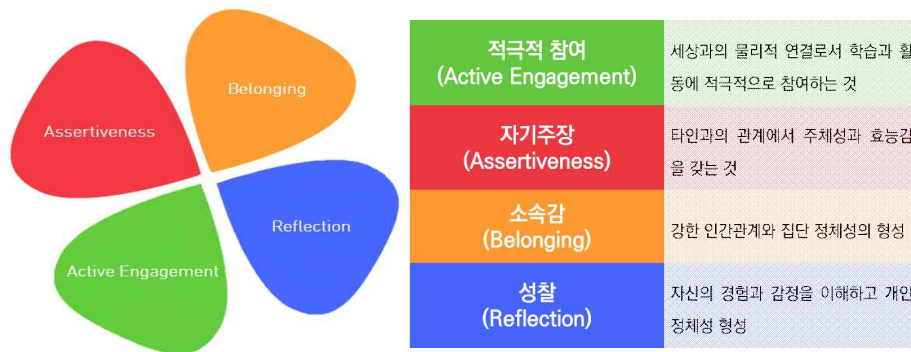


[그림 II-10] 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CSED) 모델

- Dr. Gil Noam과 PEAR(Program in Education, Afterschool & Resiliency)가 개발한 클로버 모델(The Clover Model)은 전인적인 청소년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들을 통합적

22) Character.org(2022). 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lines. Character.org, Washington, D.C.

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이 있다. 네 개의 “잎”으로 구성된 클로버 모델은 각각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역(적극적 참여, 소속감, 자기주장, 성찰)을 대표한다. 이 모델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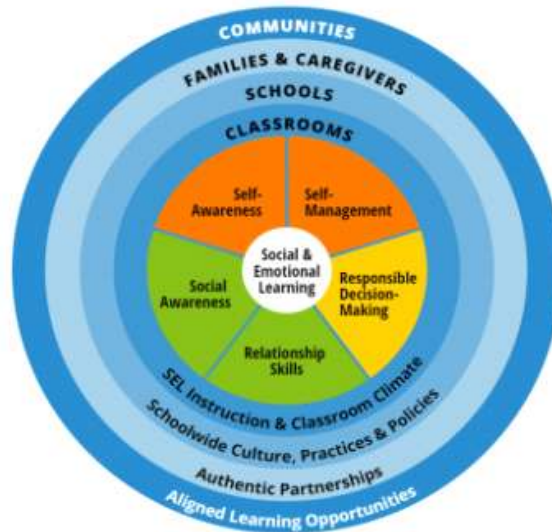
[그림 II-11] Clover Model

- 사회 및 정서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yst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는 교육자, 가족 및 커뮤니티가 사회 및 정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증거 기반 사회정서학습을 필수적인 유초등 교육의 요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CASEL(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에서 개발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내적인 관계, 대인관계, 인지적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CASEL은 사회정서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CASEL이 제안한 5가지 핵심 사회정서역량은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다.

23) <https://www.pearinc.org/clover-model> (인출일: 2024.03.02.)

<표 II-20> CASEL의 5대 핵심 사회정서역량

영역	내용
자아 인식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식
자기 관리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사회적 인식	타인과 공감하고,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며,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원을 인식하는 능력
대인관계 기술	협력, 부적절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 갈등 해결, 필요시 도움 요청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윤리적 기준, 안전 문제, 사회적 규범, 다양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현실적 평가, 자신과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 행동에 대해 윤리적이고 건설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



[그림 II-12] Framework for Syst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²⁴⁾

24) <https://casel.org/fundamentals-of-sel/what-is-the-casel-framework/> (인출일: 2024.01.28.)

- **Character Lab의 성격강점모델(Character Strengths Model):**²⁵⁾ 성격을 마음, 정신, 의지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차원에는 감사, 호기심, 그릿 등의 강점을 포함한다. Character Lab은 미국의 학교 및 관련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성격교육, 인성교육을 연구, 홍보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성취와 웰빙과 관련된 성격 강점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캐릭터 플레이북, 특정 성격 강점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 및 수업 계획, 성격강화 포스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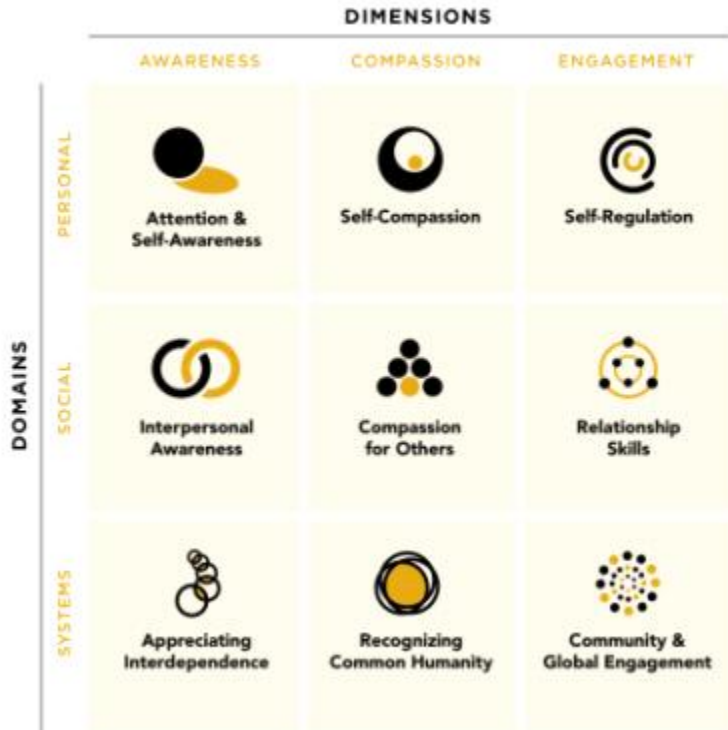


[그림 II-13] Character Lab의 성격강점모델(Character Strengths Model)

- **Social, Emotional, and Ethical (SEE) Learning:** 초·중·고 및 고등교육을 위한 사회·정서·윤리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안내하기 위해 고안된 자비(compassion) 기반 윤리를 위한 교육 프레임워크이다. SEE 프레임워크는 달라이 라마와 협력하여 마음과 정신을 교육하는 연구기반 접근법을 지원하는 Emory 대학교의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 and Compassion-Based Ethics(CCSCBE)에서 개발했다. 전통적인 사회·정서 학습(SEL)의 구성 원칙을 기반으로 주의력 훈련, 자비와 윤리적 분별력, 회복탄력성과 트라우마에 기반한 실천, 시스템적 사고의 추가 구성 요소가 통합된 모형이다. SEE 프레임워크는 학생들이 배려심, 정보력, 책임감을 갖고 자신과 타인의 장기적인 복지에 기여할 수

25) <https://characterlab.org/what-is-character/> (인출일: 2024.01.28.)

있는 가치와 역량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둔다.²⁶⁾



[그림 II-14] SEE(Social, Emotional, and Ethical) 모델의 9요인

- 미국의 인성교육 현황을 통한 시사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범위한 교육 운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의 중대성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과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 단위의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전문적 훈련이 체계화,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성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성교육 관련 연구활동이 진작되어야 한다, 일곱째, 인성의 개인적

26) <https://seelearning.emory.edu/en/about> (인출일: 2024.01.28.)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가정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박종필, 조홍순, 박균열, 2015; 이성호, 2014).

다. 중국의 전인교육 정책

1) 자질 함양 중심의 전인교육

- 2012년 11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된 교육 방침²⁷⁾은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영역의 종합적인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²⁸⁾ 학생들의 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시켜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전인교육을 추진하였다. 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람의 인성에 근본을 두고 그 자질을 높이려는 교육을 하였다.
- 자질이란 타고난 생리적인 바탕 위에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은 개별 인식 및 사회 실천을 통해 쌓아온 비교적 안정적인 심신 발전의 기본적인 성품을 말한다. 자질은 곧 지식에다 능력을 붙이고, 또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인 인격을 더한 것이다. 자질은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구조 중의 하나로 아주 강한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의 성품, 지능, 지혜, 능력의 종합체이다. 자질은 반드시 지식과 능력을 포함하지만, 능력과 지식을 능가한다. 그리고 인간의 내재적 소양과 성품을 더욱 강조한다.
-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 중에서 도덕성과 혁신 능력은 무척 중요하다. 도덕성 속에 지식이 있으며, 도덕인식(道德認識)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도덕성 속에 능력이 있으며, 도덕적 판단력이 그것이다.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종합적 자질 향상이 요구되는데, 혁신 능력은 단지 한 가지 지식의 누적이나 지식적 요소에 대

27) 중국 공산당 제18기 전국대회 보고서(2012.11).

28) 텐젠궈 지음 송홍령 옮김, 『중국교육 세계를 겨냥하다』 (서울: 도서출판 타래, 2015), 132쪽-140쪽 참조.

한 리믹스가 아니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일종의 의식이자 정신적 상태이며, 성격적 특성이다. 이는 여러 가지 자질이 어우러진 것이다.

-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은 서로 교차 관계에 있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도덕적 자질, 문화적 자질, 심신 자질과 전문 자질이다. 사상 도덕 자질은 영혼이고, 문화 지적 자질과 심신 자질은 기초이며, 전문 자질은 뼈대이다. 측면마다 이에 상응한 지식 측면, 정신 측면으로 구성된다.
- 사상 도덕 자질의 지식 측면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과학발전관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이론, 민주법치에 관한 지식과 이론,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론과 윤리학설 등이 포함된다. 능력적인 측면은 변증법적 사고 능력, 시비를 가리는 능력, 가치판단 능력, 행동 선택 능력 등이 있다. 정신적 측면은 도덕의식, 민주 법치의식, 공평 경쟁의식, 간고(艱苦) 분투정신과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사회주의 정신이다.
- 문화 지적 자질은 지식 측면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천문, 지리, 생물 등의 자연과학 지식과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인문과학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고,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관찰 능력, 사실 판단 능력, 논리적 판단 능력, 실험 능력, 독해 능력, 글 쓰기 능력, 감상력, 포용력, 팀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과학 정신과 인문정신, 실사구시 정신 등이 포함된다.
- 심신 자질의 지식적 측면에는 건강 지식, 운동 지식, 심리 건강 지식 등이 포함되고, 능력적 측면에서는 자기관리 능력, 심리 조절 능력, 사회적응력, EQ와 IQ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적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자기 초월 정신을 말한다.
- 전문 자질의 지식적 측면은 다른 전공의 기초지식, 전공 관련 기초지식, 전공지식을 말하는 것이며, 능력적 측면은 서로 다른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전공이 대응한 직업정신과 책임의식, 혁신의식,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에 전념하는 정신과 프로정신이 포함된다.

- 지식, 능력, 자질이 세 가지 요소는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즉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세 요소 중에서 지식은 기초이다. 풍부한 지식이 없으면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자질을 갖추기 어렵다.
- 능력은 관건이다. 능력은 일정한 지식을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훈련, 실천을 거쳐 형성, 발전된 것이다. 이에 인품, 처사(處事)와 사고 능력이 포함되면 지식의 승화라고 볼 수 있다.
- 자질은 핵심이다. 이는 일정한 지식과 능력의 기초 위에서 발전과 내재화를 통해 생성된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내재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개성 심리적 자질로써 지식과 능력의 승화라고 할 수 있다.
- 지식은 능력과 자질을 형성하는 기초이고, 능력은 지식을 자질로 전환시키는 매체이며, 자질은 지식과 능력의 최고 표현 형식이다. 따라서 전인교육 과정이야말로 지식과 능력을 자질로 전환시키는 융합적인 과정이다.

2) 혁신과 실천 중심의 전인교육

- 중국 시진핑 전인교육의 출발점은 자질교육으로, 학생들의 덕(德), 지(智), 체(體), 미(美)의 전면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전인교육은 학생을 주체로 한 교육이며, 학생들이 피동적으로 공부하는 교육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심신 발전 특징을 파악하고 교육 규칙을 소홀히 하는 단순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끊고, 반드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게 이끌어주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인교육은 혁신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사회 경제 발전과 병행하여 실용성에 입각하여 실습을 꾸준히 시키고 학생들의 혁신을 격려해줌으로써 교육이 경제 건설 및 사회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인재 양성의 모든 단계에 일관되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느 한 단계에서만 실시하

는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전인 교육을 단지 기초교육에서만 완성해야 할 임무라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 유치원 교육, 중·고등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등 각 단계에 일관되게 실시하며,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 그리고 사회 교육 등 각 방면에서도 일관되게 실시하여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 중국은 거시적인 국가 발전 목표에 맞춰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 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교육정책 또한 학교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사회의 협력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높은 품질의 학교 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교육 현대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서 교육 현대화를 이끄는 양대 축은 ‘교육 정보화’와 ‘역량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 정보화’는 혁신교육 정책의 하나로 중국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며, 그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 초기 성공적으로 대규모 온라인 원격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역량교육’은 그간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어 왔으나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 실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또한 여기에 더 무게를 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국면에 불가피하게 진행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역설적으로 학교교육의 방법론보다는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결과로 보인다.
- 최근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 개혁은 전인교육 차원에서 기존 덕(德), 지(智), 체(體), 미(美)에 이른바 ‘노(勞)’를 추가하여 ‘체(體)·미(美)·노(勞)’ 영역에서의 역량교육²⁹⁾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 역량교육에 관한 논의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를 본격화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이후이며³⁰⁾,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구체화된 것은 2019년 발표된 정책 문건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에서이다. 이 문건에서 중국 정부는 학생들에 대한 ‘덕(德)·지(智)·체

29) 이지원, “중국의_역량교육_현황과_시사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장, 2022년 통권 제 80호)” .

30) 중국공산당 제18기 전국대회(2012.11), 제19기 전국대회(2017.10), 제20기 전국대회 보고서(2022.10).

(體)·미(美)·노(勞)’의 종합적 역량교육이 교육 현대화의 주요한 방침임을 분명히 하였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은 ‘덕(德)·지(智)·체(體)’를 강조하던 초기의 역량교육에 2010년 ‘미(美)’, 2019년 ‘노(勞)’가 순서대로 추가되면서 ‘덕(德)·지(智)·체(體)·미(美)·노(勞)’의 5개 항이 완전하게 결합하였으며, 최근 중국 역량교육의 변화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덕(德)·지(智)’가 아닌, ‘체(體)·미(美)·노(勞)’의 영역에서 증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 요인은 혁신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전인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3) 체육(體育) 중심 전인교육

- 중국은 전통적으로 체육 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체육 교육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운동 종목 기술 습득에 집중하던 과거와 달리 운동 경기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 형성을 독려하는 전인 교육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개정된 일반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체육 교과와 핵심역량으로 이전부터 중시되었던 ‘운동능력’, ‘건강행위’ 외에 ‘체육품성’이 새로이 포함되면서 의지, 투지, 규율 의식 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 운동 경기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縣)–시(市)–성(省)–국가(國家) 급으로 단계별로 이어지는 학교 운동 경기 체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뛰어난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연합하여 학생들의 운동 경기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 학교의 체육 교과 운영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에 흥미를 갖게 하고,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운동 종목을 접하도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마다 주 종목을 정해 특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거쳐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스스로 찾게 하는 한편으로, 주 종목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실력을

향상시켜 성인이 된 이후로도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하이에 위치한 환사(川沙)고등학교의 체육 교과 배정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15] 환사(川沙) 고등학교의 체육 교과 배정

- 체육 교과과정의 필수과정은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체육 능력’과 ‘건강 교육’, 그리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필수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이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선택과목으로 남자 농구, 여자 농구, 축구(남녀혼성반), 무술(남녀혼성반) 여자 에어로빅, 배드민턴(남녀혼성반) 등 6개 종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필수 선택과목은 각 학교의 체육 시설과 교사 배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시설이 있는 학교의 경우 수영 교과를 개설하기도 하고, 운동장이 협소하여 축구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선택형 필수과정은 학교 교사가 자신의 특기에 따라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 교과가 아닌 어문, 과학,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교과로도 대체될 수 있다. 체육 교과과정의 경우 주로 운동 경기 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농구 심판’ 과 같이 경기 운영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도 개설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선택과정은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과 같은 것으로, 참여 여부를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으나 따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택과정을 맡을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경우 학교는 외부에서 코치를 영입하거나 지역사회 체육클럽에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 고등학교의 경우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에서 체육클럽 구매 명목으로 지원한 비용을 통해 여자축구를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 중국의 체육 역량 강화 교육은 학생의 체력 증진이나 운동 종목 기술 습득의 면도 있으나 이보다는 전인 교육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즉 운동능력이나 건강 행위 외에도 이를 통해 자신의 의지력, 규율 정신 등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품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교육부터 중·고등교육의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 그리고 사회 교육 등 각 방면에서도 일관되게 실시하여 평생 교육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의 전인교육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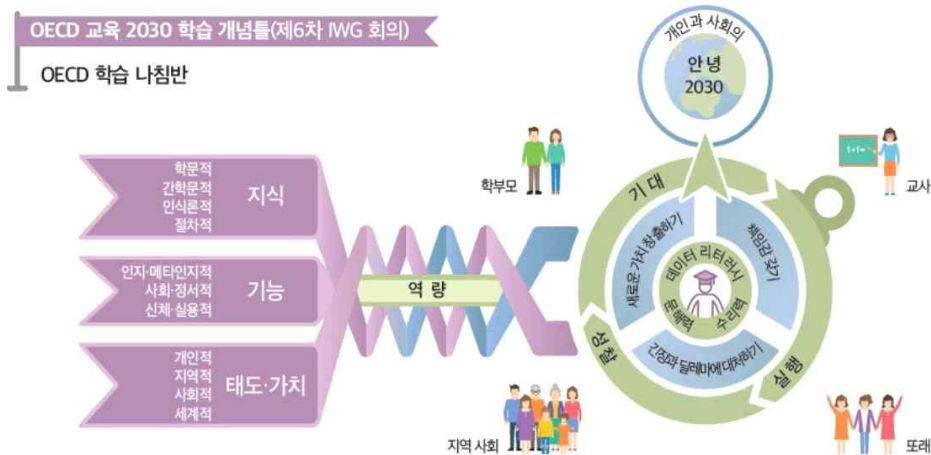
1)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³¹⁾

-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1997년에 시작된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과제로 시작되었다. DeSeCo 프로젝트는 교육에서 ‘핵심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 및 평가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역량 함양에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역량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현재의 학교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노정되었다. 이에 OECD는 DeSeCo에서 제안한 역량이 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방향

31) 이미경, 주형미, 이근호, 이영미, 김영은, 이주연, 김종윤 (2016).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OECD Education 2030 -(연구보고 RRC 2016-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에서 발췌함

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탐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미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세 가지 프로젝트(국제 교육과정 설문조사, 교육과정 내용 맵핑, 체육·수학 교과 심층연구)를 토대로 학습역량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DeSeCo에서 제시한 역량 모형을 기반으로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학습역량 프레임워크를 정리하면 [그림 II-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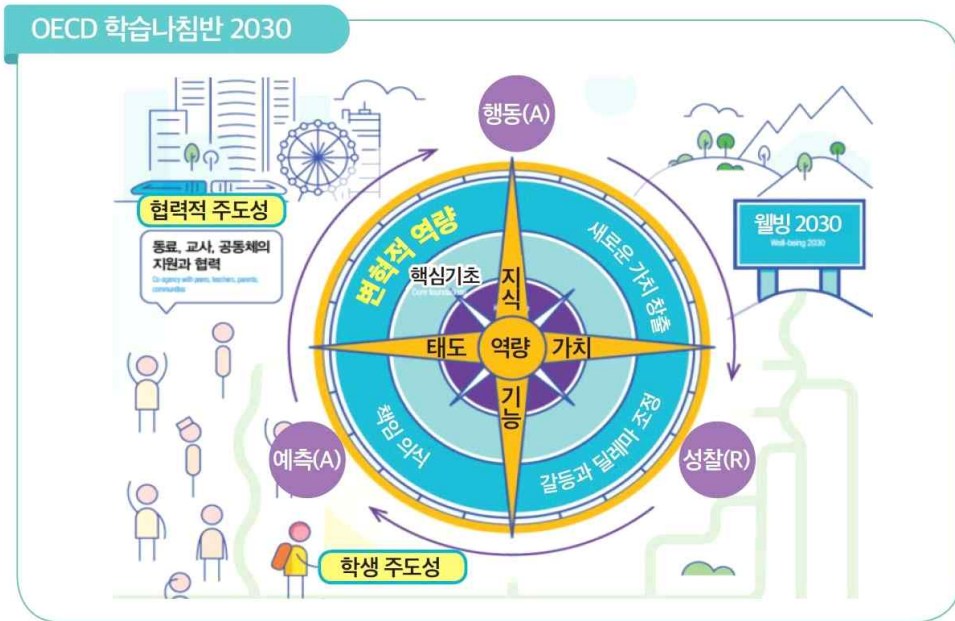


[그림 II-16] OECD Education 2030 학습 역량 프레임워크

- 2019년 발표된 OECD Education 2030 학습역량 프레임워크는 미래 사회 교육의 지향점을 웰빙(Well-being)으로 삼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학생들의 역량과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제시하였다. OECD에서는 이를 ‘학습 나침반 2030(Learning Compass 2030)’이라 명명하였다. 학습 나침반은 불확실한 미

래사회에서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향해하도록 것을 돕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OECD Education 2030 학습역량 프레임워크는 학교 안에 국한된 평가나 교육과정에 대한 틀이 아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폭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학습의 가능성을 두루 고려하여 학습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학습 나침반은 학습(과정)에 대한 일종의 은유로, 학습(과정)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안내하며,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이렇듯 OECD Education 2030 학습역량 프레임워크는 나침반이라는 은유를 통해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게 하고, 그 비전에 비추었을 때 자신들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을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학습 나침반 [그림 II-17]이 가리키는 ‘웰빙’을 찾아가기 위해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식’, ‘태도’, ‘가치’, ‘기능’을 포함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이렇듯 미래의 방향을 찾는 데 있어 ‘학생 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은 OECD 2030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근간이 된다. OECD(2018)에서 정의한 학생 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주도성’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 주도성은 다음의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협력적 주도성’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변 사람과 상호 협조적인 관계성을 구축해 나가는 역량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협력적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성뿐만 아니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또래, 가족 및 공동체 등 더 넓은 관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교 관리자, 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학습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림 II-17] OECD 학습나침반 2030

- 또한 이러한 역량들은 ‘예측’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사이클을 통하여 길러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는 예측-실행-반성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예측’이란 학생들이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을 갖고 행동하는 역량이다. ‘반성’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이다. 이 세 요소들은 분절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순환하는 나선형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습역량 프레임워크에서는 학생들이 문식성,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등 ‘핵심 기초’ 역량과 함께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책임감 가지기’ 등과 같은 ‘변혁적 역량’도 갖추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새

로운 가치 창조하기'는 2030년대를 살아가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는 갈등이 상존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목적과 인식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조화하는 역량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지양하고,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보다 통합된 방법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감 가지기'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자질과 능력을 의미한다.

- 이뿐 아니라 방법이나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력', 의견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잘하고, 집단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 '협동/협력' 역량 등도 OECD에서는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적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지식, 기능, 태도, 가치는 상호의존적으로 개발되는바, 학교, 직장, 지역사회가 인종,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해지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 '지식'은 교과 지식(Disciplinary knowledge), 간학문적 지식(Inter-disciplinary knowledge), 인식론적 지식(epistemic knowledge),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과 지식의 경우 미래 교육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을 것이다. 특히 개념적 수준에서 다루어야 하는 지식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빅 아이디어' 또는 '핵심 개념' 등은 잘 설계된 교육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간학문적 지식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통해 실제적 삶의 문제, 현상,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여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역시 미래 교육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인식론적 지식은 '내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며, 왜 배워야 하는가?', '실생활에서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실제성(authenticity)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기능’은 인지적·메타인지적 기능(cognitive & metacognitive skills), 사회적·감정적 기능(social & emotional skills), 육체적·실천적 기능(physical and practical skills)을 포함한다. 인지적·메타인지적 기능은 언어, 숫자, 추론, 습득한 지식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 전략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기능, 고차원 사고 기능, 실행기능의 효과적인 사용, 문제 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감정적 기능은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 육체적·실천적 기능은 물리적 도구, 작업,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태도’와 ‘가치’ 역시 학생들이 웰빙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이들은 학생 자신의 선택, 판단,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과 신념을 포함한다. 학생들이 태도와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도록 존중, 공정성, 개인·사회적 책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OECD Education 2030 학습역량 프레임워크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학생들이 ‘웰빙’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함을 강조한다. 코로나 19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린 현재의 상황에서 OECD Education 2030 학습역량 프레임워크는 교육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OECD SSES 프로젝트³²⁾

- OECD 사회진보연구(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ESP)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사회·정서역량연구(The 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SSES)가 국제공동연구로 추진되어 10-15세 대상의 사회·정서역량 측정도구를 개발

32) 김현진 외(2020).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 (IV): 본조사 결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RR 2020-07)」.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서 발췌함

하고 2019년에 본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림 II-18] The Big Five 모형의 요인과 SSES 요인과의 관계

- 사회·정서역량은 주변의 타인들과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는 미래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SSES의 요인은 대표적인 성격이론인 Big Five 모형을 근간으로 도출되어, 5개 요인에 15개의 하위 요인, 2개의 추가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 한국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15세 학생의 끈기와 주도성이 10세보다 낮았으며, 15세의 사회정서역량 성별 차이가 컸는데, 남학생의 호기심과 창의성이 높았다. 조사대상 도시인 대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창의성, 심리적 웰빙 수준 차이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였으며,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심리적 웰빙 차이가 컸고 그 평균도 낮은 편이었다. 한편, 학교 밖 스포츠활동,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46%).



[그림 II-19] SSES 사회정서역량 구성 요인

- SSES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정서역량의 구성 요인은 [그림 II-19]에서 보는 것처럼 개방성, 과제수행, 정서조절, 협력, 개방성, 타인관계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개씩의 하위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요인으로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21)의 보고서에서는 <표 II-21>³³⁾에서처럼 SSES 사회정서역량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33)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21). 「OECD 사회정서역량 조사결과 보고서 요약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현안분석 보고서 2021-3.

<표 II-21> SSES 사회정서역량 및 설명

영역	역량	설명
개방성 open-mindedness	호기심 curiosity	아이디어를 내는데 관심이 많으며, 학습하고,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를 하는 것을 사랑함. 탐구적인 자세.
	인내심 tolerance	다양한 견해, 가치, 다양성에 열려있음.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를 존중함.
	창의성 creativity	실패, 통찰, 비전으로부터 배우고, 탐험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고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출해냄.
과제수행 task performance	책임감 creativity	기여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시간을 잘 엄수하고, 신뢰할 만함.
	자기통제 self-control	주의산만이나 급작스러운 충동을 조절할 수 있으며,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현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
	끈기 persistence	업무가 완수되기까지 일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음.
참여도 engaging with others	사회성 sociability	친구들, 낯선 사람 등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음.
	주도성 assertiveness	자신의 견해, 필요, 느낌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사회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음.
	에너지 energy	에너지, 흥미, 즉흥성을 갖고 일상생활에 참여함.
협력성 collaboration	공감 empathy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웰빙을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음.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할 수 있음.
	믿음 trust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 용서함.
	협동심 cooperation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지냄. 사람들 사이의 상호연결에 가치를 부여함.
정서조절 emotional regulation	스트레스 저항성 stress resistance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음.
	낙관성 optimism	자아와 삶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음.
	정서통제 emotional control	좌절을 마주했을 때 급한 마음, 화, 짜증을 효과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음.
복합특성 compound skill	성취동기 achievement motivation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과업을 실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짐.

3. 우리나라의 전인교육 추진 현황

가. 교육과정에 따른 전인교육 추진 방향

-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교육이념)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9조(학교교육) 3항에서는 “학교교육은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전인교육’을 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국가 교육과정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전인교육 실천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것은 1981년 12월 개정,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전인교육을 강조하면서 부터이다(김두정, 2000).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은 전인교육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목적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개정해왔다.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교육적 인간상의 변화는 다음 <표 II-22>와 같다.

<표 II-22>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적 인간상의 변화

구분	교육적 인간상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별도의 교육적 인간상 제시하지 않음 - 교육법 제2조 「교육의 목적」에 따름
제2차 교육과정 (1963~1974)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1) 국가와 겨레의 이상과 현실을 명철히 이해하는 인간 2) 국민 각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

구분	교육적 인간상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1)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2)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3)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1) 가치관 교육의 강화 2)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3)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	1) 기본 능력의 배양 2) 기본 개념의 파악 3)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4)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
제4차 교육과정 (1982~1987)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 육성 1)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2)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3)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4)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5)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1)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2)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3)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4)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	1) 건강한 사람 2) 자주적인 사람 3) 창의적인 사람 4) 도덕적인 사람		
제7차 교육과정 (1998~2007)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007개정 교육과정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009개정 교육과정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4)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구분	교육적 인간상
2015개정 교육과정	1)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2)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4)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022개정 교육과정	1)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2)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본 표의 내용은 김동일 외(2015) 연구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2022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추가·보완한 내용임을 밝힘.

-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연구한 김두정(2000)에 따르면, 광복 후 1950년대의 제1차 교육과정기는 일제 잔재의 불식과 평화와 질서 유지,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 기능의 연마 등이 강조되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었다. 즉, 새로운 국가 사회의 건설과 질서 회복에 필요한 사회적, 국민적 자질과 덕목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반공 교육이 강화되었고, 민족 고유의 전통과 국민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지향하고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주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1970년대의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민족 주체의식 고양을 위한 정책들이 강조되었고, 충과 효를 근본으로 하는 한국적 도의 교육과 안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전통 문화 교육과 더불어 애국 애족하는 국민정신 교육을 강조하였다. 한편, 기존의 생활 중심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개혁이 이뤄졌다. 1980년대의 제4, 5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교육의 강화, 진로 교육의 충실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열린 교육의 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배우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

정이 운영되었고,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의 기초 하에 교과용 도서와 교과 단원의 지역화, 교재 활용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화가 추진되었다.

- 1990년대의 제6, 7차 교육과정기에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 21세기를 맞이하는 국가 교육 정책이 반영되었다. 21세기를 문명의 대전환기로 보고 기존의 한국교육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신교육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방안으로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확립,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 확립 등이 제시되었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혁 방안으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정보 교육 도입 및 컴퓨터 활용 교육 방법 확대, 단위 학교 교육 내용 선정 및 시간표 운영의 자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사용된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 목표는 최근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제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과정을 더 이상 전면적 또는 일률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수시로 부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지식과 성적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 혁신을 주요한 내용으로 제시하였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네 가지 바람직한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과 여섯 가지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게 되었다(김동일 외, 2015).

- 노철현(2021)³⁴의 「국가교육과정 정책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법: 비판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총론’부터이며 “국민 학교 교육은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이전에 도덕 교육에서 표면적인 도덕적 행동 자체를 강조하던 덕목주의(또는 행동주의)에서 벗어나서 도덕에서의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그것은 이른바 도덕교육의 ‘인지주의적 접근’을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전인’을 국가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으나, 거기서 제시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이전과는 달리 ‘창의성’을 특히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기본방안’에는 이후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도입과 더불어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 이면에 깔려 있는 ‘반인성적’ 또는 ‘탈인성적’ 사고방식을 강하게 시사하는 제안이 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 2012년 ‘인성교육을 강화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교육부 보도 자료, 2012.7.9)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하여 201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2-31호)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국가교육과정의 목적으로서 ‘바른 인성’이 추가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며, 「인성교육진흥법」은 그 결정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중점으로서 6가지가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각 교과 교육과정

34) 노철현(2021). 국가교육과정정책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법: 비판적 고찰, 인격교육 15(1), 87-100, 한국인격교육학회.

의 구성 중점을 담은 나)항으로서, 여기에는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핵심역량은 각 교과와 핵심 개념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고, 이 핵심 개념은 다시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경우 ‘성취기준’으로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국가 교육과정의 목적인 ‘전인’ 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는 여섯 가지 핵심역량의 총화로 규정되며, 이 핵심역량은 다시 교과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성취기준(또는 핵심개념)의 총화로 규정된다.

- 노철현(2021)은 다양한 성취기준의 총화로서의 전인 또는 여섯 가지 핵심역량의 총화로서의 전인이라는 아이디어는 ‘추상의 오류’로 명명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인성의 의미는 무한한 탐구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열린’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행위나 실천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닫힌’ 개념이 되어 버린다고 비판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적 합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기법적 지식에 최근 유행하는 몇 가지 개념들-핵심역량, 성취기준, 인성교육진흥법 등을 이리저리 덧칠해 놓은 ‘개념적 분장(conceptual make-up)’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인교육의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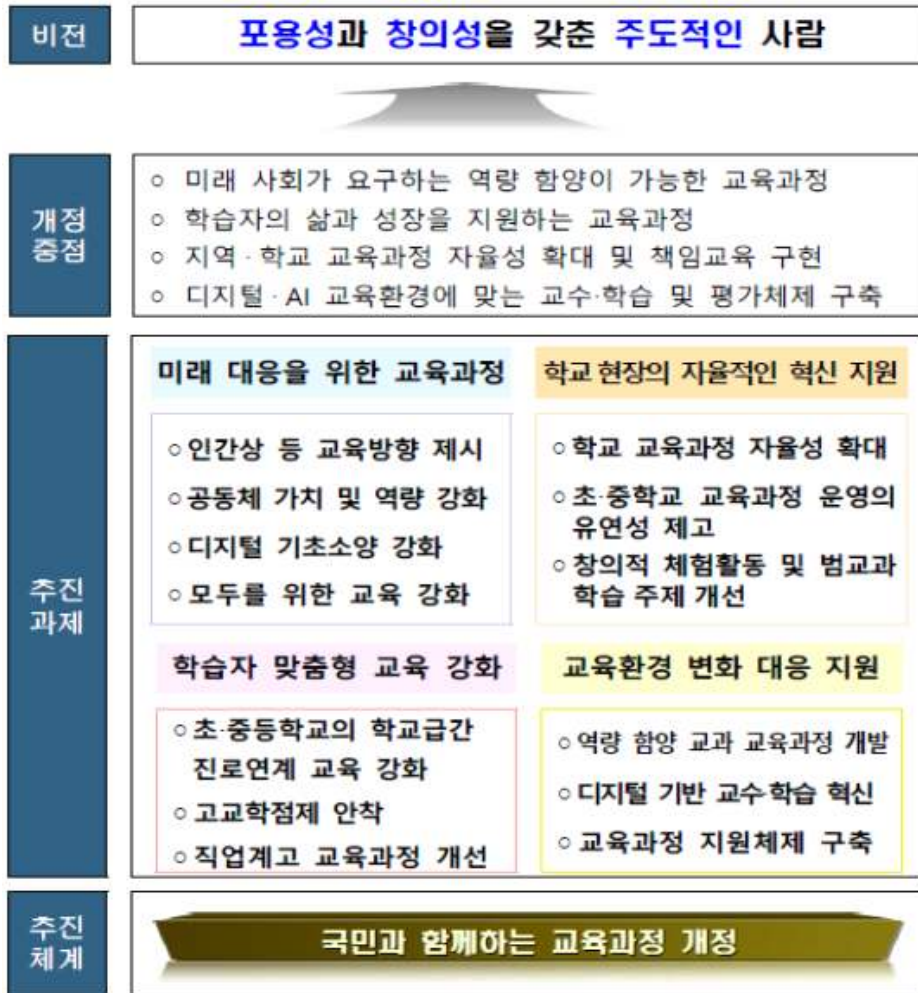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2021)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를 [그림 II-20]과 같이 제시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³⁵⁾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

35) 포용성: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 및 소양

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는 학생의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개선하고,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 및 성격을 기초로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즉, 200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둘째,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넷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둘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셋째,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넷째,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섯째,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여섯째,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다.



[그림 II-20]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교육부, 2021)

○ 총론의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 소양 및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하여 교육 전반에서 강조하고,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및 논리력, 절차적 문제해결력 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과 특성에 맞게 디지털 기초소양 반영 및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 둘째, 학생들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였다.
 -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지역 연계 및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선택 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고, 학교급 간 교과 교육과정 연계, 진로 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 교육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넷째,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 탐구, 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 내용으로 명료화 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경상남도 교육청, 2023).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각각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제시하여 하위 목표 네 가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각 학교급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급별 목표의 차별성 및 위계성을 유지하였다.

추구하는 인간상				
공동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 목표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그림 II-21]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연계성(경상남도교육청, 2023)

다.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추진 현황

1)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의미

-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서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실천 위주 인성교육 강화를 중요한 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부터이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성(人性)’의 개념을 규정하고, 지식 중심의 도덕·윤리교육에서 벗어나서 학교급별로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체계화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을

특정 교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 전체에 포함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인성(人性)을 바람직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다 함께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품성과 역량으로 본다면 인성교육은 이러한 품성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균열 외, 2015).

- 5·31 교육개혁에서 시작된 인성교육 강화 정책은 계속 지속되어 왔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어서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인성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학교급별에 따른 교육목표에 ‘인성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학교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학교 학생들이 게임 중독이나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지속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어, 도덕, 사회 교과에 ‘인성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교과 교육 내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 내용을 ‘체험·실천’ 중심으로 개편하여, 교과별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 「인성교육진흥법」의 성과와 한계

- 인성교육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준 세월호 침몰 사태를 겪은 이후인 2015년에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단일 독립법인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총 22조로 이루어져 있고, 목적과 정의,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학교 인성교육의 기준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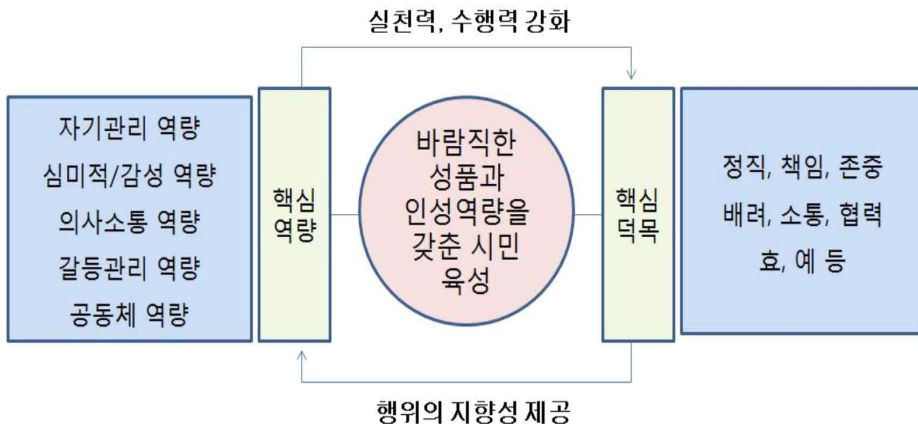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인성교육’과 ‘핵심 가치·덕목’, ‘핵심 역량’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 첫째,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둘째,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 셋째,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정연수(2021)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된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과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성의 본질을 탐구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동서양의 윤리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 교과군의 ‘윤리와 사상’과 ‘고전과 윤리’ 과목 및 교양 교과군의 ‘철학’과 ‘종교학’ 과목 등에서 인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반면에 박균열 외(2015)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된 인성의 개념 및 인성 교육의 목표 가치가 다소 ‘전통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의 사례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사회 구성원과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포함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인성’에 대한 개념 재논의화를 통해 인성교육 목표(기본방향)를 재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

인적 인간 양성,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질,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인성교육 정책의 성과로 ①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인성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보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성교육 체제 구축이 촉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②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③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물적자원 확보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 ④ 교사들의 인성교육 실천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⑤ 인성교육 중심으로의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인성교육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 학교교육에 정착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②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③ 인성교육 정책의 현장 착근을 저해하는 교육정책 요소가 있다는 점, ④ 경쟁적 교육·사회풍토는 인성교육의 확산을 저해한다는 점, ⑤ 인성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의존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점, 학생의 인성교육은 가정과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지만, 모든 원인을 학교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 ⑥ 인성교육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진흥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올바른 인성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 개념 재정의 및 기본 방향 재정립, ② 인성교육 실시 방법의 구체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함양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 인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간 협력 방안, ② 공동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③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현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 체제화 방안, ② 역량과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③ 학생 발달단계별 차별화된 인성교육 실시, ④ 학교급간 인성교육 연계 실시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원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 올바른 인성교육 실시를 위한 교권 강화, ② 인성교육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③ 교원양성기관 질 관리 프로그램 강화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

제, ‘미래지향적 인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합니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① 거점기관으로서의 국가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 ② 인성교육 거버넌스 구축(가칭 ‘인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③ 인성교육의 질 관리 제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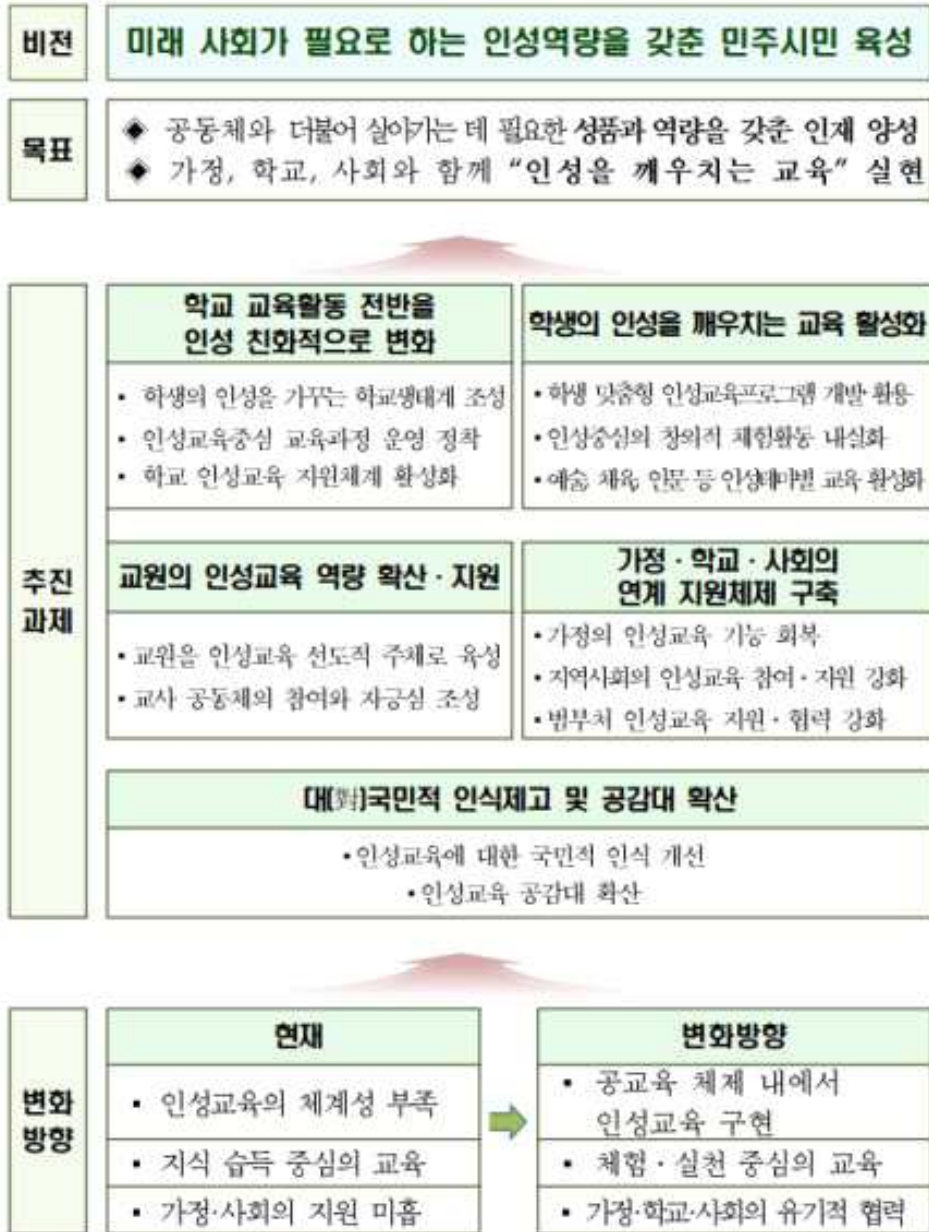
3)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교육부에서는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와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에 따라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제1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16년~2020년)에서는 성품 및 인성역량 중심 교육을 인성교육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림 II-22]와 같이 인성 가치·덕목을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성품 및 역량들을 중심으로 참여형 인성교육을 설계하고,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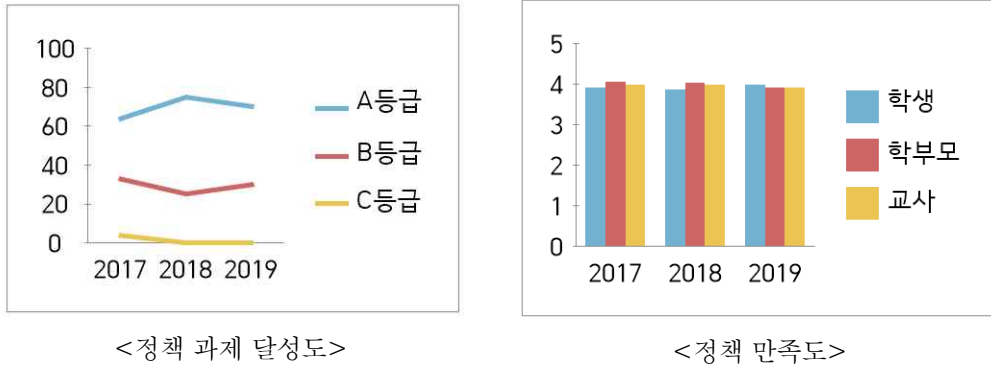


[그림 II-22] 인성교육의 방향(교육부, 2016)

- 또한, 개인-대인관계-공동체 차원의 연결선 상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성 관련 역량인 자기관리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갈등관리역량, 공동체역량을 균형 있게 학습하여 가정·학교·사회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학교 인성교육은 교과 교육과정 및 범교과학습 주제 등 교과 외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체계적·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 인성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은 ‘공교육 전반을 통해 인성교육 구현’, ‘교육현장의 부담 최소화’, ‘가정·학교·사회 등 교육주체 간 지원체제 구축’으로 정하고, 5개의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둘째,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셋째,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지원, 넷째,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다섯째,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이었다. 이러한 제1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 과제는 [그림 II-2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제1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은 추진과제의 달성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정책 대상자(학생, 학부모, 교원)의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체감도 파악을 위한 심층 면담에서는 정책으로 인한 변화 체감이 낮고, 정책 효과가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교육부, 2020).



[그림 II-23] 제1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 과제(교육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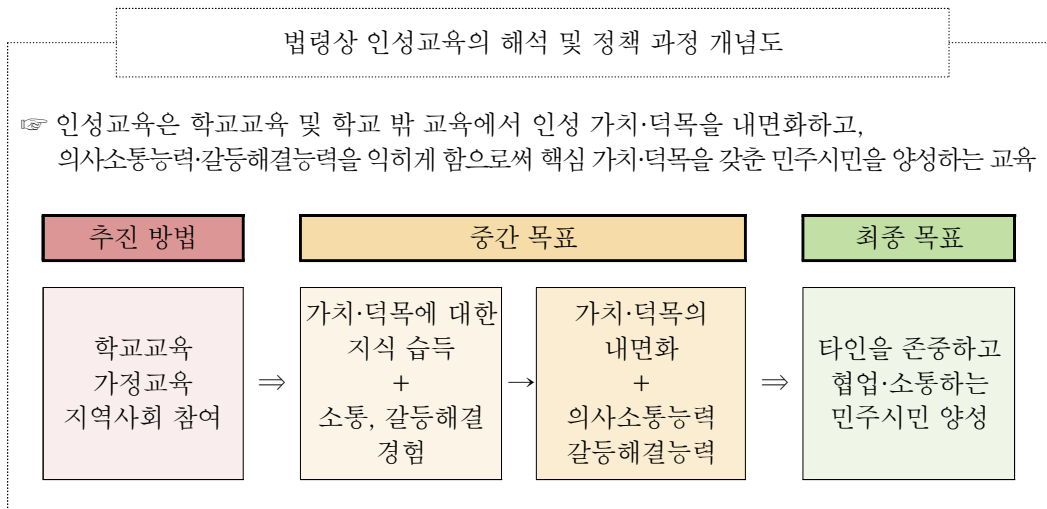


[그림 II-24] 제1차 종합계획의 추진성과(교육부, 2020)

- 교육부(2020)에서는 제1차 인성교육종합계획 추진 결과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 첫째, 인성교육의 개념, 추진방향 및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정책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성교육과 유사한 시민교육, 인문소양교육 등 유사한 교육정책과의 관계 정립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학교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학생의 어떤 역량을 위해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한 것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 둘째, 교과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하여 여전히 학교 인성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등 현장에서 정책 효과의 체감이 낮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부처, 지역사회의 지원 내용이 교과 교육과정과 조화되지 못하고, 행사처럼 일회성으로 활용되어 성과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셋째, 정책 과제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을 묻는 형식적인 평가로 인해 평가 결과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게 되면서 형식적인 평가 및 결과 환류

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추진성과 및 활동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및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우선적으로 인성교육의 개념 및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의미 등 정책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명확한 추진체계·역할 분담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교과 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에 집중함으로써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의 신뢰도, 현장적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발전하는 인성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20).
-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그림 II-25]와 같이 인성교육을 관련 법령상으로 재해석하고, 정책 과정의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선행연구(강민수 외, 2020; 정연수, 2021)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및 정책적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25]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인성교육 재해석 및 정책 과정 개념도(교육부, 2020)

- 교육부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모두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기본법 상 교육이념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치와 목표 역량이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표 II-23>과 같이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들은 서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중점은 다르더라도 하나의 교육활동이 인성교육이면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표 II-23>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역량 간 관계(안)(교육부, 2020)

인성교육의 목표 가치(역량)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역량
간접 연관	직접 연관	
예, 책임, 배려	존중, 소통, 협동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예, 효 (갈등해결능력)	존중, 배려, 소통, 협동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존중, 배려	책임, 소통, 협동 (갈등해결능력)	•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정직, 책임, 소통 (의사소통능력)		•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예, 효	존중, 배려, 소통, 협동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 그밖에 <표 II-24>에 제시된 것처럼 인권교육, 환경교육, 인문소양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양성평등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의 유사 교육의 지식역량도 인성교육을 위한 지식역량과 중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 등 개별 교육정책이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성취된 지식·역량이 개별 교육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2020)는 인성교육 종합계획 내의 주제별 인성교육이 개별 교육정책의 일부를 포괄하며,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들이 개별 교육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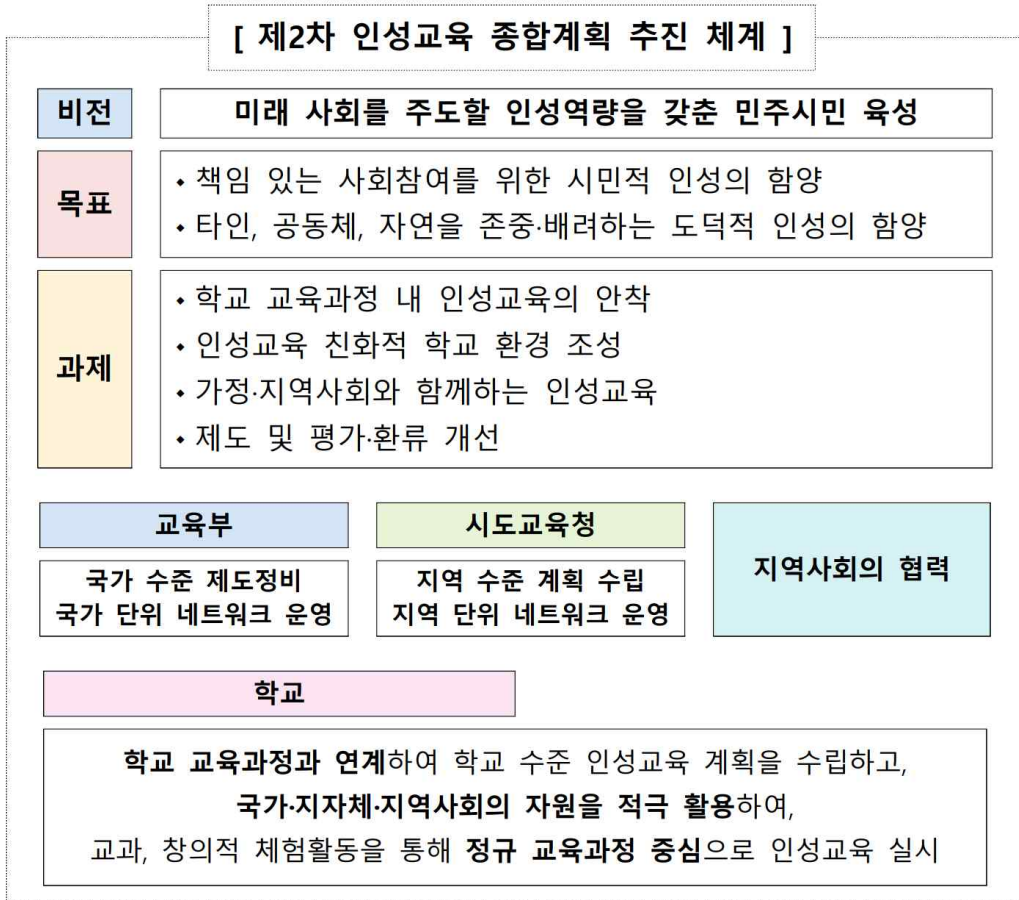
였다.

- 또한, 교육부(2020)는 인성교육의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가족, 고용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과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정책(예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여성가족부) 등)과 목표와 비전 공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족 정책, 고용정책들(예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정책」(고용노동부 등)과의 연계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표 II-24> 인성교육과 타 교육정책 간 관계(예시) (교육부, 2020)

인성교육의 목표 가치(역량)			관련 교육정책
간접 연관	직접 연관		
예, 효 (갈등해결능력)	책임, 존중, 배려, 소통	⇔	인권교육
	책임, 존중, 배려	⇔	환경교육
예, 효	정직, 존중, 배려, 소통	⇔	인문소양교육
예,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의사소통능력)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양성평등 교육
예,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학교폭력 예방 대책

- 이러한 추진 방향에 근거해 교육부(2020)는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추진 체계를 [그림 II-26]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제도 정비 및 정책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은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계획 수립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명확한 추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려고 했다.



[그림 II-26]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 추진체계(교육부, 2020)

- 추진 과제로는 크게 4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과제로 30개를 선정하였다. 4개의 추진 과제로는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제도 및 평가·환류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과제의 내용과 각 과제를 실행할 관련 부처(기관)은 <표 II-2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25>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교육부, 2020)

과제	관련 부처(기관)
1.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인성교육 추진	
① 인성교육 관련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	교육부
②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인성교육 관점 반영	교육청
③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학교
② 학교·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① 교원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원	
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교원 연수 운영	교육부, 교육청, 학교
나.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등 우수사례 확산	교육부
다. 교사연구회, 학습동아리 등 교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교육청, 학교
②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운영	교육부
③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	교원 양성기관(교사대 등)
③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체계화	
①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	교육부, 문체부
② 예술교육을 통한 감성 및 정서 함양	교육부, 문체부
③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교육부, 문체부
④ 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육부, 방통위, 문체부
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인성 함양	교육부
⑥ 심성 순화 및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 교육	법무부
⑦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교육부, 환경부
⑧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산림교육	산림청
⑨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물보호교육	농림축산식품부
⑩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인성 함양	여가부, 교육청, 학교
2.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①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①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자치 확산	
가. 학생의 학교 교육 운영 참여 법제화	교육부
나.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공간혁신	교육부, 교육청, 학교
②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의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정비	
가.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나. 학부모회 활동 지원	교육청, 학교

과제	관련 부처(기관)
② 소통·배려·존중하는 학교생활	
① 또래활동 강화 및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부, 문체부, 교육청, 학교
② 학생 주도의 자율적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 방통위
③ 장애학생·다문화학생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 조성	교육부
④ 상호 간 소통·이해에 바탕을 둔 교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교육부
3.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① 학부모의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	
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식 제고	교육부, 교육청
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교육부, 교육청
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교육부(민간협력)
라. 인터넷 사용 지도를 위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방통위
②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가. 일·가족 조화를 위한 지원제도 활성화	
나. 부처·지자체 직장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확산	
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여성가족부
②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① 시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 등 지역 단위 지원체계 운영	교육청, 광역지자체
② 민간의 사회적 공헌 및 마을의 교육 참여 활성화	
가. 대학, 기관, 기업 등의 인성교육 지원체계 조성	교육부, 여가부
나. 농어촌 마을의 인성교육 참여	농림부, 교육부
4. 제도 및 평가·환류 절차 개선	
① 인성교육 관련 법령 정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교육부
② 인성교육정책 평가·환류 절차 정비	
①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평가	교육부, 교육청
② 인성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③ 학생 인성검사 도구 정비	교육부

- 정연수(2021)는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모두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고 명시하면서 각각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

고, 오히려 두 가지 교육정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혼란으로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시행 후 효용 체감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까지 부실하게 수립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스스로 인성을 깨우쳐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표방하는 인성교육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것을 표방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점수 따기에 매몰시키는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인성교육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였다. 앞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환경(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방법 도입 등)으로 인해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대학 서열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인성교육의 실행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김국현(2022)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방향을 민주적 인성, 생태적 인성, 초연결 인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학교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성 발달의 증거를 기초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교실 수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가치, 인성 발달의 이론 정립과 경험 연구 결과 축적,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 안팎의 요구와 기대, 인성교육의 효과 측정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정보를 근거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간 혁신 측면에서는 교사들의 학생 인성 관찰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찰 학습을 실질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또 교사와 학생들이 공감적으로 만날 공간을 학교에 조성해야 한다. 둘째, 운영 체계 측면에서는 HR 등 정기적 인성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도덕과와 다른 교과들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상보적으로 연계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 전문성 측면에서는 교원양성대학과 교사자격 연수 과정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학생들의 인성을 조사한 결과를 학생들의 행복이나 학습과 연계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연수를 강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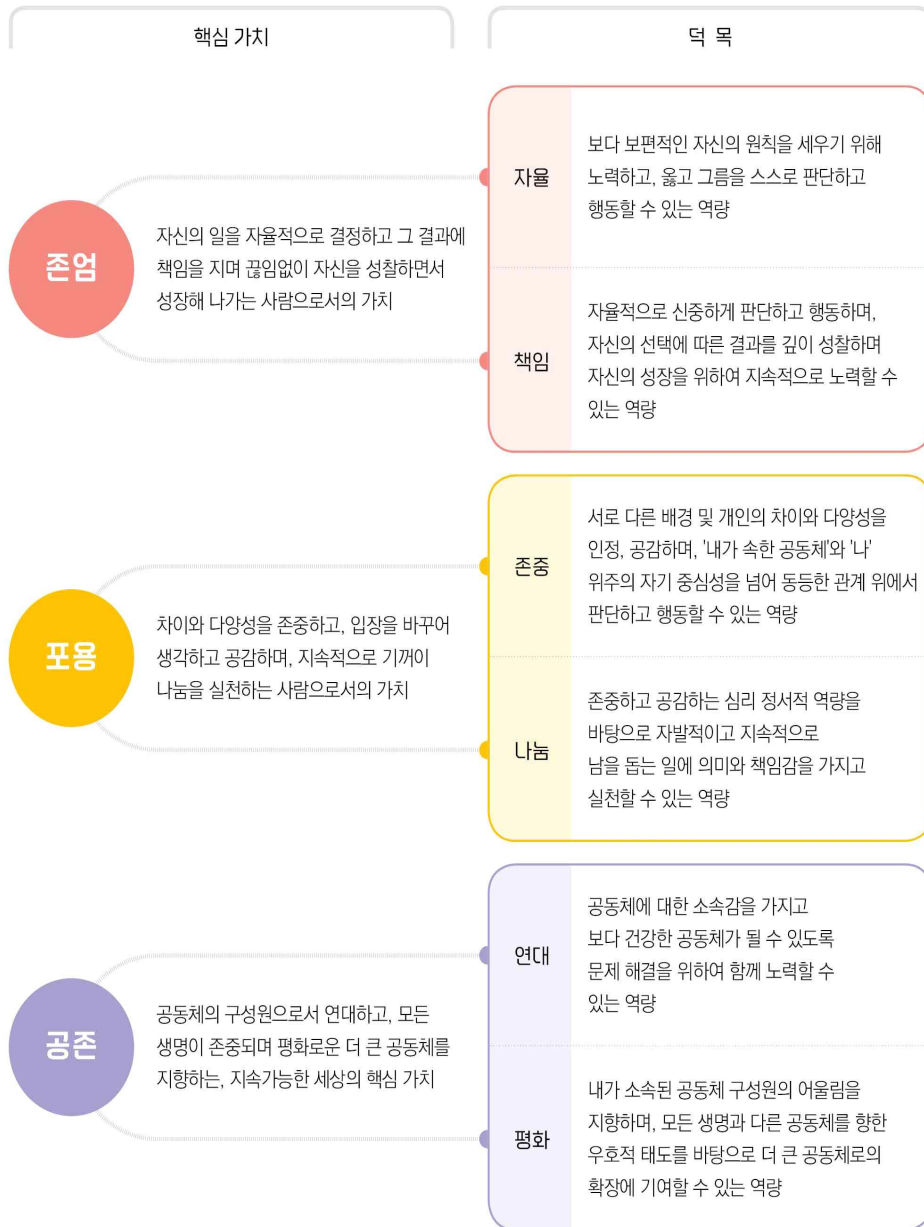
한다. 그리고 생태 전환을 위한 학교 자연환경과 공간,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인성교육 실행 지원 측면에서는 학교 및 학급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해 지원해야 한다. 또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 플랫폼을 더 활발히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학생들의 도덕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현장학습과 봉사학습이 더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라. 시·도 교육청의 인성교육의 추진 사례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인성교육 사례³⁶⁾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서울인성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학생들의 인성과 관련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핵심가치 중 ‘포용(존중, 나눔)’과 ‘공존(연대, 평화)’을 학교급의 인성교육 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형 인성’을 기르는 데 ‘포용’과 ‘공존’을 중심으로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교원·학생·학부모·학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생활지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학교 특색을 반영하여 소통·존중·배려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인문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36)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2024 서울 인성교육 시행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85447&step1=3&step2=1#none> (인출: 2024.05.31.)



[그림 II-27] ‘공동체형 인성’의 핵심가치와 덕목(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5)

- 학생이 주체가 되는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생 자치에 기반한 인성교육 계획 수립, 스포츠 활동 및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가족과 소통하며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가정 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 교육,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문화 등 인성교육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공동체형 인성’을 모든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며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성이라고 정의 내렸다.
- ‘공동체형 인성’은 존엄, 포용, 공존의 3대 핵심가치와 자율, 책임, 존중, 나눔, 연대, 평화라는 6가지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개념과 정의는 [그림 II-27]과 같이 제시하였다.
- 서울인성교육의 목표는 ‘공동체형 인성’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더 큰 공동체’로 설정하고, 하위 목표로 스스로 존엄한 학생, 서로를 포용하는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시민으로 설정하였다.
- 서울인성교육의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 첫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동체형 인성교육이다. 존엄, 포용, 공존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동체형 인성 교육을 추진한다.
 - 둘째, 건강한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적 인성교육이다. 기후 위기 등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한다.
 - 셋째,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이다. 이론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체험하고 실천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인성교육을 추진한다.

- 넷째, 가정과 마을이 더불어 참여하는 인성교육이다. 학교 인성교육에서 학교, 가정,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 서울인성교육의 추진 체계도는 [그림 II-28] 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28] 서울인성교육 추진체계도(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8)

○ 서울인성교육의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그림 II-29]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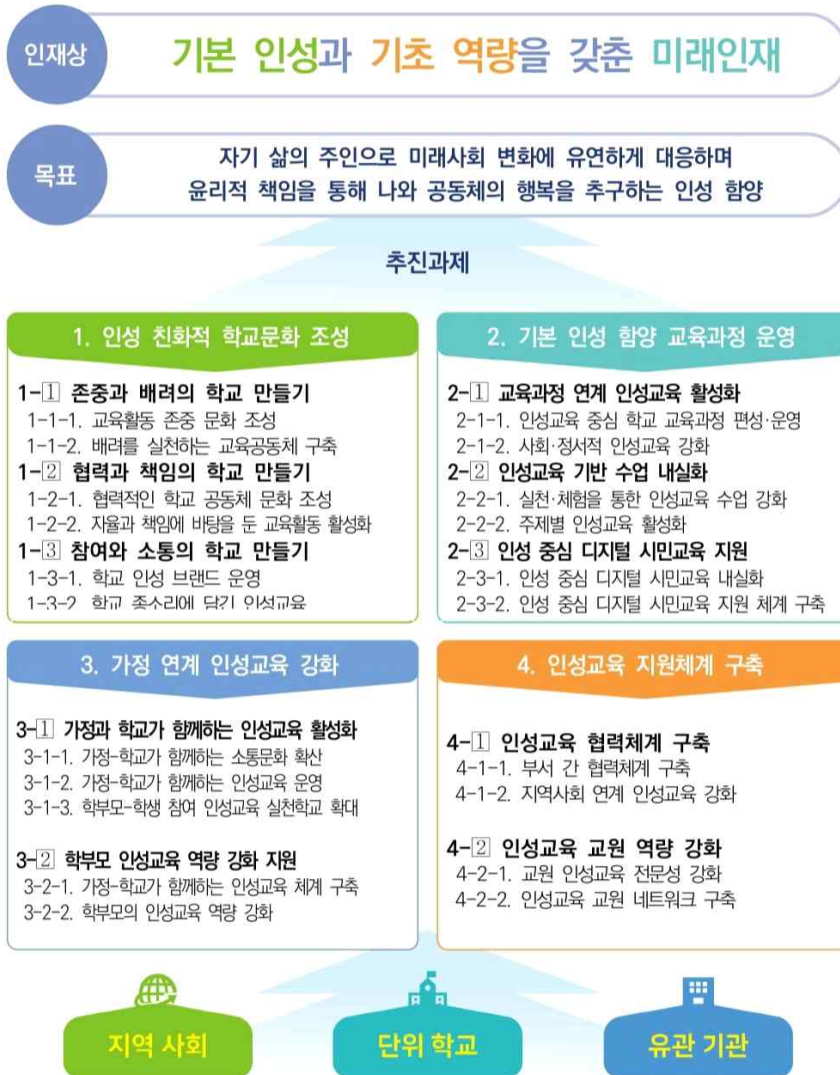
영역	과제 및 세부 과제
<p>1. 스스로 존엄한 학생</p>	<p>①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인성교육 ●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p>②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을 기르는 가정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한 가족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p>2. 서로를 포용하는 공동체</p>	<p>① 따뜻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과 공감으로 소통하는 교육 ● 심미적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p>②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 문화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 참여 확대 ● 지역 자원 활용 학생 심리 발달·마음 관리 지원
<p>3.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시민</p>	<p>① 「한국계 지구인」 세계시민 인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평화세계시민 교육 ● 세계 속에서 연대하는 인성교육 <p>② 미래를 살아가는 시민성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민교육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시민교육

[그림 II-29] 서울인성교육의 영역 및 추진 과제(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

2)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사례³⁷⁾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가정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와 경기도교육청 소속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인성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교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으로는 경기도민과 교원 모두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경기도민은 그 다음으로 학생 성장단계별 인성 수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경기도민과 교원 모두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필수교육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러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인성의 범주를 크게 도덕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4가지로 나누고, 경기인성교육의 기초 소양으로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윤리적 책임,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협력의 5가지 소양을 제시하였다.
- 경기인성교육의 목표는 [그림 II-30]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 함양”으로 정하고, 추진 과제로는 크게 4가지(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가정 연계 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 지원체계 구축)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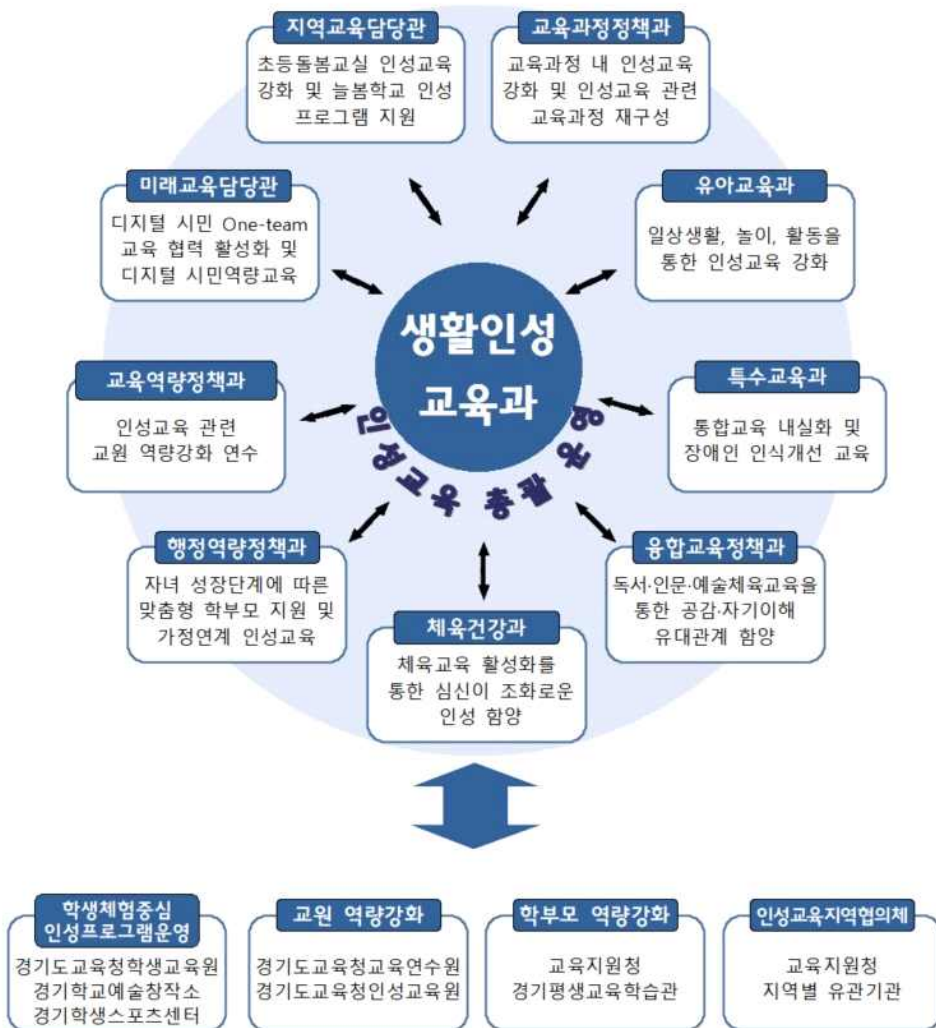
37) 경기도교육청(2024).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8&menuNit=13,1,2,0,0&bbsId=1045335 (인출 2024.05.31.)



[그림 II-30] 경기인성교육의 목표 및 추진 과제(경기도교육청, 2024:1)

- 특히 마지막 과제인 인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그림 II-31]과 같이 ‘경기인성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경기인성교육 협의체’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관 부서들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인성교육 정책의 통

합적 관리와 협업을 위한 실무 협의체로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통합 지원을 위한 인성교육 유관부서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인성교육 관련 정책 협업을 통한 교육 현장의 일상적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II-31] 경기인성교육 협의체(경기도교육청, 2024:29)

4. 전인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 지금까지 전인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전인교육의 개념과 특성, 국내외 전인교육 사례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 분석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을 길러냄을 교육의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환경은 그러한 목표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전인교육의 이념은 교육 현장에서 방향성을 잃고 실종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인성교육, 시민교육, 인문소양교육, 환경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행해져 온 전인교육 정책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행정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짐으로 인식되면서 학교 현장의 피로도만 높이는 부정적 결과를 낳아 왔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경쟁 위주의 뜨거운 교육열 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빚어진 지나친 경쟁과 결과 중심주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병폐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들이 표면화될 때마다 우리는 교육 현장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인간의 본질적 가치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전인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 개개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

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독일이나 미국의 교육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전인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전인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현 과정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성교육, 시민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교권 붕괴, 학생의 행복지수 하락 등 학교 현장의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인성교육 정책이나 사례들은 전인교육을 위해 구상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이나 방법을 두루 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장애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전인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궁극적이면서 항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특정 학교급이나 단위 학교, 교육부 수준의 정책 실행만으로는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인교육과 관련된 교육 현장과 주체는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간까지 교육의 공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전인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까지 연계된 전인교육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전인교육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어야만 국가-지자체-학교-가정 간의 역할 분담과 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까지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생애주기별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고, 지원의 공간과 주체는 학교를 포함한 가정-지역사회-국가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III

현장 의견 조사

1.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2. 초점 집단 인터뷰(FGI) 조사
3. 전문가 포럼 및 콜로키움

Ⅲ. 현장 의견 조사

1.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가. 델파이 조사 방법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진은 우선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인교육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그 영역 및 영역별 구성요소를 구안하였다. 그리고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집단 선정

- 본 연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전문가 패널은 초중등 현장교사,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담당자,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속 및 경력에 따른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전문가 집단 인적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8	100.0
경력	10년 미만	6	21.4
	10년 이상~20년 미만	5	17.9
	20년 이상~30년 미만	10	35.7
	30년 이상	6	21.4
	(무응답)	1	3.6
소속	교육청	8	28.6
	초등교육	7	25.0
	중등교육	8	28.6
	고등교육	5	17.9

2) 델파이 조사 절차 및 방법

-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는 3~4회차 정도 실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3회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계획·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의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의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등에 대응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전인 및 전인교육의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문헌 연구 및 논의를 거쳐 전인교육을 잠정적으로 정의내리고, 잠정적 정의에 기반하여 전인교육의 영역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전인교육의 정의, 영역 및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 1차 델파이 조사는 2024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전인교육의 개념, 영역 및 구성요소의 타당도, 중요도에 대해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평정하

고, 평정에 대한 이유 및 피드백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024년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인교육의 개념, 구성요소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타당도를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평정하고, 추가 의견을 피드백하도록 하였다.

-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인교육 개념의 수정안에 대한 평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연구진이 잠정적으로 정의했던 전인교육 개념에 대한 전문가들의 타당도 평정 결과(평균 및 표준편차, 범주별 반응 비율)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인교육 영역별 구성요소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평정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제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된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전인교육 실행 정도가 낮은 구성요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전인교육 4개 영역의 구성요소별 개선 방안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평정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 시 참조할 수 있도록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구성요소별 학교충실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타당도 평정 결과(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하였다.

<표 III-2> 델파이 조사 개요

구분	일정	형식
1차	2024.02.16.(금) ~ 2024.02.28.(수)	○개방형, 리커르트 5점척도/서술형 피드백
2차	2024.03.09.(토) ~ 2024.03.17.(일)	○개방형, 리커르트 5점척도/서술형 피드백
3차	2024.03.29.(금) ~ 2024.04.14.(일)	○개방형, 리커르트 5점척도/서술형 피드백

<표 III-3> 델파이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교육의 개념의 타당도에 대한 평정 및 평정 이유 ◦ 전인교육 영역 및 구성요소의 타당도, 중요도에 대한 평정 및 평정 이유(서술형)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전인교육 개념에 대한 타당도 평정 평균 및 표준편차, 범주별반응 비율)제공 ◦ 전인교육 개념 수정안 평정, 전인교육 영역별 구성요소에 대한 교육 실태 평정 및 개선 방안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영역별 구성요소에 대한 교육 실태 평정 평균 및 표준편차) 제공 ◦ 전인교육 실행 정도가 낮은 요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 구성 요소별 개선 방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평정,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전인교육 실현에 있어 장애요인, 전인교육 내실화를 위한 가정-학교-사회-국가의 노력 방안

3) 분석 방법

- 전문가의 응답에 기반하여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를 산출하였다. CVR은 전체 응답자 수 대비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전문가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CVR은 1.00이며, 타당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이 절반인 경우에는 0.00, 절반 미만인 경우 음수로 나타난다. CVR은 참여한 전문가 수에 따라 만족해야 할 최소값이 제시되어 있는데(Lawshe, 1975),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CVR의 최소값은 .37이다. 수렴도와 합의도는 전문가들의 합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수렴도는 75백분위점(Q_3), 25백분위점(Q_1)을 2로 나누어 구하게 되며, .50보다 작을수록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합의도는 75백분위점(Q_3), 25백분위점(Q_1), 중위수(M_{dn})를 이용하여 구하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합의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합의도가 .75 이상일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잘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정도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50보다 낮을 때 전문가의 응답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50~.80인 경우 비교적 안정적, .80 이상인 경우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의미한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n_e :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라고 응답한 사례 수
 N : 전체 응답자 수

$$\text{합의도} = 1 - \frac{Q_3 - Q_1}{M_{dn}},$$

Q_1 : 25% 백분위 점,
 Q_3 : 75% 백분위점,
 M_{dn} : 중앙값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Q_1 : 25% 백분위 점, Q_3 : 75% 백분위점

$$\text{안정도} = \frac{\text{표준편차}}{\text{평균}}$$

- 3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4개 영역의 구성요소별 교육 개선 방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평정 결과에 기반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IPA는 본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행도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으로 평가요소별 전략적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도 대신 시급성을 평정하도록 하였기에, 가로축에 시급성, 세로축에 중요도를 적용하여 변화 전략별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정미경 외, 2017).



[그림 III-1] IPA 매트릭스 과제 우선순위 해석 (정미경 외, 2017)

나.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1) 전인교육의 개념 정의의 타당성

- 전인교육의 개념 정의에 대한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VR은 .15로 최소한 만족해야 할 기준보다 낮았으며, 수렴도는 1.00, 합의도는 .50으로 전문가들의 합의 정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1

구분	범주별 응답비율(%)				
	①	②	③	④	⑤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0	3.8	38.5	26.9	30.8

<표 III-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2

구분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3.85	.92	.15	1.00	.50	.24

<표 III-6>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의 전인교육 개념 수정 의견

no.	구분	정의
1	일부수정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생태계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2	일부수정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실천하며 서로 존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3	일부수정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학생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교육
4	일부수정	학생의 지식과 역량 그리고 인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5	일부수정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유연한 마음가짐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no.	구분	정의
6	일부수정	학생이 품성을 갖추고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7	일부수정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8	일부수정	학생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소질과 능력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9	일부수정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10	전면 수정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질과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자기 자신, 타자, 공동체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11	전면 수정	학생들이 독립된 주체 혹은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갖추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12	전면 수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학습자의 모든 면을 총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13	전면 수정	기술발전과 변동성이 큰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독특함을 살리고, 다양한 존재들과의 상호협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 학생의 소질과 능력,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14	전면 수정	독립된 존재로서 고유한 가치를 형성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배려와 존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교육
15	기타	전인교육은 특정한 영역에 상관없이 단순히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니며, 전인교육에서 중요한 지점은 지, 덕, 체 3가지 측면에서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며, 이러한 균형있는 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체' 부분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으로 정신 수련, 스포츠 활동 등만으로 전인교육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다양한 소질과 능력'이라는 부분보다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균형의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조금더 구체화된 개념 정의가 필요
16	기타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어도 좋을 듯함.

- 이에 연구진에서는 전문가들의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전인교육의 개념에 대한 2가지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 III-7>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한 전인교육의 개념

기존 정의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	
수정안1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자율적 주체로서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수정안2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고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자율적 주체로서의 인격을 형성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2) 전인교육 영역별 구성요소의 타당성

- 연구진에서는 전인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와 해외 사례 조사를 토대로 가치 덕목과 역량 개념을 혼합하여 전인교육의 하위 영역을 인지사고, 정서심리, 사회관계, 신체건강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구성요소를 <표 III-8>과 같이 설계하였다. 지덕체 중심의 전통적인 전인교육의 개념에 최근 중시되고 있는 관계적 측면을 고려한 영역 설정이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영역 설정 및 구성요소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다.
- 인지사고 영역의 구성요소로는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 ‘논리적/비판적/융합적 사고 능력’,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메타인지 능력’ 등 7개 요소를 설정하였다. 기초학업능력으로 전통적으로 중요시해 온 문해력과 수리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사고 영역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요소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과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 능력은 독립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인지사고의 구성요소로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은 그와 같은 사고능력의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에 추가하였다. 메타인지 능력은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율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하였다.

- 정서심리 영역에서는 독립된 주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4개 요소를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독립된 주체로 성장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함과 아울러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아 성찰 및 이해’, ‘자기 주도 및 조절 능력’을 구성요소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기주도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열정과 끈기, 회복탄력성’을 추가했다. 또한 독립적 주체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을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 사회관계 영역의 구성요소로는 사회 공동체 혹은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개 요소를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공감과 이해, 존중과 배려’, ‘정직, 정의, 용기, 책임감’,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은 이러한 사회관계, 인간관계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설정하였고, ‘또래 집단 협업 능력’과 ‘소통과 리더십’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이라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아울러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태도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의식’을 추가하였다.
- 신체건강 영역의 구성요소는 ‘올바른 생활 습관’, ‘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 ‘운동 및 스포츠 정신’, ‘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 ‘안전 및 위기관리 능력’ 등 5개 요소를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몸과 정신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체건강 영역의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안전 및 위기관리 능력’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추가하기로 하였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을 추가하였다.

<표 III-8> 전인교육의 하위 영역과 영역별 구성요소

영역	구성요소	개념
인지 사고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	수학의 이치나 이론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논리적/비판적/융합적 사고 능력	논리적·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영역이나 경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메타인지 능력	자신의 사고를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판단하며 통제하는 능력
정서 심리	자아 성찰 및 이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성찰하는 능력
	자기 주도 및 조절 능력	자신의 일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조절하는 능력
	열정과 끈기, 회복탄력성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사회 관계	공감과 이해, 존중과 배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능력
	또래 집단 협업 능력	또래 집단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소통과 리더십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정직, 정의, 용기, 책임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
	세계시민의식	인류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태도

영역	구성요소	개념
신체 건강	올바른 생활 습관	책임을 다하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태도
	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
	운동 및 스포츠 정신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인정하는 태도
	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	예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하려는 태도
	안전 및 위기관리 능력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 전인교육의 4개 영역, 인지사고, 정서심리, 사회관계, 신체건강의 구성요소의 타당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사고 영역 구성요소의 CVR은 .62~.85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렴도 .00~.50, 합의도 .75~1.00로 전문가의 의견이 잘 합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도도 .19~.28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심리 영역의 4개 구성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CVR은 .77~.85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렴도 .00~.50, 합의도 .80~1.00로 전문가의 의견이 잘 합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도도 .20~.28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셋째, 사회관계 영역의 6개 구성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CVR은 .69~.85로 최소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수렴도 .00~.50, 합의도 .80~1.00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신체건강 영역의 5개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CVR은 .54~.69로 최소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합의도도 .75~.80으로 양호하였으나, ‘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 ‘안전 및 위기관리 능력’의 수렴도는 .63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III-9>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별 구성요소의 타당성(범주별 응답분포)

구분		범주별 응답비율(%)				
		①	②	③	④	⑤
인지 사고	문해력	.0	3.8	7.7	19.2	69.2
	수리력	.0	7.7	11.5	34.6	46.2
	디지털 리터러시	.0	3.8	3.8	19.2	73.1
	논리적/비판적/융합적 사고 능력	.0	4.0	4.0	8.0	84.0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0	3.8	7.7	15.4	73.1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0	3.8	3.8	15.4	76.9
	메타인지 능력	.0	3.8	3.8	23.1	69.2
정서 심리	자아 성찰 및 이해	3.8	.0	7.7	15.4	73.1
	자기 주도 및 조절 능력	3.8	3.8	.0	3.8	88.5
	열정과 끈기, 회복탄력성	3.8	.0	3.8	19.2	73.1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	7.7	3.8	.0	26.9	61.5
사회 관계	공감과 이해, 존중과 배려	4.0	.0	.0	16.0	80.0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	4.0	4.0	.0	24.0	68.0
	또래 집단 협업 능력	3.8	.0	11.5	15.4	69.2
	소통과 리더십	3.8	3.8	7.7	19.2	65.4
	정직, 정의, 용기, 책임감	8.0	.0	4.0	16.0	72.0
	세계시민의식	4.0	.0	8.0	28.0	60.0
신체 건강	올바른 생활 습관	3.8	.0	15.4	19.2	61.5
	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	3.8	7.7	3.8	15.4	69.2
	운동 및 스포츠 정신	3.8	.0	15.4	19.2	61.5
	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	7.7	11.5	3.8	19.2	57.7
	안전 및 위기관리 능력	3.8	3.8	15.4	15.4	61.5

<표 III-10>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별 구성요소의 타당성(기술통계 및 내용타당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인지 사고	문해력	4.50	.95	.77	.50	.80	.21
	수리력	4.12	1.14	.62	.50	.75	.28
	디지털 리터러시	4.58	.90	.85	.50	.80	.20
	논리적/비판적/융합적 사고 능력	4.68	.90	.77	.00	1.00	.19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4.54	.95	.77	.50	.80	.21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4.62	.90	.85	.13	.95	.19
	메타인지 능력	4.54	.90	.85	.50	.80	.20
정서 심리	자아 성찰 및 이해	4.54	.95	.77	.50	.80	.21
	자기 주도 및 조절 능력	4.69	.97	.85	.00	1.00	.21
	열정과 끈기, 회복탄력성	4.58	.90	.85	.50	.80	.20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	4.31	1.19	.77	.50	.80	.28
사회 관계	공감과 이해, 존중과 배려	4.68	.85	.85	.00	1.00	.18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	4.48	1.00	.77	.50	.80	.22
	또래 집단 협업 능력	4.46	.99	.69	.50	.80	.22
	소통과 리더십	4.38	1.06	.69	.50	.80	.24
	정직, 정의, 용기, 책임감	4.44	1.16	.69	.50	.80	.26
	세계시민의식	4.40	.96	.69	.50	.80	.22
신체 건강	올바른 생활 습관	4.35	1.02	.62	.50	.80	.23
	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	4.38	1.13	.69	.50	.80	.26
	운동 및 스포츠 정신	4.35	1.02	.62	.50	.80	.23
	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	4.08	1.35	.54	.63	.75	.33
	안전 및 위기관리 능력	4.27	1.12	.54	.63	.75	.26

- 전인교육의 영역별 구성요소의 타당도에 대한 서면의견을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인지사고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서면의견은 다음과 같다. 미래 전인교육에 있어 인지사고 영역의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논리적/비판적/융합적 사고능력’, ‘메타인

지능력’, ‘문해력’,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수리력’ 순이었으며, 인지사고 영역의 추가 구성 요인으로 ‘경험기반추론 능력’, ‘직관적 판단력’, ‘첨단기술조작역량’, ‘자기주도적학습능력’, ‘도덕적 판단력’이 제안되었다.

<표 III-1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인지사고 영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면의견

구성 요인	서면 의견
문해력	①문해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리터러시 능력>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 가능
수리력	①수리력은 논리적 사고능력과 중복된다고 생각. 논리적 사고능력과 구분되는 별개의 수리력이라면 상대적으로 타당성 감소. ②수리력은 논리적 능력에 포함된다고 봄 ③‘수리력’이 전인교육의 필수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임. 수리력을 수학과 관련된 능력으로서 결국 ‘논리력’이 ‘수리력’을 충분히 포함 가능하다고 생각
디지털 리터러시	①문해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 ②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묶어서 표기하는 것을 제안 ③보다 쉬운 용어로 변경 필요
논리적/비판적/융합적 사고 능력	①비판적사고 속에 논리성과 합리성이 포함되는 것 같음. 비판적 사고로 명명 제안 ②융합적 사고 능력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묶어도 좋을 것 같음.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3가지를 묶었을 때 그 의미나 중요도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음. ③의사결정이라는 용어에 주체적이라는 의미가 은연 중 내포된다고 생각함. 의사결정능력으로 명명 제안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①합리적이고 주체적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모호함 ②주체적 의사결정 능력은 정서심리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③위의 논리적/비판적/융합적 사고 능력과의 의미 중복 가능성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①(명칭변경) →창의적이며 융합적 사고능력 ②창의적 문제해결은 인지, 정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인지사고에 속하기 어려움 ③문제해결능력으로 명명 변경 제안
메타인지 능력	-

- 정서심리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 전인교육에 있어 정서심리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자아성찰 및 이해’, ‘자기주도 및 조절 능력’,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 ‘열정과 끈기’, ‘회복탄력성’ 순이었다. 정서심리 영역의 추가 구성요소로 ‘자기효능감’, ‘자기 삶의 프로젝트 설정 능력’, ‘자기 신뢰 및 자존감’, ‘가치 있는 목적 설정’, ‘성장 마인드셋’, ‘기개’, ‘도덕적 감수성’, ‘생태환경 감수성’, ‘자기수정능력’ 등이 제안되었다.

<표 III-1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서심리 영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면의견

구성 요인	서면 의견
자아 성찰 및 이해	①자아 성찰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 <메타인지 능력>과 일부 중복성 있는 것 같음. ②자아 성찰 및 이해보다 자기 인식과 같은 요인으로 대체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음.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곧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자기 인식’을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서 자아 성찰과 이해를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음 ③자아 성찰 및 자기 이해로 명명 변경 제안 ④<자기존중감>으로 표현하면 <정서·심리> 영역에 더 부합될 것으로 보임
자기 주도 및 조절 능력	①자기 주도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정서 심리 영역의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함. 단, ‘자기 조절 능력’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도록 독립된 구성요인으로 작성하거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자아 성찰 부분과 함께 적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 같음.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자기 조절 능력’요소가 독립적으로 강조될 수 있으면 좋겠음. ②<자기 조절 능력> 같은 포괄적 요인보다 <감정(정서) 조절능력>으로 명시하는 것도 고려 가능
열정과 끈기, 회복탄력성	①회복탄력성과 열정과 끈기의 관계가 애매모호함 ②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으로 명명 변경 제안 ③<회복탄력성>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구성 요인	서면 의견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	①도덕과 윤리 구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음. 도덕적 성찰과 실천으로 명명 변경 제안 ②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은 인지사고와 정서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 제시된 영역 구분하에서는 인지사고를 바탕으로 정서심리가 더해진다는 방식으로 정서심리에 귀속되는 게 타당 ③정서심리 영역에서는 도덕적 판단보다는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 ④<정서·심리> 영역에 부합하는 요인으로 다소 부족함. 윤리적 정당화(도덕적 판단)와 윤리적 동기화(도덕적 실천)은 <사회·관계>는 <사회·관계> 쪽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서면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 전인교육에 있어 사회관계 영역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공감과 이해,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 ‘정직, 정의, 용기, 책임감’, ‘또래집단 협업 능력’, ‘소통과 리더십’ 순이었다. 사회관계 영역의 추가 구성요소로 ‘사회비판정신’, ‘참여의식’, ‘환경생태 보전의식’ 등이 제안되었다.

<표 Ⅲ-1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사회관계 영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면의견

구성 요인	서면의견
공감과 이해, 존중과 배려	①공감과 이해, 존중과 배려가 리더십이라고 생각함. ②<공감과 존중> 혹은 <공감과 배려> 정도로 통합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	①‘공동체 의식’을 자신이 공동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소속감이라고 본다면 자신을 세계 시민에 소속된 일원으로 인식하는 ‘세계시민의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래 집단 협업 능력	①또래 집단으로 한정짓는 것 보다는 ‘집단 협업 능력’이 더 포용적이라고 생각함. ②또래 집단 협업 능력은 ‘소통, 리더십’과 구분되는 지점이 명확히 있다면 필요한 요인인 것 같음. ③또래라는 표현 없이 집단 협업 능력으로도 충분할 것 같음. ④또래 집단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 있음. <협업 및 갈등해결 능력>으로 제안함. ⑤또래가 아니더라도 타인과 협업할 수 있어야 함.

구성 요인	서면의견
소통과 리더십	①소통, 리더십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 ②소통과 리더십을 소통으로 변경 제안 ③리더십을 제외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조
정직, 정의, 용기, 책임감	①4가지 덕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 ②타당하지만 이 요소는 앞의 '정서, 심리' 영역의 요인과 겹칠 수도 있을 듯함. '사회 관계'의 요인임을 의식하여 가령 정의의 인식과 정의 실현의 책무'로 변경 제안 ③리더십에 포함될 수 있음. ④너무 많은 단어가 나열되어 있음. 사회적 덕목으로서 <정직과 책임감> 정도로 통합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⑤사회관계보다 개인적 정서심리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세계시민의식	민족 정체성 추가 (세계시민의식 -> 세계시민의식과 민족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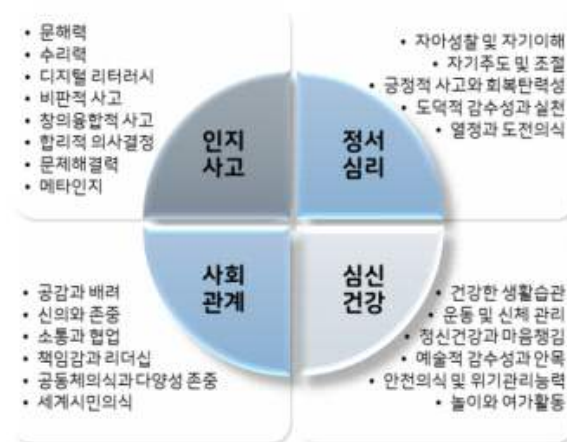
- 신체건강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서면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 전인교육에 있어 신체건강 영역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 '올바른 생활습관', '안전 및 위기관리 능력', '운동 및 스포츠 정신', '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 순이었다. 신체건강 영역의 추가 구성요소로 '쉽과 여가(놀이)', '건전한 놀이 활동(여가활동)' 등이 제안되었다.

<표 III-14>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신체건강 영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서면의견

구성 요인	서면의견
올바른 생활 습관	①올바른 생활 습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함. 자기조절 능력과 중복된다고 생각. ②타당하지만 '올바른'이라는 말에 특정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 =>'자기수양의 지속적 훈련과 습관화'으로 변경 제안 ③<자기 주도 및 조절 능력>에 포함 가능할 듯함 ④<올바른 생활 습관> 대신 <바람직한 생활 방식과 태도>를 제안

구성 요인	서면의견
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	①정신 건강은 정서심리와 관련되므로 ‘운동 및 신체 관리’로 구성요인을 바꾸는 것 제안 ②<자기 주도 및 조절 능력>에 포함해도 될 듯함. ③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는 하위 요소가 아니라 대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함.
운동 및 스포츠 정신	①스포츠 정신으로 제안. 그런데 스포츠 정신은 사실상 사회관계(존중과 배려, 정직, 책임, 소통)의 구성요인과 중복된다고 생각
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	①신체건강 항목에 맞지 않음, 심리정서 영역이 보다 어울림. 아니면 신체건강 영역의 명칭 변경 필요 ②신체건강과 관련성이 없음. ③정서/심리 영역에 더 적합할 것 같음. ④미적안목과 예술적 감수성은 정서, 심리 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함. ⑤<미적 안목과 예술적 감수성>의 경우 <정서심리> 영역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안전 및 위기관리 능력	①개인적,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의미로 <위기 대처 능력>을 제안

○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및 전문가들의 서면 의견을 참조하여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영역별 구성요소를 수정하였다. 수정한 구성요소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I-2]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한 전인교육의 영역 및 구성 요소

다.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1) 전인교육의 개념 및 구성요소

- 수정된 전인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정안2과 수정안1의 평균, CVR 등을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 전인교육의 정의로 수정안1을 채택하였다.

<표 III-15>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도에 대한 범주별 응답분포

구분		범주별 응답비율(%)				
		①	②	③	④	⑤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수정안1	.0	.0	25.0	45.0	30.0
	수정안2	.0	9.5	28.6	42.9	19.0

<표 III-16>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전인교육 개념 정의의 타당성	수정안1	4.05	.76	.50	.88	.56	.19
	수정안2	3.71	.90	.13	.50	.75	.24

-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수정된 인지사고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사고 영역의 8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도는 평균 4.29~4.83이었으며, CVR은 .75~1.00, 수렴도 .00~.50, 합의도 .78~1.00, 안정도 .08~.21로 나타나, 전문가의 의견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고려하여 ‘창의융합적 사고’→‘창의·융합적 사고’, ‘합리적 의사결정’→‘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력’→‘문제해결능력’으로 수정하였다.

<표 III-17>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인지사고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응답범주별 반응분포)

구성 요인 (수정안)	응답범주별 반응분포(%)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해력	.0	.0	4.2	8.3	87.5
수리력	.0	8.3	4.2	37.5	50.0
디지털 리터러시	.0	.0	8.3	20.8	70.8
비관적 사고	.0	.0	.0	16.7	83.3
창의융합적 사고	.0	.0	4.2	20.8	75.0
합리적 의사결정	.0	.0	12.5	20.8	66.7
문제해결력	.0	.0	12.5	25.0	62.5
메타인지	.0	.0	.0	29.2	70.8

<표 III-18>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인지사고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구성 요인 (수정안)	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문해력	4.83	(.48)	.92	.00	1.00	.10
수리력	4.29	(.91)	.75	.50	.78	.21
디지털 리터러시	4.63	(.65)	.83	.50	.80	.14
비관적 사고	4.83	(.38)	1.00	.00	1.00	.08
창의융합적 사고	4.71	(.55)	.92	.38	.85	.12
합리적 의사결정	4.54	(.72)	.75	.50	.80	.16
문제해결력	4.50	(.72)	.75	.50	.80	.16
메타인지	4.71	(.46)	1.00	.50	.80	.10

-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수정된 정서심리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심리 영역의 5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도는 평균 4.29~4.79이었으며, CVR은 .75~1.00, 수렴도 .00~.50, 합의도

.75~1.00, 안정도 .09~.16로 나타나, 전문가의 의견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고려하여 영역의 명칭을 ‘정서심리’에서 ‘심리정서’로 수정하였다. 또한 영역의 명칭을 ‘자아성찰 및 자기이해’→‘자아성찰과 자기이해’, ‘자기주도 및 조절’→‘자기주도성과 조절능력’,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긍정적 사고와 열정’, ‘도덕적 감수성과 실천’→‘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 ‘열정과 도전의식’→‘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으로 수정하였다.

<표 III-19>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정서심리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응답범주별 반응분포)

구성 요인 (수정안)	응답범주별 반응분포(%)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아성찰 및 자기이해	.0	.0	.0	20.8	79.2
자기주도 및 조절	.0	.0	4.2	12.5	83.3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0	4.2	.0	25.0	70.8
도덕적 감수성과 실천	.0	.0	.0	41.7	58.3
열정과 도전의식	.0	.0	12.5	45.8	41.7

<표 III-20>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정서심리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구성 요인 (수정안)	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자아성찰 및 자기이해	4.79	(.41)	1.00	.00	1.00	.09
자기주도 및 조절	4.79	(.51)	.92	.00	1.00	.11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4.63	(.71)	.92	.50	.80	.15
도덕적 감수성과 실천	4.58	(.50)	1.00	.50	.80	.11
열정과 도전의식	4.29	(.69)	.75	.50	.75	.16

-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된 사회관계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관계 영역의 6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도는 평균 4.50~4.83이었으며, CVR은 .83~1.00, 수렴도 .00~.50, 합의도 .80~1.00, 안정도 .08~.15로 나타나, 전문가의 의견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고려하여 ‘신의와 존중’→‘신뢰와 존중’, ‘공동체 의식과 다양성 존중’→‘공동체 의식’으로 수정하였다.

<표 III-2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사회관계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응답범주별 반응분포)

구성 요인 (수정안)	응답범주별 반응분포 (%)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공감과 배려	.0	.0	4.2	25.0	70.8
신의와 존중	.0	.0	8.3	33.3	58.3
소통과 협업	.0	.0	.0	16.7	83.3
책임감과 리더십	.0	.0	4.2	33.3	62.5
공동체 의식과 다양성 존중	.0	.0	4.2	20.8	75.0
세계시민의식	.0	.0	4.2	33.3	62.5

<표 III-2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정서심리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구성 요인 (수정안)	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공감과 배려	4.67	.56	.92	.50	.80	.12
신의와 존중	4.50	.66	.83	.50	.80	.15
소통과 협업	4.83	.38	1.00	.00	1.00	.08
책임감과 리더십	4.58	.58	.92	.50	.80	.13
공동체 의식과 다양성 존중	4.71	.55	.92	.38	.85	.12
세계시민의식	4.58	.58	.92	.50	.80	.13

-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수정된 심신건강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심신건강 영역의 6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도는 평균 4.33~4.71이었으며, CVR은 .67~.92, 수렴도 .38~.50, 합의도 .75~.85, 안정도 .12~.20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의견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고려하여 ‘건강한 생활습관’→‘바른 생활습관’, ‘운동 및 신체 관리’→‘건강한 신체’, ‘정신건강과 마음챙김’→‘건강한 정신’, ‘안전의식 및 위기관리능력’→‘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으로 수정하였다.

<표 III-23>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심신건강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응답범주별 반응분포)

구성 요인 (수정안)	응답범주별 반응분포(%)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건강한 생활습관	.0	.0	4.2	20.8	75.0
운동 및 신체 관리	.0	.0	4.2	20.8	75.0
정신건강과 마음챙김	.0	.0	8.3	25.0	66.7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0	4.2	12.5	37.5	45.8
안전의식 및 위기관리능력	.0	4.2	4.2	45.8	45.8
놀이와 여가활동	.0	4.2	12.5	29.2	54.2

<표 III-24>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심신건강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도

구성 요인 (수정안)	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건강한 생활습관	4.71	.55	.92	.38	.85	.12
운동 및 신체 관리	4.71	.55	.92	.38	.85	.12
정신건강과 마음챙김	4.58	.65	.83	.50	.80	.14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4.25	.85	.67	.50	.75	.20
안전의식 및 위기관리능력	4.33	.76	.83	.50	.75	.18
놀이와 여가활동	4.33	.87	.67	.50	.80	.20

- 2차 델파이를 통해 확정된 전인교육의 개념, 영역 및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5>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확정된 전인교육의 개념 및 구성요소

구분	내용			
전인교육 개념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자율적 주체로서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영역	인지사고	심리정서	사회관계	심신건강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력 ○ 수리력 ○ 디지털 리터러시 ○ 비판적 사고 ○ 창의·융합적 사고 ○ 의사결정능력 ○ 문제해결능력 ○ 메타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성찰과 자기이해 ○ 자기주도 및 조절능력 ○ 긍정적 사고와 열정 ○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 ○ 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과 배려 ○ 신뢰와 존중 ○ 소통과 협업 ○ 책임감과 리더십 ○ 공동체의식 ○ 세계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생활습관 ○ 건강한 신체 ○ 건강한 정신 ○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 놀이와 여가활동

- 연구진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인교육의 영역별 구성요소를 재정리하였다. 첫째, 인지사고 영역에서는 복잡하게 구성하였던 구성요소를 간명화하였다. ‘논리적/비판적/융합적 사고 능력’을 ‘비판적 사고’로,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 능력’을 ‘의사결정 능력’으로 각각 정리하였으며, ‘메타인지 능력’도 ‘메타인지’로 간명화하였다. 둘째,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구성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열정과 끈기, 회복탄력성’을 ‘긍정적 사고와 열정’과 ‘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은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으로 간명화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그 결과 심리정서 영역의 구성요소는 4개에서 5개로 증가하였다. 셋째, 사회관계 영역 역시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

대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던 구성요소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유사한 성격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감과 이해, 존중과 배려’는 ‘공감과 배려’, ‘신뢰와 존중’으로 분화시켰으며, ‘또래 집단 협업 능력’ 및 ‘소통과 리더십’, ‘정직, 정의, 용기, 책임감’은 ‘소통과 협업’ 및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재정리하였다.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은 ‘세계시민의식’과의 층위를 고려하여 ‘공동체의식’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건강 영역은 영역 명칭을 ‘심신건강’ 영역으로 변경하고 구성요소도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정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였다.

<표 III-26> 전인교육의 영역별 구성요소의 개념

영역	구성요소	개념
인지 사고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	수학의 이치나 이론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비판적 사고	선입견이나 권위에 매이지 않고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창의·융합적 사고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새롭고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의사결정 능력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
	메타인지	자신의 사고를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판단하며 통제하는 능력
정서 심리	자아성찰과 자기이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성찰하는 능력
	자기주도 및 조절능력	자신의 일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조절하는 능력
	긍정적 사고와 열정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
	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 태도

영역	구성요소	개념
사회 관계	공감과 배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태도
	신뢰와 존중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는 태도
	소통과 협업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책임감과 리더십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도적으로 처리하려는 태도
	공동체의식	한 사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과 감정,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려는 태도
	세계시민의식	인류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세계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려는 태도
신체 건강	바른 생활 습관	책임을 다하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태도
	건강한 신체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는 태도
	건강한 정신	생활 속에서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정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능력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예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려는 태도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놀이와 여가활동	놀이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며 삶의 여유를 찾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려는 태도

2) 전인교육 영역별 학교교육의 충실도

- 전인교육의 4개 영역에 대하여 구성 요인별로 해당 요인의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요인의 학교교육 개선 방안을 위한 제안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 인지사고 영역의 구성 요인별 학교교육 충실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사고 영역에서는 문해력(M=4.17점)과 수리력(M=4.08점)의 학교교육 충실도가 4점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M=3.54점), 비판적 사고(M=3.67점), 창의융합적 사고(M=3.63점), 합리적 의사결정(M=3.83점), 문제해결력(M=3.7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메타인지의 학교교

육 충실도(3.30점)가 가장 낮았다. 인지사고 영역 구성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먼저 문해력의 경우 최소 교양 수준의 한문교육 시행, 각 교과에서의 문해력 교육 실시, 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문해력 향상 관련 내용 추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 기회 제공, 세심히 읽고 쓰는 독서교육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수리력의 경우에는 개념 원리 이해 및 현실 문제 적용 교육, 학습량의 축소 및 필요한 학생을 위한 심화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아직 관련 수업 시수가 적고 학교에 비치된 기기의 제한이 있어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수업에서 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교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비판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나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을 개선하여 토의토론, 여러 교과에 걸친 그룹과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창의융합적 사고와 관련하여 토의토론이나 여러 교과에 걸친 그룹과제 등이 창의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나, 교사의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 언급되었으며, 단위학교별 특색있는 융합 수업,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과목의 융합, 일상 삶과 관련된 주제를 활용한 통합된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창의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교수-학습구성 등이 제안되었다. 여섯째,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학급 자치활동, 토론 수업, 조별 과제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이 제안되었다. 일곱째, 문제해결력과 관련하여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강화, 문제 중심 등과 같은 학습법 활용,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플랫폼을 통한 학교별 교육과정 자료 공유, 실제 삶과 연계한 교육 등이 제안되었다. 여덟째, 메타인지와 관련하여 초등교육과정에서는 부재한 상황이며, 상호토론, 프로젝트 학습, 자기점검 자료 제공,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등이 제안되었다.

<표 Ⅲ-27>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인지사고 영역의 학교교육 충실도

구성 요인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육청	초등 교사	중등 교사	고등 교원
	①	②	③	④	⑤	(n=24)	(n=5)	(n=7)	(n=7)	(n=5)
① 문해력	-	1 (4.2)	3 (12.5)	11 (45.8)	9 (37.5)	4.17 (.82)	4.40 (.55)	4.29 (1.11)	4.43 (.53)	3.40 (.55)
② 수리력	-	2 (8.3)	3 (12.5)	10 (41.7)	9 (37.5)	4.08 (.93)	4.00 (.71)	4.71 (.49)	4.29 (.76)	3.00 (1.00)
③ 디지털 리터러시	1 (4.2)	2 (8.3)	9 (37.5)	7 (29.2)	5 (20.8)	3.54 (1.06)	4.00 (.71)	3.29 (1.25)	3.86 (.90)	3.00 (1.22)
④ 비판적 사고	-	2 (8.3)	7 (29.2)	12 (50.0)	3 (12.5)	3.67 (.82)	3.60 (.89)	3.71 (.95)	3.86 (.69)	3.40 (.89)
⑤ 창의융합적 사고	-	3 (12.5)	7 (29.2)	10 (41.7)	4 (16.7)	3.63 (.92)	3.60 (.89)	3.29 (.95)	4.14 (.90)	3.40 (.89)
⑥ 합리적 의사결정	-	1 (4.2)	8 (33.3)	9 (37.5)	6 (25.0)	3.83 (.87)	3.60 (.89)	3.86 (.90)	4.29 (.95)	3.40 (.55)
⑦ 문제해결력	-	1 (4.2)	8 (33.3)	11 (45.8)	4 (16.7)	3.75 (.79)	3.60 (.89)	3.71 (.95)	4.14 (.69)	3.40 (.55)
⑧ 메타인지	-	5 (21.7)	7 (30.4)	10 (43.5)	1 (4.3)	3.30 (.88)	3.20 (1.10)	3.00 (.89)	3.57 (.79)	3.40 (.89)

- 정서심리 영역의 구성 요인별 학교교육 충실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심리 영역의 경우 5개 구성 요인의 충실도가 3.29~3.58점이었으며, 자기주도 및 조절(M=3.58), 도덕적 감수성과 실천(M=3.58)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이 3.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서심리 영역 구성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먼저 자아성찰 및 자기이해의 경우, 성찰 및 자기이해를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 및 교육과정 상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 등에서의 실질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 인식 기회 제공, 고전이나 학문별 발달사 학습 등을 통한 자아성찰 및 성장 기회 제공, 외부 전문 강사나 상담교사 수업의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자기주도 및 조절 요인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상담 제공, 개인별 정서심리 포트폴리오 시스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수법 개발 및 학생 자율성 강조 수업,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청소 등 자기 조절 혹은 자기주도적 관련 부분 교육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요인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회복탄력성 부분은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화나 역할극 등을 통한 여러 과목에서의 지도 필요, 실패를 통한 배움과 개선된 사례 소개 등이 제안되었다. 넷째, 도덕적 감수성과 실천 요인과 관련하여 학교생활 측면에서 꾸준한 평가와 기록이 필요하며, 실천 중심의 교육 확대 및 삶과 연계한 실천적 수업 기획을 위한 교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다섯째, 열정과 도전의식 요인과 관련하여 맞춤형 학습목표와 과제 설정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상황과 성공경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공부 외 잘하는 영역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너그러운 분위기 조성이 제안되었다. 특히 정서심리 영역의 6개 구성 요인에 대한 학교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실패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 조성, 프로젝트 학습이나 학습자 중심 교육이 공통적으로 제안되었다.

<표 III-28>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서심리 영역의 학교교육 충실도

구성 요인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육청	초등	중등	고등
	①	②	③	④	⑤	(n=24)	(n=5)	(n=7)	(n=7)	(n=5)
① 자아성찰 및 자기이해	1 (4.2)	-	11 (45.8)	10 (41.7)	2 (8.3)	3.50 (.83)	3.40 (.55)	3.57 (1.40)	3.71 (.49)	3.20 (.45)
② 자기주도 및 조절	-	1 (4.2)	9 (37.5)	13 (54.2)	1 (4.2)	3.58 (.65)	3.40 (.55)	3.57 (.98)	3.71 (.49)	3.60 (.55)
③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1 (4.2)	2 (8.3)	13 (54.2)	5 (20.8)	3 (12.5)	3.29 (.95)	3.20 (.45)	2.86 (1.07)	4.00 (1.00)	3.00 (.71)
④ 도덕적 감수성과 실천	-	1 (4.2)	14 (58.3)	3 (12.5)	6 (25.0)	3.58 (.93)	3.20 (.45)	4.14 (1.21)	3.71 (.95)	3.00 (.00)
⑤ 열정과 도전의식	1 (4.2)	1 (4.2)	13 (54.2)	5 (20.8)	4 (16.7)	3.42 (.97)	3.20 (.45)	3.14 (1.21)	4.00 (1.00)	3.20 (.84)

- 사회관계 영역의 구성 요인별 학교교육 충실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관계 영역의 경우 6개 구성 요인의 충실도가 3.48~3.91점이었으며, 공감과 배려(M=3.91), 소통과 협업(M=3.91)이 가장 높았으며, 책임감과 리더십(M=3.57)이 가장 낮았다. 사회관계 영역 구성 요인에 대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먼저 공감과 배려 요인과 관련하여 역할놀이, 연극수업, 토론수업이나 조별과제 등을 통한 체험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 그에 대한 과감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신의와 존중 요인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의 경쟁의식 해소를 위한 절대평가 실시, 기초 예절교육 강화, 신의와 존중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소통과 협업 요인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학교 문화, 프로젝트 수업이나 학생 자치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넷째, 책임감과 리더십 요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책임감과 리더십 배양 기회 제공, 모범적 예시자료가 충분히 포함된 교육 자료 제공,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다섯째, 공동체 의식과 다양성 존중 요인과 관련해서는 학습 과정을 공동체 의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및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합의하고 지키는 기회 제공, 다문화 교육 강화 및 외국인 학생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여섯째, 세계시민의식 요인과 관련해서는 융합수업 및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교과목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사회관계 영역의 6개 구성 요인을 학교 교육에서 충실히 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다 높은 효과를 위해서라면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가정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안되었다.

<표 III-29>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사회관계 영역의 학교교육 충실도

구성 요인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육청	초등	중등	고등
	①	②	③	④	⑤	(n=24)	(n=5)	(n=7)	(n=7)	(n=4)
① 공감과 배려	-	1 (4.3)	8 (34.8)	6 (26.1)	8 (34.8)	3.91 (.95)	3.80 (.84)	4.14 (1.07)	4.29 (.95)	3.00 (.00)
② 신의와 존중	-	2 (8.7)	11 (47.8)	3 (13.0)	7 (30.4)	3.65 (1.03)	3.40 (.89)	3.57 (1.40)	4.14 (.90)	3.25 (.50)
③ 소통과 협업	-	2 (8.7)	7 (30.4)	5 (21.7)	9 (39.1)	3.91 (1.04)	3.80 (.84)	4.14 (1.21)	4.00 (1.29)	3.50 (.58)
④ 책임감과 리더십	-	2 (8.7)	10 (43.5)	7 (30.4)	4 (17.4)	3.57 (.90)	3.20 (.45)	3.71 (1.38)	3.86 (.69)	3.25 (.50)
⑤ 공동체의식과 다양성 존중	-	1 (4.3)	10 (43.5)	4 (17.4)	8 (34.8)	3.83 (.98)	3.60 (.55)	4.14 (1.07)	4.00 (1.29)	3.25 (.50)
⑥ 세계시민의식	-	2 (8.7)	12 (52.2)	5 (21.7)	4 (17.4)	3.48 (.90)	3.40 (.55)	3.71 (1.11)	3.71 (.95)	2.75 (.50)

- 심신건강 영역의 구성 요인별 학교교육 충실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신건강 영역의 경우 6개 구성 요인의 충실도가 3.17~3.75점이었으며, 운동 및 신체관리(M=3.75)의 학교교육 충실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놀이와 여가활동(M=3.21)이 가장 낮았다. 심신건강 영역 구성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먼저 건강한 생활습관 요인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 건강한 생활 습관 안내 및 자기 평가 기회 제공, 학교와 가정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운동 및 신체 관리 요인과 관련해서는 수업과 별도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 제공, 신체 활동 시간 확대 및 관련 강좌 개설, 모든 학생을 위한 체육교육의 일반화 및 인프라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정신건강과 마음챙김 요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담당부서의 역할 강화 및 소셜미디어 활용 상담 시스템 구축,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등 강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및 내실화 등이 제안되었다. 넷째,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 격차를 고려한 예술관람 기회 및 예술적 경험 확대, 예술적 표현 기회의 제공, 전문적 강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다섯째, 안전의식 및 위기관리 능력과 관련해서는 생활 속 위험과 안전 사고를 대비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 및 적절한 시기의 관련 예산 투입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 놀이와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놀이 시간 제공,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 경험 및 자기주도적 여가 활동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놀이와 여가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표 III-30>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심신건강 영역의 학교교육 충실도

구성 요인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육청	초등	중등	고등
	①	②	③	④	⑤	(n=24)	(n=5)	(n=7)	(n=7)	(n=5)
① 건강한 생활습관	1 (4.2)	3 (12.5)	5 (20.8)	11 (45.8)	4 (16.7)	3.58 (1.06)	3.60 (.89)	3.57 (1.40)	3.86 (1.07)	3.20 (.84)
② 운동 및 신체 관리	-	3 (12.5)	5 (20.8)	11 (45.8)	5 (20.8)	3.75 (.94)	3.60 (1.14)	4.14 (1.07)	3.86 (.69)	3.20 (.84)
③ 정신건강과 마음챙김	1 (4.2)	6 (25.0)	7 (29.2)	8 (33.3)	2 (8.3)	3.17 (1.05)	3.40 (.89)	3.29 (1.38)	3.00 (1.00)	3.00 (1.00)
④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1 (4.2)	3 (12.5)	9 (37.5)	7 (29.2)	4 (16.7)	3.42 (1.06)	3.60 (.55)	3.71 (1.50)	3.29 (1.11)	3.00 (.71)
⑤ 안전의식 및 위기관리능력	-	4 (16.7)	6 (25.0)	10 (41.7)	4 (16.7)	3.58 (.97)	3.20 (.84)	4.29 (.49)	3.86 (1.07)	2.60 (.55)
⑥ 놀이와 여가활동	1 (4.2)	5 (20.8)	8 (33.3)	8 (33.3)	2 (8.3)	3.21 (1.02)	3.00 (.71)	3.71 (1.38)	3.00 (.82)	3.00 (1.00)

라.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인교육의 영역별로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게 나타난 구성요소에 대해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 방안, 구성요소별로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중요도 및 시급성, 서면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요소별 학교교육 충실도 낮은 이유 및 개선 방안

- 전인교육 4개 영역 학교교육 충실도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구성요소에 대해 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서술식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영역별 학교교육 충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III-31>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구성요소

영역	구성요소
인지사고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융합적 사고
심리정서	긍정적 사고와 열정, 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
사회관계	신뢰와 존중, 책임감과 리더십, 세계시민의식
심신건강	건강한 정신, 놀이와 여가활동,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가) 인지사고 영역

- ‘메타인지’의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탐색하거나 성찰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지식 및 암기나 입시 위주의 교육 등, 많은 학습량 및 일제식 수업, 학생 수나 학교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의 개별 학습 속도나 이해 정도에 따른 교수-학습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메타인지 관련 내용이 성취기준에 명확하지 않다거나 분절적 교육과정 등의 원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메타인지’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흥미나 삶과 연계한 배움, 학습자 중심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과 같은 교수-학습 개선이 가장 많이 제안되었으며, 메타인지 관련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연수 실시, 생각을 표현하는 평가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는 등 평가 방식의 변경,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된 피드백 제공, 적절한 학습량 제시가 제안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교사당 학생 수 감축, 범사회적·범교육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32>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인지사고(메타인지)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자기자신 탐색 및 성찰 기회 부족(10)	① 교수-학습 개선 (흥미나 삶과 연계한 배움, 학습자 중심 수업, 자기주도적학습)(14)
② 지식 및 암기, 경쟁 위주 교육(9)	② 교사 역량 강화 및 연수 실시(11)
③ 많은 학습량 및 일제식 수업(4)	③ 평가방식의 변경(생각표현 평가, 다양한 측면 평가)(4)
④ 학생 개별 학습 속도, 이해 정도에 따른 교육 어려움(4)	④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개별화된 피드백 제공(3)
⑤ 메타인지 관련 교육에 대한 교사 낮은 준비도(3)	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조정(적절한 학습량 제시)(2)
⑥ 메타인지의 광범위성 및 가시적 성과 측정 어려움(2)	⑥ 기타 의견(2)
⑦ 기타 의견(2)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 ‘디지털 리터러시’의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기기 조작과 같은 일부 또는 편향된 측

면만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학생의 실질적 정보검색이나 활용 능력이 부족하며, 학년이나 지역에 따라 학생별 기기 조작 수준에 차이가 있고, 교과 내에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많지 않고 수업에서의 활용도도 저조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가 가장 많이 제안되었으며,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전자기기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교육콘텐츠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 및 사회와 연계 및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되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단순히 기기 조작을 잘한다고 해서 높은 것만 아니며, 윤리적 측면과 정보의 검색 및 비판적 활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II-33>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인지사고(디지털 리터러시)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교육콘텐츠 및 교사전문성 부족(10)	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10)
② 형식적인 편향적 교육 프로그램(5)	② 교수-학습 과정 내 전자기기 활용도 제고 및 교육콘텐츠 보급(10)
③ 학생의 실질적 정보검색, 활용능력 부족(3)	③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방법 교육(6)
④ 학년, 지역에 따른 학생별 기기 조작 수준 차이(3)	④ 가정-사회와의 연계 및 공감대 형성(4)
⑤ 교과 반영도 및 수업활용도 저조(3)	⑤ 디지털 리터러시 접근방법의 변경(3)
⑥ 학교-가정 간 연계 부족(2)	⑥ 교육과정 내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반영(1)
⑦ 입시/지식 위주 교육 (2)	⑦ 전자기기 보급 및 관리의 편리성 제고(1)
⑧ 기기 보급의 문제(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 ‘창의·융합적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는 교과 기반의 교육

과정 및 분절적 교육과정 운영, 지식이나 암기 중심의 교육과 경쟁적 학교문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종합적 관점의 평가를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 창의·융합적 사고가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 많은 학습량을 고려할 때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 ‘창의·융합적 사고’에 대한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재구조화, 교과 융합, 수업시수 조정,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등 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창의·융합적 사고 교육을 위한 워크숍 등 교사 연수를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아울러 창의·융합적 사고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제공, 학습량 축소 등이 제시되었다.

<표 III-34>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인지사고(창의·융합적 사고)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교과 기반, 분절적 교육과정 운영(7)	① 교육과정 재구조화, 교과융합, 수업시수 조정,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14)
② 지식/암기 중심 교육, 경쟁적 학교문화(6)	② 워크숍 등 연수 및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5)
③ 종합적 관점의 평가를 위한 제반 여건 부족(4)	③ 창의융합적 사고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공, 평가방식 개선(4)
④ 교육과정 반영 및 수업 운영이 어려운 영역(3)	④ 학습량 축소(2)
⑤ 자기주도적 종합적 학습경험 부족(3)	⑤ 경쟁적 학교문화 개선(1)
⑥ 많은 학습량 및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창의융합교육의 형식적 운영(2)	⑥ 입시제도 변경(1)
⑦ 기타 의견(2)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나) 심리정서 영역

-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의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나 지식 위주 교육과 경쟁 문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달리 현재의 입시를 목표로 한 경쟁적 교육 환경에서는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을 키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질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상의 어려움도 언급되었는데, 긍정적 사고를 다루는 학습 내용에는 특별한 모범 사례나 거창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사고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심리정서 영역은 교과 영역과는 다른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므로 교과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만으로도 버겁다는 점이다.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을 개인적 영역으로 보거나 가정교육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여기는 점도 학교교육에서 충실도가 낮은 이유로 언급되었다.
-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에 대한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이나 자아성찰 활동을 제공하는 것, 사회적 인식 및 긍정적 사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평가 방식의 전환 및 다양화 등이 제안되었다. 가정에서 역할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표 Ⅲ-35> 학교교육에서 충실도가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리정서(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입시/지식 위주 교육, 경쟁 문화(15)	①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상담 등)(6)
② 교육과정, 교수-학습 상의 어려움(4)	②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긍정적 사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4)
③ 개인적 영역으로 보는 관점(3)	③ 평가 방식의 전환 및 다양화(4)
④ 사회의 계급화 등 사회적 분위기(3)	④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제공(3)
⑤ 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부족(2)	⑤ 개별화된 진로지도(2)
⑥ 가정교육 범위에 해당(2)	⑥ 교사 업무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2)
⑦ 자아성찰 교육활동 결어(1)	⑦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제공, 가정에서의 역할 인식(2)
⑧ 학교 내 다양한 갈등, 학생 간 상호작용의 위축(2)	⑧ 자아성찰 활동 제공(2)
	⑨ 관련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 ‘열정과 도전의식’에 대해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는 입시 중심 교육 및 경쟁 문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몰입하거나 도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도전할 만한 과제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규율과 수동성이 강조되는 학교문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 보호 미비 등이 제시되었다.
- ‘열정과 도전의식’에 대한 학교교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별 수업 등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도전의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많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평가 측면에서 성장 중심, 절대평가, 실제성 높은 평가를 도입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표 III-36>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리정서(열정과 도전의식)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입시 중심 교육, 경쟁 문화(10)	① 수준별 수업 등 도전의식 함양 기회 및 학생 참여 문화 조성(13)
② 몰입이나 도전적 활동 기회 부족(7)	② 성장중심, 절대평가, 실제성 높은 평가 도입(7)
③ 학습자 개인차 고려 어려움(4)	③ 실패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3)
④ 흥미유발 교육과정 제공 어려움(2)	④ 학교 공간 및 환경 개선(3)
⑤ 유전적/심리적 요인(2)	⑤ 예산 확보 및 국민적 공감 필요(1)
⑥ 기타의견(3)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다) 사회관계 영역

- ‘신뢰와 존중’과 관련하여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는 입시나 성적 위주의 교육과 경쟁적 문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최근 강해지고 있는 개인주의나 자기표현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 부족, 공동체 간 갈등이나 혐오 표현 등을 조정하는 시스템 부족이 언급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디지털 만능 시대 소외되는 인간애, 상대적으로 신뢰와 존중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해 왔던 분위기, 신뢰와 존중이 갖는 개념적 특성 등이 언급되었다.
- ‘신뢰와 존중’에 대한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 중심의 교육활동의 활용 및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교사 역량 제고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공동체 의식이나 배려 등을 위한 교육 및 활동을 제공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III-37>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사회관계(신뢰와 존중)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입시나 성적 위주 교육, 경쟁 문화(9) ② 개인주의나 자기표현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6) ③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 부족(3) ④ 공동체 간 갈등, 혐오표현 등 조정 시스템 부재(2) ⑤ 관련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2) ⑥ 기타 의견(3)	① 협력중심 교육활동 및 이를 위한 교사 역량 제고(5) ② 공동체 의식, 배려나 희생 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제공(3) ③ 소통,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 형성 (3)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 ‘책임감과 리더십’과 관련하여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로, 책임감이나 리더십의 학습 기회 부족, 책임감을 느낄 동인이나 배울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책임감이나 리더십이 덜 중요한 사회적 분위기, 자율성이나 권리는 강조되지만 책임감을 교육시키기 어려운 학교 환경도 제시되었다.
- ‘책임감과 리더십’에 대한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더를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동체 규칙의 정비 및 적용,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교수-학습활동에 책임감과 리더십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할 범위를 조정하며,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표 III-38>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사회관계(책임감과 리더십)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책임감/리더십 학습 기회 및 동기 부족(10)	① 다양한 역할 및 리더역할 경험 제공(4)
② 책임감/리더십이 덜 중요한 사회적 분위기(3)	② 공동체 규칙 정비 및 적용(3)
③ 책임을 강조할 수 없는 여건(3)	③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3)
④ 권리와 책임의식 간의 불균형(1)	④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2)
⑤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1)	⑤ 기타 의견(3)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 ‘세계시민의식’과 관련하여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로, 학습내용의 실제성과 학생 본인과의 관련성 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학습 내용이 현실에 잘 와닿지 않거나,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감소하고, 관련 교수-학습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 이에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학교교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실제성이 높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제안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교사의 역량 강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체험 기회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표 III-39>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사회관계(세계시민의식)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학습내용의 실제성 및 나와의 관련성 부족(11) ② 관련 교육과정 감소 및 교수-학습 부족(7) ③ 세계시민교육 관련 인식 부재 및 유사 개념과의 혼동(2) ④ 기타 의견(2)	① 삶과 연계, 실제적 높은 교육 제공(8) ②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 제공(3) ③ 교과 융합 교육 제공 및 교사 역량 강화(2) ④ 기타 의견(4)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라) 심신건강 영역

- ‘건강한 정신’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충실도가 낮은 이유로,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현재 지식 중심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 마음의 건강은 개인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이나 인프라 부족, 관련 교육 시간이나 기회 부족, 스마트폰 등에 노출되어 있는 일상 및 생활습관이 언급되었다.
- ‘건강한 정신’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인프라 확대, 명상 프로그램 제공, 관련 교육과정 제공 및 시수 확대, 자료 보급·개발 및 교사 역량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표 III-40>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신건강(건강한 정신)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	-------------------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교육과정 반영의 어려움 및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7) ② 지식 중심, 입시 위주의 교육(4) ③ 개인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 중요성 인식 부족(3) ④ 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부족(2) ⑤ 관련 교육 시간 및 교육 기회 부족(2) ⑥ 스마트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일상 및 생활습관(1)	①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인프라 확대(4) ② 명상 프로그램 제공(3) ③ 관련 교육과정 제공 및 시수 확대(2) ④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사 역량 강화(2) ⑤ 자아성찰을 위한 교육활동 제공(1) ⑥ 가정과의 협업(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 ‘놀이와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도 입시 위주의 교육 및 경쟁적 문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놀이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교육과정 내 관련 시수가 부재하거나 예체능 교육활동 부족, 놀이나 여가를 통한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이 언급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스마트폰 몰입 또는 중독, 놀이나 여가활동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 놀이나 여가활동 시 학생 안전 지도의 어려움 등이 언급되었다.
- ‘놀이와 여가활동’에 대한 학교교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놀이 공간 조성, 놀이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놀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나 자료를 보급하는 것 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놀이나 예체능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놀이나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여가의 의미에 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학습량 축소 및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 III-41>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신건강(놀이와 여가활동)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입시 위주 교육, 경쟁 문화(7) ② 놀이 시설, 공간의 부족(4) ③ 교육과정 내 관련 시수 부재, 예체능 교육활동 부족(3) ④ 놀이/여가를 통한 배움과 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3) ⑤ 기타 의견 (3)	① 놀이 공간 조성(4) ② 놀이/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4) ③ 사례 연구, 놀이 자료 보급(4) ④ 놀이, 예체능 시간 확보(3) ⑤ 기타 의견(4)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에 대한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로, 교육과정 내 관련 교육의 비중이 낮고, 전반적으로 예술 관련 경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입시 및 지식 중심의 교육활동, 예술 교과에 대한 좁은 해석 및 예술적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한 간과 등이 언급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부 활동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데 실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점, 예술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 지역에 따른 학교 여건 차이가 언급되었다.
-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에 대한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교내외 체험 기회 제공, 관련 교과 수업시수의 확보, 지역사회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제안되었다.

<표 III-42> 학교교육에서 충실도 낮은 이유 및 어려움 개선 방안: 심신건강(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이유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① 교육과정 내 관련 교육 비중이 낮음(3)	① 다양한 교내외 체험 기회 제공(7)
② 전반적 예술 관련 경험 기회 부족(3)	② 관련 교과 수업시수 확보(3)
③ 입시 및 지식 중심 교육(3)	③ 지역사회 차원의 인프라 지원(2)
④ 예술 교과에 대한 좁은 해석(2)	④ 교원 연수(1)
⑤ 예술적 감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간과(2)	⑤ 소규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기회 확대(1)
⑥ 기타 의견(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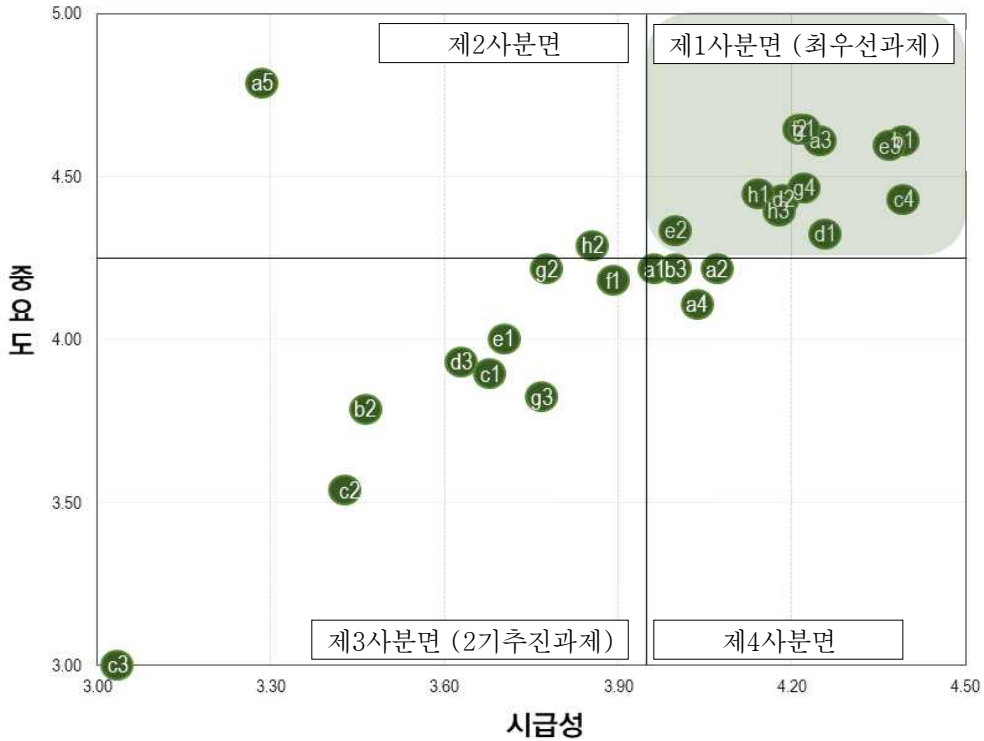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빈도임

2)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의 중요도 및 시급성

-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안된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에 대하여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응답값을 분석하였다.

가) 인지사고 영역

- 인지사고 영역의 8가지(①문해력, ②수리력, ③디지털 리터러시, ④비판적 사고, ⑤창의·융합적 사고, ⑥의사결정능력, ⑦문제해결능력, ⑧메타인지) 구성요소별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 평정 결과와 서면 의견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III-3] 개선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IPA 분석: 인지사고 영역

- 분석 결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총 12개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별로는 ‘문해력’에서 1개(㉓읽기-토론하기-쓰기 활동의 연계), ‘수리력’에서 1개(㉑개념 원리 이해 및 현실 문제 적용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1개(㉒디지털/사이버 윤리 교육의 강화), ‘비판적 사고’에서 2개(㉔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수업 확대, ㉕토의토론, 다양한 논거 찾기 프로그램 확대), ‘창의·융합적 사고’에서 2개(㉖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토론 및 협업 활동 확대, ㉗일상 삶과 관련된 주제를 활용한 통합 관점의 수업), ‘의사결정능력’에서 1개(㉘토론 수업, 조별 과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제공), ‘문제해결능력’에서 2개(㉙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강화, 문제중심학습 활용, ㉚실제 삶과 연계된 교육 제공), ‘메타인지’에서 2개(㉛자기평가 및 목표설정 활동 도입, ㉜메타인지전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도출

되었다.

<표 III-43>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기술 통계: 인지사고 영역

구성요소	교육개선 방안		평균		매트릭스
			중요도	시급성	
문해력	a1	읽기 자료의 다양화	4.21	3.96	제4사분면(중기과제)
	a2	작문 및 발표 기회 확대	4.21	4.07	제4사분면(중기과제)
	a3	읽기-토론하기-쓰기 활동의 연계	4.61	4.25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a4	느린 학습자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 기회 제공	4.11	4.04	제4사분면(중기과제)
	a5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 확대	4.79	3.29	제2사분면(장기과제)
수리력	b1	개념 원리 이해 및 현실 문제 적용 교육	4.61	4.3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b2	학습량의 축소	3.79	3.46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b3	필요한 학생을 위한 심화 학습 기회 제공	4.21	4.00	제4사분면(중기과제)
디지털 리터러시	c1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시수의 확대	3.89	3.68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c2	학교 비치된 기기의 개선 및 확충	3.54	3.43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c3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제공	3.00	3.04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c4	디지털/사이버 윤리 교육의 강화	4.43	4.3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비판적 사고	d1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수업 확대	4.32	4.26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d2	토의토론, 다양한 논거 찾기 프로그램 확대	4.43	4.1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d3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학습자료 제공	3.93	3.63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창의·융합적 사고	e1	관찰하기, 이(異)문화 체험 활동 확대	4.00	3.70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e2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토론 및 협업 활동 확대	4.33	4.00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e3	일상 삶과 관련된 주제를 활용한 통합 관점의 수업	4.59	4.37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의사결정 능력	f1	학급 자치활동 활성화	4.18	3.89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f2	토론 수업, 조별 과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제공	4.64	4.21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문제해결 능력	g1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강화, 문제중심학습 활용	4.64	4.22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g2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확대	4.21	3.78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g3	학교별 교육과정 자료 공유 플랫폼 제공	3.82	3.77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g4	실제 삶과 연계된 교육 제공	4.46	4.22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메타인지	h1	자기평가 및 목표설정 활동 도입	4.44	4.14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h2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글쓰기 활동	4.29	3.86	제2사분면(장기과제)
	h3	메타인지전략 교육 프로그램 운영	4.39	4.18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중요도, 시급성의 평균값이 높은 5개의 개선 방안, 매트릭스에서 제1사분면에 해당되는 개선 방안에 음영 표시

-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지사고 영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적 의견이나 새롭게 제안하는 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서면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해력’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문해력의 경우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읽기-토론-쓰기 활동의 연계뿐만 아니라 평가활동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한 권의 책이라도 깊이 있게 읽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읽은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히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제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단순한 읽기를 넘어 텍스트 분석 능력 향상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느린 학습자와 더불어 빠른 학습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 ‘수리력’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수리력의 근간은 기초연산, 개념원리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탄탄한 수학적 기초와 기본학습에서 수리력이 함양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학습량 축소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방안이나, 학습량을 줄이면 수리력이 향상되는지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습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수준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불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학습내용으로 학업에 부담을 느끼는 등 학습 부담은 내용요소뿐만 아니라 학습수준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학습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학년별 학습자료 뿐만 아니라 주제 중심의 교육자료도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디지털 리터러시’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발은 적다는

점,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좁게 이해하고, 수업시간에 수업 내용을 학습하는 도구로서만 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디지털/사이버 윤리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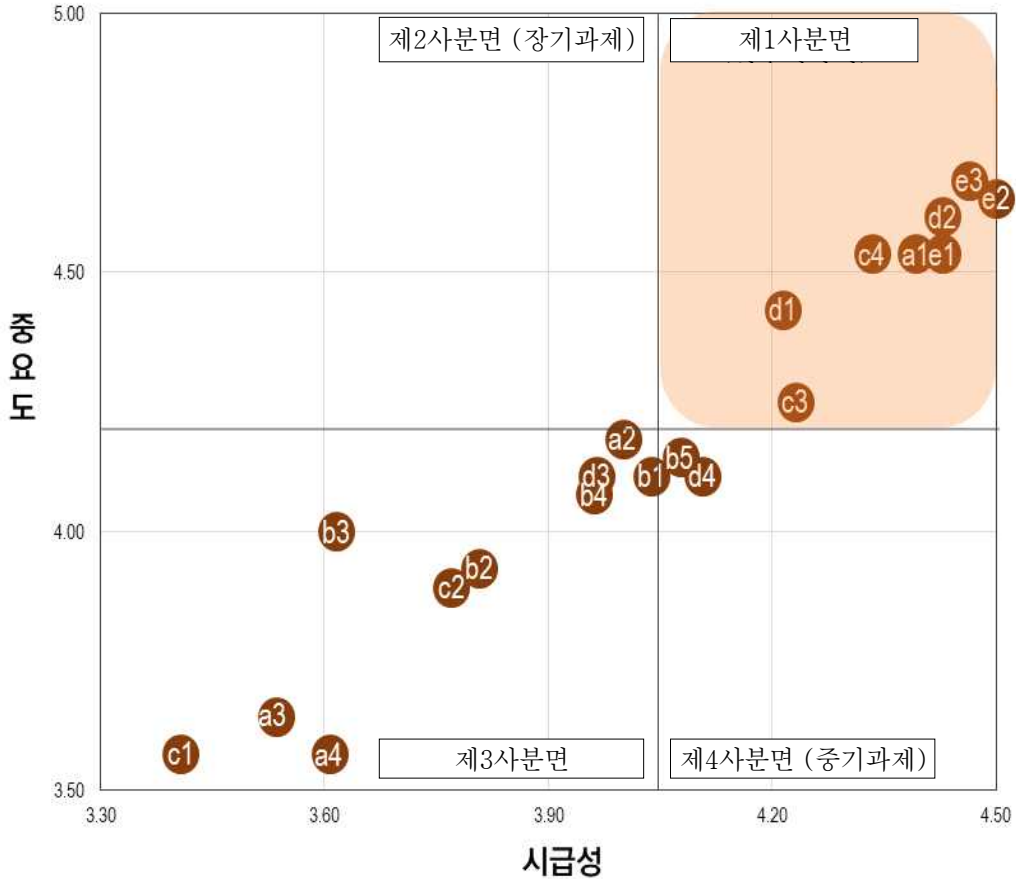
- ‘비판적 사고’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수업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관점에 대한 지나친 수용적 자세를 강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하기와 함께 질문하기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논리에 대한 기본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초 논리 학습을 제안하였으며, 근거를 찾아보는 수업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교사도 비판적 사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지도서나 별도의 자료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창의·융합적 사고’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자연공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간의 융합적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사고 증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의사결정능력’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토론 수업이나 조별 과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제공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습이나 깊이 있는 학습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또래를 돕지 않으려는 풍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에 기반한 결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공동체 수준에서의 의사결정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맥락에서의 의사결정능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문제해결능력’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과 융합이나 프

로젝트 수업 강화 등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수 기회나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메타인지’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글쓰기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만들기,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반성적 사고 활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메타인지전략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 일상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메타인지전략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나) 심리정서 영역

- 심리정서 영역의 5가지(①자아성찰과 자기이해, ②자기주도와 조절능력, ③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④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 ⑤열정과 도전의식) 구성요소별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 평정 결과와 서면 의견을 분석하였다.



[그림 III-4] 개선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IPA 분석: 심리정서 영역

-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IPA 분석 결과, 최우선 추진과제로 총 8개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별로는 ‘자기성찰과 자기이해’에서 1개(㉑성찰 및 자기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충분한 시간 제공),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에서 2개(㉓정서적 건강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㉔긍정적이고 지지하는 학습환경 조성),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에서 2개(㉕인간 가치와 공동선, 정의에 관한 교육 강화, ㉖실천 중심의 교육 확대), ‘열정과 도전의식’에서 3개(㉗맞

춤형 학습목표와 과제 설정을 통해 도전가능한 상황과 성공 경험 기회 제공, ㉔ 공부 이외에 잘하는 영역을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 ㉕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너그러운 분위기 조성)의 방안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도출되었다.

<표 III-44>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기술 통계: 심리정서 영역

구성요소	개선방안		평균		매트릭스
			중요도	시급성	
자이성찰과 자기이해	a1	성찰 및 자기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충분한 시간 제공	4.54	4.3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a2	학교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자기 인식 기회 제공	4.18	4.00	제2사분면(장기과제)
	a3	고전 읽기와 토론 교육을 통한 자이성찰 및 성장 기회 제공	3.64	3.54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a4	외부 전문가사 및 상담교사 수업의 활성화	3.57	3.61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자기주도와 조절능력	b1	전문적, 체계적 심리 상담 제공	4.11	4.04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b2	개인별 심리-정서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3.93	3.81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b3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수법 개발	4.00	3.62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b4	학생 자율성 강조 수업 제공	4.07	3.96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b5	가정과 학교에서 정리, 자율학습 등 자기주도적 활동 강화	4.14	4.08	제4사분면(중기과제)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c1	교과수업에서 관련 예화나 역할극 활용	3.57	3.41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c2	실패를 통한 배움과 개선된 사례 소개	3.89	3.77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c3	정서적 건강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4.25	4.23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c4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학습환경 조성	4.54	4.33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	d1	인간 가치와 공동선, 정의에 관한 교육 강화	4.43	4.21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d2	실천 중심의 교육 확대	4.61	4.43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d3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 및 논술 수업	4.11	3.96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d4	역사 및 시민교육 강화	4.11	4.11	제4사분면(중기과제)
열정과 도전의식	e1	맞춤형 학습목표와 과제 설정을 통해 도전가능한 상황과 성공 경험 기회 제공	4.54	4.43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e2	공부 이외에 잘하는 영역을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	4.64	4.50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e3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너그러운 분위기 조성	4.68	4.46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중요도, 시급성의 평균값이 높은 5개의 개선 방안, 매트릭스에서 제1사분면에 해당되는 개선 방안에 음영 표시

-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심리정서 영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적 의견이나 새롭게 제안하는 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서면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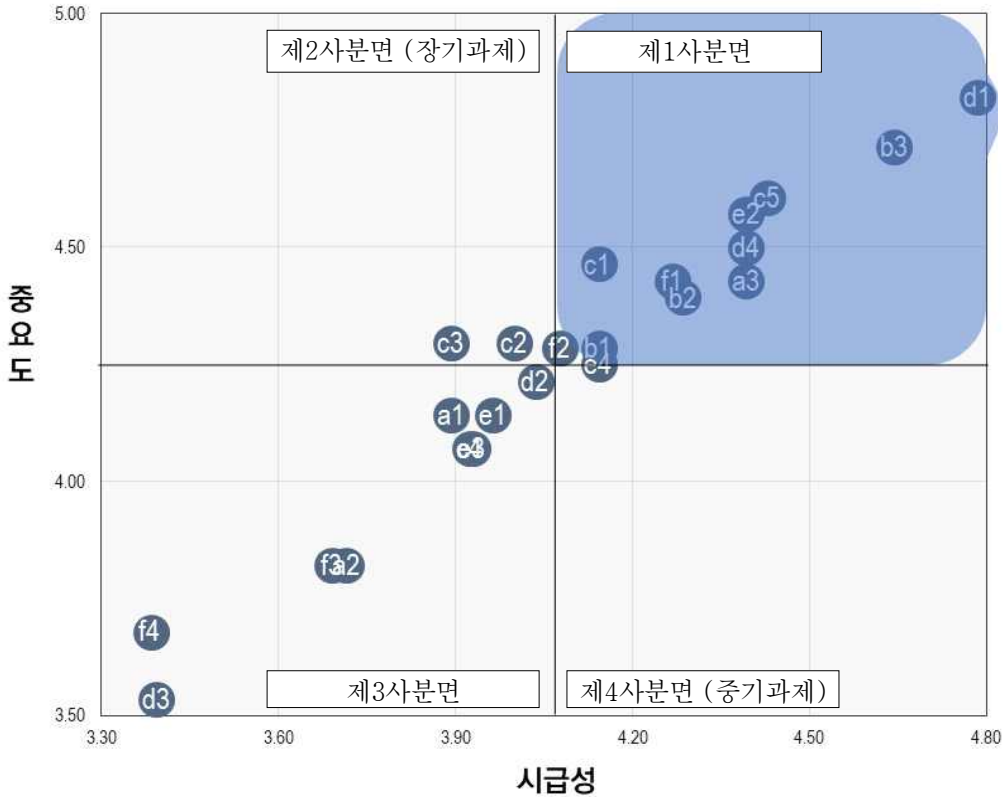
- ‘**자아성찰과 자기이해**’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성찰 및 자기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성찰에 대한 글쓰기, 특히 자신을 풀어내는 글인 일기쓰기를 활성화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긍정적 성장 혹은 성공 이야기만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삶의 다양한 국면,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고통, 경쟁, 실패의 이야기들도 포함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고전에서는 실패와 좌절이 삶의 주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삶과 선택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전읽기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성에 기반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발성 및 일회성 상담 수업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상담 수업 및 시간이 확보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부 강사의 경우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을 몰라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검사도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자기주도와 조절능력**’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전문적 체계적 상담을 제공하되, 그 기록을 포트폴리오로 구축하여 교사가 열람·기록한다면 학생 지도와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단, 개인별 심리정서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은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기초생활습관에서부터 형성된 자기주도 및 조절능력이 인성, 메타인지 등으로 확장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하였으며, 이에 정리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자기주도와 조절능력은 학교교육보다는 가정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며, 가정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긍정적 사고는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부분이 더 크므로, 예화나 역할극을 활용

하기보다는 실제로 체험하고, 일상과 연결지어 실천해보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패를 통한 배움과 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관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취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것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부모교육도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인간 가치와 공동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급활동에서부터 바람직한 가치를 세우고 반복하면서 실천력을 높이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실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확인 등 일반적인 방안보다 더 다양한 실천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며, 실적과 무관한 봉사활동 경험 등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학생들이 자료 조사에 기반한 토론에는 잘 참여하지만, 윤리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토론하거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 및 논술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 시 윤리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도서 제공과 도서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시카고 대학의 그레이트북 플랜도 좋은 예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실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토론 및 논술 수업뿐만 아니라 상식 도덕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실제 문제 상황에서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열정과 도전의식**’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도달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므로, 학교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도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수준별 관심영역별 도전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 사회관계 영역

- 사회관계 영역의 6가지(①공감과 배려, ②신뢰와 존중, ③소통과 협업, ④책임감과 리더십, ⑤공동체 의식, ⑥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별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 평정 결과와 서면 의견에 대해 분석하였다.
-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IPA 분석 결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총 8개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별로는 ‘공감과 배려’에서 1개(㉓감정교육 프로그램 실시), ‘공동체 의식’에서 1개(㉒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합의하고 지키는 기회 제공), ‘세계시민의식’에서 1개(㉑환경, 생태, 자원, 전쟁, 종교, 문명에 관한 학습과 토론 기회 확대), ‘소통과 협업’에서 2개(㉕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기 교육 확대, ㉔민주적 의사결정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학교 문화 형성), ‘신뢰와 존중’에서 3개(㉖성별,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인종별 특성과 차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교육 강화, ㉚기초 예절교육 강화, ㉗상호신뢰와 존중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책임감과 리더십’에서 2개(㉙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는 교육 강화, ㉘일회성 프로그램 보다는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그림 III-5] 개선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IPA 분석: 사회관계 영역

<표 III-45>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기술 통계: 사회관계 영역

구성요소	개선방안	평균		매트릭스
		중요도	시급성	
공감과 배려	a1 역할놀이, 연극수업, 토론수업, 조별과제 등을 활용한 체험 활동 제공	4.14	3.89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a2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결과에 대한 과감한 제재	3.82	3.71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a3 감정교육 프로그램 실시	4.43	4.3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신뢰와 존중	b1 성별,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인종별 특성과 차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교육 강화	4.29	4.14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b2 기초 예절교육 강화	4.39	4.2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b3 상호신뢰와 존중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4.71	4.64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구성요소	개선방안	평균		매트릭스	
		중요도	시급성		
소통과 협업	c1	민주적 의사결정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학교 문화 형성	4.46	4.14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c2	그룹 프로젝트와 토론 수업 확대	4.30	4.00	제2사분면(장기과제)
	c3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4.30	3.89	제2사분면(장기과제)
	c4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교육 확대	4.07	3.93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c5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기 교육 확대	4.61	4.43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책임감과 리더십	d1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는 교육 강화	4.82	4.7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d2	학생회나 역할 분담을 통한 책임감과 리더십 배양 기회 제공	4.21	4.04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d3	모범적 예시자료가 포함된 교육 자료 제공	3.54	3.39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d4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	4.50	4.3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공동체 의식	e1	교과수업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내용 제공	4.14	3.96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e2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합의하고 지키는 기회 제공	4.57	4.3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e3	자원봉사 활동 기회 제공 및 장려	4.07	3.93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e4	단체 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원 확대	4.25	4.14	제4사분면(중기과제)
세계시민 의식	f1	환경, 생태, 자원, 전쟁, 종교, 문명에 관한 학습과 토론 기회 확대	4.43	4.27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f2	글로벌 이슈 탐구 수업 실시	4.29	4.08	제2사분면(장기과제)
	f3	다문화 교육 강화 및 시수 확대	3.82	3.69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f4	외국인 학생과의 해외 교환 프로그램 제공	3.68	3.38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중요도, 시급성의 평균값이 높은 5개의 개선 방안, 매트릭스에서 제1사분면에 해당되는 개선 방안에 음영 표시

- 연구진에서는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관계 영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적 의견이나 새롭게 제안하는 방안도 조사하였는데, 전문가들이 제시한 서면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감과 배려’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역할극, 연극, 토론 수업 등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왜 그것이 잘못인지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경험이 보다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세대를

넘어선 만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둘째, 감정교육이 학생들 각 개개인의 기분을 알아달라는 방식으로 교육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공동체 생활을 고려할 때 지시에 따를 줄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싸우거나 화내지 않고 전달하는 방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식으로 감정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다수가 피해를 보는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학부모 부르기 등이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신뢰와 존중**’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지역별 인종별 특성과 차이의 가치를 발견하는 교육은 학교에서 꾸준히 시행되어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성별과 세대별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보다 초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기초 예절교육이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하면서, 예절교육을 학교 교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교사의 지도를 정서적 학대로 바라보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녹음하는 현실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예절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므로,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정에서도 예절 교육과 신뢰 존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잘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여 함께 나누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 ‘**소통과 협업**’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그룹 프로젝트나 토론 수업 등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수업방식은 소수의 잘하는 학생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그룹 프로젝트, 토론수업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덧붙여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도 함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책임감과 리더십**’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책임감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생활습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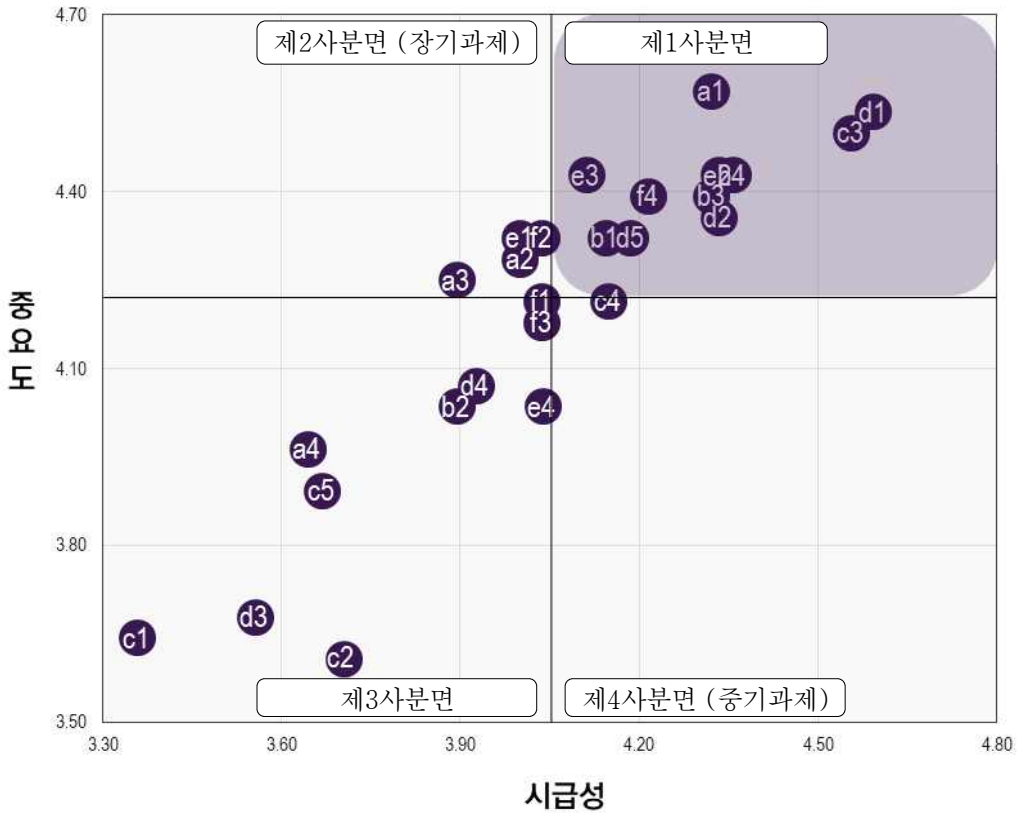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책임감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학생회나 역할 분담을 통해 내린 의사결정을 학교에서 지지하고 실제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학생회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안해도 교사나 학부모가 가볍게 여기고 실제 학교 운영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책임감 신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거대한 목표보다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스스로 실천해가면서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하고 책임지는 프로그램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공동체 의식’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역할에만 초점을 두는 잘못된 이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공동체이므로 공동체를 위한 전체적 관점에서 역할을 배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예: 자기 자리만 청소하기보다는 전체적 관점에서 청소 담당 구역 배정하는 방식 적용). 둘째,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학급, 학교, 가정 등 각 차원에서 규칙이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세계시민의식’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글로벌 이슈 탐구 수업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이와 함께 우리 자신의 성향과 특성을 생각하는 시간도 함께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화된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 활동의 경우 해외 교환 프로그램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류까지 포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실제 일부 교사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과 편지나 이메일,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대화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보급하는 것, 교수-학습 과정에 담아내기 위한 교육·연구시간을 교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라) 심신건강 영역

- 심신건강 영역의 6가지(①바른 생활습관, ②건강한 신체, ③건강한 정신, ④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⑤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⑥놀이와 여가활동) 구성요소별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 평정 결과와 서면 의견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III-6] 개선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IPA 분석: 심신건강 영역

-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IPA 분석 결과, 최우선 추진과제로 총 11개의 개선방안

이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별로는 ‘바른 생활습관’에서 1개(㉑충분한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 ‘건강한 신체’에서 3개(㉒수업 이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 제공, ㉓신체 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기회 확대, ㉔모든 학생을 위한 체육교육의 일반화 및 인프라 제공), ‘건강한 정신’에서 2개(㉕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기능 강화, ㉖실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교육자료 제공),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에서 3개(㉗지역격차를 고려한 예술관람 기회 및 예술적 경험 확대, ㉘예술적 표현 기회의 제공 및 장려, ㉙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에서 2개(㉚모의 훈련 및 시뮬레이션 경험 제공, ㉛자기 보호와 구조 활동 훈련 실시)의 개선방안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도출되었다.

<표 III-46>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방안별 중요도 및 시급성 기술 통계: 심신건강 영역

구성요소	개선방안		평균		매트릭스
			중요도	시급성	
바른 생활습관	a1	충분한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	4.57	4.32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a2	규칙과 일정 설정 강조	4.29	4.00	제2사분면(장기과제)
	a3	건강한 생활 습관 안내 및 자기 평가 기회 제공	4.25	3.89	제2사분면(장기과제)
	a4	일과표 작성 및 일기 쓰기 장려	3.96	3.64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건강한 신체	b1	수업 이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 제공	4.32	4.14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b2	식단 및 영양 교육 강화	4.04	3.89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b3	신체 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기회 확대	4.39	4.32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b4	모든 학생을 위한 체육교육의 일반화 및 인프라 제공	4.43	4.36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건강한 정신	c1	관련 담당 부서의 역할 강화	3.64	3.36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c2	소셜미디어 활용 상담 시스템 구축	3.61	3.70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c3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기능 강화	4.50	4.56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c4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교육자료 제공	4.21	4.15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c5	화훼 및 식물 재배 등 노작 활동 기회 확대	3.89	3.67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구성요소	개선방안		평균		매트릭스
			중요도	시급성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d1	지역격차를 고려한 예술관람 기회 및 예술적 경험 확대	4.54	4.5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d2	예술적 표현 기회의 제공 및 장려	4.36	4.33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d3	전통예술교육 강화	3.68	3.56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d4	전문적 강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	4.07	3.93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d5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4.32	4.19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안전 의식 및 위기대처 능력	e1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 관련 교육 확대	4.32	4.00	제2사분면(장기과제)
	e2	모의 훈련 및 시뮬레이션 경험 제공	4.43	4.33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e3	자기 보호와 구조 활동 훈련 실시	4.43	4.11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e4	관련 장비 및 예산 확대 필요	4.04	4.04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놀이와 여가활동	f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놀이 시간 확보	4.21	4.04	제2사분면(장기과제)
	f2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 경험 제공	4.32	4.04	제2사분면(장기과제)
	f3	자기주도적 여가활동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4.18	4.04	제3사분면(2기 추진과제)
	f4	놀이와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4.39	4.21	제1사분면(최우선추진과제)

※중요도, 시급성의 평균값이 높은 5개의 개선 방안, 매트릭스에서 제1사분면에 해당되는 개선 방안에 음영 표시

-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심신건강 영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적 의견이나 새롭게 제안하는 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서면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바른 생활습관’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규칙과 일정 설정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나, 설정 강조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규칙과 일정 설정의 경우 유용성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학생에게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율적 규칙 세우기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서는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생활습관은 가정에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건강한 신체’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학교에서 운

동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학년이나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하며, 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스스로의 일상을 잘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밥상을 차려보는 등의 방법도 제안하였다. 셋째, 특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놀이를 알려주고 친구들과 직접 규칙을 바꾸어보면서 놀아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신체 활동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모든 학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건강한 정신’**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관련 담당 부서의 역할 강화 시 담당 부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며, 업무로만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문서상에서만 진행하고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관련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학교 상담의 활성화와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소셜미디어의 경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칫 피상적인 상담이나 업무적 접근으로만 흐를 수 있으며, 학교급 특히 저학년의 경우 대면 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셋째, 진단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교사가 진단을 권유하였을 때 회피하는 부모가 많으므로 이를 위한 대비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 양식 등의 보급도 제안하였다.
-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예술관람 기회 및 경험 제공 시 지역 격차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예술적 표현 기회를 제공하되, 예술적 표현이 단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매순간에 세계를 관찰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경기도 시흥의 경우 시흥창의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학교현장에서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많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교에서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상황 연출을 통해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대 및 그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보다 실제적 환경에서의 안전교육을 위해 VR 등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기의 보급, 노후된 기기 교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과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의 중요성을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놀이와 여가활동’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대 특성을 고려할 때 직접 대면하고 몸을 움직이는 놀이나 여가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학교급에 따라 놀이 문화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학교에서는 여가를 누리는 것보다 학교 이외의 시간,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놀이나 여가 활동을 하고 싶은지 찾고 그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 종합

-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인교육의 영역별로 학교교육 충실도가 낮은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학교교육에서 충실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식 및 암기 중심의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 교과 중심 수업에 따른 수업량 소화, 종합적 관점의 평가를 위한 여건 부족, 관련 학습 경험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나 자기표현 중심의 책임감이 덜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 부족 등도 제시되었다. 한편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아성찰이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등 관련 경험 기회 제공, 교육 과정 및 내용 조정, 교수 역량 강화 및 연수 실시, 교수-학습-평가 방식 개선, 경쟁적 학교문화 및 입시제도의 개선, 가정-사회와의 연계 및 공감대 형성,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좁은 이해나 잘못된 접근 방식의 변경 등이 제안되었다.

- 전인교육의 4개 영역에서 구성요소별로 도출된 최우선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7> 영역별 구성요소별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최우선 추진 과제 (종합)

매트릭스	구성요소	개선방안		평균	
				중요도	시급성
인지 사고	문해력	a3	읽기-토론하기-쓰기 활동의 연계	4.61	4.25
	수리력	b1	개념 원리 이해 및 현실 문제 적용 교육	4.61	4.39
	디지털 리터러시	c4	디지털/사이버 윤리 교육의 강화	4.43	4.39
	비판적 사고	d1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수업 확대	4.32	4.26
		d2	토의토론, 다양한 논거 찾기 프로그램 확대	4.43	4.19
	창의·융합적 사고	e2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토론 및 협업 활동 확대	4.33	4.00
		e3	일상 삶과 관련된 주제를 활용한 통합 관점의 수업	4.59	4.37
	의사결정능력	f2	토론 수업, 조별 과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제공	4.64	4.21
	문제해결능력	g1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강화, 문제중심학습 활용	4.64	4.22
		g4	실제 삶과 연계된 교육 제공	4.46	4.22
메타인지	h1	자기평가 및 목표설정 활동 도입	4.44	4.14	
	h3	메타인지전략 교육 프로그램 운영	4.39	4.18	
심리 정서	자아성찰과 자기이해	a1	성찰 및 자기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충분한 시간 제공	4.54	4.39
	긍정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c3	정서적 건강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4.25	4.23
		c4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학습환경 조성	4.54	4.33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	d1	인간 가치와 공동선, 정의에 관한 교육 강화	4.43	4.21
d2		실천 중심의 교육 확대	4.61	4.43	
심리 정서	열정과 도전의식	e1	맞춤형 학습목표와 과제 설정을 통해 도전가능한 상황과 성공 경험 기회 제공	4.54	4.43
		e2	공부 이외에 잘하는 영역을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	4.64	4.50
		e3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너그러운 분위기 조성	4.68	4.46

매트릭스	구성요소	개선방안		평균	
				중요도	시급성
사회관계	공감과 배려	a3	감정교육 프로그램 실시	4.43	4.39
	공동체의식	e2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합의하고 지키는 기회 제공	4.57	4.39
	세계시민의식	f1	환경, 생태, 자원, 전쟁, 종교, 문명에 관한 학습과 토론 기회 확대	4.43	4.27
	소통과 협업	c5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기 교육 확대	4.61	4.43
		c1	민주적 의사결정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학교 문화 형성	4.46	4.14
	신뢰와 존중	b1	성별,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인종별 특성과 차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교육 강화	4.29	4.14
		b2	기초 예절교육 강화	4.39	4.29
		b3	상호신뢰와 존중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4.71	4.64
	책임감과 리더십	d1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는 교육 강화	4.82	4.79
		d4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	4.50	4.39
심신건강	바른 생활습관	a1	충분한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	4.57	4.32
	건강한 신체	b1	수업 이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 제공	4.32	4.14
		b3	신체 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기회 확대	4.39	4.32
		b4	모든 학생을 위한 체육교육의 일반화 및 인프라 제공	4.43	4.36
	건강한 정신	c3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기능 강화	4.50	4.56
		c4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교육자료 제공	4.21	4.15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d1	지역격차를 고려한 예술관람 기회 및 예술적 경험 확대	4.54	4.59
		d2	예술적 표현 기회의 제공 및 장려	4.36	4.33
		d5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4.32	4.19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e2	모의 훈련 및 시뮬레이션 경험 제공	4.43	4.33
e3		자기 보호와 구조 활동 훈련 실시	4.43	4.11	
놀이와 여가활동	f4	놀이와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4.39	4.21	

3)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 학교 현장에서 전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교육적 차원으로 구분

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차원에서 전인교육 실현의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I-48> 전인교육 실현의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사회적 측면	◦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사회 문화
	◦ 경쟁 및 스펙 위주의 교육 시스템
	◦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
	◦ 학교 교육, 교사에 대한 신뢰
	◦ 가정 및 사회의 협력
	◦ 지역사회 인프라
	◦ 미디어 및 기술의 부정적 영향, 긍정적 모방 기회 ◦ 전인교육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 노력
정책적 측면	◦ 단기적 차원의 정책의 개선
	◦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의 정책 추진
	◦ 교육제도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평가체제
	◦ 지역맞춤형 정책
교육적 측면	◦ 학교급 간, 교과 간, 학년 간, 학급 간 연계성 확대
	◦ 전인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 학습량 및 교과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 교사, 교수자, 학교에 대한 신뢰

4)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내실화 방안

<표 III-49> 전인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 주체별 노력 및 협력 방안

구분	내실화 방안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 단계에 맞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 ◦ 가정에서 자녀의 기본 생활 습관 지도 ◦ 가정에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노력 강화 ◦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일관된 교육 방침 수립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연수 및 교직원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사 역량 강화 ◦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설정 및 운영 ◦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을 통해 전인교육 시스템 강화 ◦ 학급별, 학년별, 교과별 협력체제 구축 ◦ 학교 내·외부의 인적·물적 시스템 준비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인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협력 ◦ 다양한 기관, 시민조직,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제공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 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학생 성장 지원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화 개선과 장기적인 전인교육 정책 수립 ◦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현장과 정책의 괴리 해소 ◦ 전문가 의견과 숙의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 ◦ 교육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교사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교육 환경 개선 ◦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전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지원 확대 ◦ 학부모 교육 강화, 발달 단계에 맞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인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각 주체별로 어떻게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지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 의견을 분석하였다.

- (가정) 전인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가정의 노력과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①발달 단계에 맞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 ②가정에서 자녀의 기본 생활 습관 지도, ③가정에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노력 강화, ④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일관된 교육 방침 수립 등으로 제안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부터 지식 위주의 교육적 성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전인교육 혹은 안전하고 선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자녀의 발달단계의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의무교육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강력한 참여 유도 방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에서부터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소양을 지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초석은 가정에서부터 다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시간에 등교하기, 자신이 해야 할 과제 스스로 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책임감, 자기조절능력, 타인 존중 등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과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가정에서부터 지도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롤 모델로서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모범적 삶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 긍정적 상호작용,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기 위한 노력, 자녀의 소질에 따른 진로를 격려하는 분위기 마련 등 전인교육을 위한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이 휴식과 자유, 준비와 성장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의 배움과 가정 밖(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배움이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에 협력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먼저 학교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학교) 전인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의 노력과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①교사 연수 및 교직원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사 역량 강화, ②학급별, 학년별, 교과별 협력체제 구축, ③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④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을 통해 전인교육 시스템 강화, ⑤학교와 학부모 간

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설정 및 운영, ⑥학교 내·외부의 인적·물적 시스템 준비 등이 제안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질 높은 전인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전인교육 실천을 위한 중요한 주체이므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전인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동학년 교사나 동일 교과 모임, 인근 지역(학구)의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공유 및 함께 만들기 등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둘 수 있게 된다. 둘째,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 문제풀이 교육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 개척을 돕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내에서 가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수법이나 평가활동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인교육을 위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협업을 위한 노력이다. 가정에서 자녀의 전인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의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함께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학교 내외 인적·물적 자원 마련이다. 학교급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나 강조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으나, 학교현장이 관리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관리자들과의 마인드, 교육철학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인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협력 체제 마련도 필요하다.

- (지역사회) 전인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①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인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협력, ②다양한 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제공, ③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

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④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학생 성장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인프라, 예를 들어 예술교육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지역사회 기반 사회봉사 활동이나 사회혁신을 위한 교과목 등 전인교육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함양하고, 사회적 문제해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동체 및 현실적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창의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국가) 전인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①기존 교육 문화 개선과 장기적인 전인교육 정책 수립, ②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현장과 정책의 괴리 해소, ③전문가 의견과 숙의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 ④교사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환경 개선, ⑤다양한 교육 제도를 통해 전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역할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함과 아울러 중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과 경쟁 중심의 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를 세우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인교육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거나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교사에 대한 보호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활동 중심이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의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인교

육 내실화를 위한 동향 분석, 현장 연구, 사례발굴 등을 통해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과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전인교육에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2. 초점 집단 인터뷰(FGI) 조사

가. FGI 조사 대상

-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인교육의 운영 현황과 어려움, 요구사항,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초·중등 현장 교사 4명, 장학사 2명, 대학 교수 2명으로 총 8명이며,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서의 현장 경험, 전인교육과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대상자 섭외는 델파이 조사를 위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교육경력, 직급, 담당 업무 또는 전공영역 등을 고려하여 1.5배수 선정한 뒤, 실제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FGI를 실시하였다.

<표 Ⅲ-50> FGI 조사 대상

구분	집단	참여인원	주요 특징
1	현장 교사(초등)	2	○일반교사와 수석교사 모두 포함 ○저경력(5년 이하), 중경력(10~15년), 고경력(20년 이상) 포함
2	현장 교사(중등)	2	
3	장학사	2	○인성교육 담당 경험 및 교육 경력 고려
4	대학 교수	2	○전공영역 및 경력 고려

나. FGI 조사 방법 및 결과 분석

- FGI는 2024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3회에 걸쳐 줌(zoom)을 통해 진행하였다. FGI 차수별 실시 전에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III-51> FGI 조사 일정 및 내용

차수	일정	질문 내용
1차	2024.04.01.(월) 19:30-21:30	○전인교육의 방향과 미래 전망
2차	2024.04.08.(월) 20:00-22:00	○전인교육을 위한 제도 및 활성화 방안
		○전인교육 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차	2024.04.15.(월) 20:00-22:00	○학교 현장 교육의 전인교육 성공 사례 ○전인교육 통합시스템 구축의 범위, 운영 방안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다. FGI 조사 결과

- 초·중등학교급 현장교사 및 장학사, 대학의 교양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①전인교육의 방향 및 목표, ②전인교육의 방법, ③전인교육의 실천적 사례, ④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1) 전인교육 방향 및 목표

-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기술혁명 기술 등으로 인해 불명확성과 급변성이 높은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키워주는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때 역량의 개념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 이상을 의미하며,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

이다. 즉, OECD가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개인이 갖춰야 할 지향점으로 제시한 변혁적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전인교육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혁적 역량의 구성요소로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언급되는데, 이 중 지식은 전통적인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도 포함되며, 기능(skills)은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지적·메타인지적 기능, 사회적·정서적 기능, 그리고 신체적·실천적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지식과 기능을 실제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동기, 신뢰,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존중 등의 태도와 가치라는 점에서 변혁적 역량의 구성요소는 상호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변혁적 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에는 전인교육의 개념과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코딩 기술 등 기술을 익혀야한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력과 방대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기술을 알아야 된다, 코딩하는 테크닉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제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종합적 사고를 가진 인문학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교수1)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처음에 말했었던 실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교수1)

- 전인교육은 개인의 역량을 성장·발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각 개인으로 하여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같은 인간으로서 현재 및 미래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하락) (장학사2)

이러한 기술들을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 더욱더 중요시될 수 있다. 기술 발전의 목적과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1)

- 전인교육은 사회적 연대감과 협력의 증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협력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경향 속에서 경향 속에서도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 의식 및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협력과 공감 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개인들의 어떤 집합적 힘을 통해서 뭔가 또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역량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교수1)

요즘 같은 세상은 세계적으로 볼 때 무한경쟁 시대이면서 동시에 협력도 공존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세계 사회와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교육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사2)

- 전인교육은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공존하는데 이바지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후 및 환경위기,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인류와 생태계가 공존하고,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힘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후 및 환경 위기 문제 불평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이 전인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고요. (교수1)

-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인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리검사 결과 정상군에 속하는 학생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 견디어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 도전 정신, 자존감 등과 같은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인교육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심리 기반의 어떤 인성교육을 요즘 시대에는 잡아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남들과 서로 공감하고 또 자기의 어떤 힘든 감정 또는 자기가 좀 바라는 감정 등을 서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터치를 해줘야지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걸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장학사1)

정신적으로 뭐라고 할까 문제가 굉장히 약해져 호소하는 학생도 많구요. 정서적인 문제로 교수하고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구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좀 다른 양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교육 같은 것들을 강화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교수1)

- 전인교육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지각·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지각·인지하고 사과를 표현할 줄 아는 과정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과정 중에 내가 탓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전인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로 사과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인정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왜냐하면, 아이다 아이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금방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고 미안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게 그런 모든 과정을 저는 전인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교사2)

심리교육도 중요하고 정신건강도 중요한데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인 성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1)

2) 전인교육 방법

-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학습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 교육방식은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문제의 추론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협력, 소통 능력도 자연스럽게 함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선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점 부족한지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서 1회적으로 1번만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별로 여러 요소별로 골고루 학생이 성장을 했는지 긴 시간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와 영역을 반영을 해서 성장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교사1)

- 전인교육은 학생의 흥미, 적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인교육은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수준을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AI 등 최근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의 전인적 관점에서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도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개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좀 체계화되어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의 흥미 적성 자기주도학습법 학습 속도 양식 진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획일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학습의 주체자로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개별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 의식 방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학사2)

- 전인교육은 학교 공간을 넘어서 더 넓은 교육 공간,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교와 교실을 넘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과 같이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의 공간이 학교를 넘어서 넘어선 어떤 더 넓은 교육장 그리고 그 넓은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1)

내가 속한 지역에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이걸 알고 있어야 나의 문제 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중략)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너무 뭐랄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같아서 이거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1)

3) 전인교육 사례

-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전인교육 사례로 **아침체인지(體仁智)**가 제시되었다. 아침 체인지는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이용해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 체육활동으로, 신체 부대낌을 통한 건강체력 회복 및 인성교육 실현,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요일제형, 자기주도형, 학교 스포츠클럽 연계형, 교육과정 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요일제형은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주1~5회 참여할 수 있으며, 걷기, 달리기, 줄넘기와 같은 개인종목형, 축구, 농구, 배구 등 단체 종목형을 20분 이상 운영하면 된다고 하였다. 아침체인지를 운영하면서 열정과 도전의식,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놀이 및 여가활동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미있다고 하였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아침체인지라고 지덕체의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아침 8시 정도 일찍 와서 농구 탁구 뽀켓볼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신체 활동도 하고 그걸 통해서 뇌 기능도 증진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술까지 발달시킬 수 있어서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초등교사1)

-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전인교육 사례로 ‘도전 성취프로그램’에 제시되었다. 도전 성취프로그램은 인문, 봉사, 체육, 예술, 영어 등 5가지 활동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잠재능력과 끼를 발견하고 인성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인증제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도서 지역 지방문화 체험하거나 탄소 중립을 실천하거나 아침 달리기 처럼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브로셔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거를 1학기에 몇 개를 성취했는지를 해서 학생들에게 성취한 평가로 뭐 상품을 주거나 이렇게 상장 작은 상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초등교사2)

- 학교 현장에서 실시된 전인교육 사례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를 통해 교육과정 결정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자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실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뭐 만들고 싶은 거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토의를 해서 필요한 물건을 그 학생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뭐 친구들한테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실험을 해서 학생들이 고르고 그걸 또 친구들과 협의를 해서 물건도 구입 필요한 실험 재료도 구입을 하고 창 공급했던 그 실험을 결과도 도출해 보고 그런 건데 학생들이 구성하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애들이 친구들이랑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 검색을 어떻게 해야지 최저가를 찾는지도 학생들이 직접 공부 직접 해보면서 느낄 수가 있고 직접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해 가면서 좀 실패도 그런데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교사2)

-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전인교육 사례로 읍면 단위의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한 구내 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고, 입학식 후에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의견을 나누는 현장을 본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은 학

생들이 일관된 교육철학,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쉽게 얘기해서 학사 일정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뭐 학생회 일정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초·중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회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넓게 보면 공동 교육과정 안에 다 포함되는 일이거든요. 학생들이 일관되게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가 어떤 교육 과정 내에서 일관되게 전인교육을 쭉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사례이고 네, 그렇습니다. (장학사1)

4)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가) 가정 측면에서의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가정은 인성교육, 전인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가정에서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인 교육이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더 내면화를 잘 할 수 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습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교사1)

가정에서의 어떤 인성교육이 또 전인교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지만 이제 교육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 인성교육 관련된 어떤 특강이라든가 연수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학사1)

- 현재, 자녀 인성교육 등과 관련해서 부모 대상 교육을 진행할 때 꼭 수강했으면 하는 학부모들은 참관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거나, 학교에서의 이루어져야 할 생활지도에 대해 오히려 학부모 쪽에서 자녀의 기를 죽인다거나 학대한다는 문제제기, 이를 넘어 신고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우선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전인교육의 영역 중에서 정서 심리 뭐 영역이나 심신건강 사회관계 영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협력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사와 부모가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가정과 소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정에 협력을 요청했을 때 협조적으로 함께 학생의 문제를 해결 아니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교사1)

저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이 조금 길어진 날 있었어요.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임명장 수여식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누구나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버스 시간하고 안 맞아서 많은 아이들이 이날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많은 민원 전화가 왔는데요.

아이가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아서 걱정됐습니다가 아니라 애가 학원에 못 가도록 늦도록 학교에서 왜 잡아줬나 이런 식의 민원이 왔다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현실이다. (중등교사1)

교사들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하는 건 부모들이 찾아와 왜 우리 자녀를 기를 죽였냐 이런 것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변호사 데리고 오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관리 역할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교수1)

-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단순히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의무화가 어렵다면 부모 교육 연수를 일정 시간 이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부모 교육을 교육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무화시키는 방법이 어렵다면 부모 교육 연수를 일정 시간 이수하신 학부모님들께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등 유도 정책을 마련을 해서 가정과 학교가 같이 나아가야 올바른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장학사1)

부모의 삶의 모습과 가정교육에서의 가르침이 저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가장 진정성 있는 교육은 그냥 문화 속에 있어야 되고 가정교육 전체 문화 속에 있어야 되고 부모의 삶 속에 있어야 되고 교사의 삶에 있어야 되고 학교 풍토 속에 있어야 되고 사회 풍토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등교사1)

제가 도덕 교과서에 효가 나올 때마다....왜 효를 먼저 내세울까 생각했어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의 책임, 애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같은 비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이기만 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은 안 받을걸요, 받은 경험 없을걸요. 이런 거 대학 가서라도 교양 과목에서라도 가족, 부모라는 강좌가 좀 있었음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라도 정말로 효는 가르치는데 제가 부모의 도리는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요 (중등교사1)

- 교사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시간이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였다.

물론 큰 싸움은 안되지만 소소한 싸움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화해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울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학교에 전화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한테 사실 확인을 안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막 전화해요. (중등교사1)

나) 교사 측면에서의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 AI 등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교사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공동체 의식을 키울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뛰어나거나 부모의 관여에 따라 역량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이라 인식하였다. 예부터 언급되어 왔듯이 교육의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점,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인교육의 차

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성 함양 정책이 제공되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AI가 주어진 환경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도 느꼈다. 교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는 교사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겪었어요. 뭘 겪었냐면 자기주도 학습력이 뛰어나거나 부모가 관리가 잘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였을 때 그 간극을 좁 좁히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교사예요. 교사 예 그래서 교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고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등교사1)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교사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연수라든지 강의형 콘서트, 포럼, 조금 전 말한 교사 학습 공동체, 학생 동아리 등등 다양한 방법적으로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사2)

초등의 경우는 국어부터 예체능까지 담임이 다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학급별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느꼈습니다. (초등교사1)

- 예비교사 양성단계에서부터 전인교육을 위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학창시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예비교사 양성기관에 입학하고 학업과 임용시험을 통과하여 교사가 되게 되는데, 학창시절의 학습경험은 교사가 된 이후 교사로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특히 학창시절 우수했던 학생들이 교사가 되는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중등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을 통과를 위한 공부만 매진해오다가 교사가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학업이 어렵거나 본인의 개성과 고유성이 높은 학생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예비 교사 양성기관에서는 전공 교과와 함께 가치나 태도 교육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수학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이 어떠한 가치와 연결되고,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양 교육을 강화하여 가치와 관련된 과목들을 다루는 것도 제안하였다.

너무 빠른 얘기지만요 교사가 학창 시절에 받은 학습의 경험은 교사가 된 이후에 예비 교사로서의 활동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중등 교사1)

특히 중등에서 교과 분절적으로, 예비교사 양성 기관에서부터 배우고 교수님들의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내 교과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 학생들은 여러 교과를 배워서 오히려 연계성이 있고 더 융통성이 있는데, 교사가 안 그런 거예요. (중등교사1)

3년, 4년을 공부에만 매진하다가 온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 그다음에 본인의 개성과 고유성이 발휘되거나 잘 드러나는 아이들, 그다음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지 않거나 공동체에서 조금 삐딱선 혹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얼마만큼 허용하고 포용하면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잘 끌어 안으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교사가 되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것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 (중등교사1)

저는 예비교사 양성 기관에서 그 전공 교과를 배울 때 가치 교육을 함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학은 단순히 수학적 사고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이 어떤 가치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점이 병행되어야지 수학은 수학만이 아니거든요. 예비교사 양성기관에서 전공 과목을 배우는 학부 과정 속에 내용 지식적인 영역과 함께 가치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중등교사1)

- 현직 교사를 위해서는 학급 간, 학교급 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학년별 1개 학급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학년은 맡은 학년과 다르므로 정교한 컨설팅이나 피드백을 주고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에 해당 과목은 혼자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과목에서의 전인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는 정보가 더욱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일명 나홀로 교사들을 위한 학교 간 학습 공동체,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학교급간 공동체나 모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임은 교사가 전인교육을 위한 전문성 함양 통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먼저 소통과 협력 등 살아가는 힘을 키우게 되고 견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제 타인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공감, 배려, 소통, 협력 등의 역량과 가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선생님들께 먼저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혼자서, 나홀로 교사

라고 제가 명시를 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들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제도를 마련해 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을 들었고요. (중략)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급이 많죠. 그래서 신규나 저경력 선생님들은 어디 동학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학년이지만 다른 학년과 또 내가 맡은 학년이 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도움 말을 듣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나홀로 교사를 위한 어떤 동학년 교사 학습 공동체라든가 그리고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교과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있는 대규모 학교 이외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과가 1명의 선생님밖에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같은 교과를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모임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장학사1)

교사를 위한 기반 조성 이게 탁 와닿았거든요. 나홀로 교사 그러니까 고립된 섬이예요. 특히 초등학교는 6학급이면 1학년에는 한 반뿐이고 동학년 도움이나 뭘 하나도 할 수 없고 또 신규 선생님이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랬을 때 다른 학년 선생님들끼리라도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교사를 지원하는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구요. (중등교사1)

미래 환경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뭐 관계성을 맺고 경험의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적절한 적절히 이제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학교 간 벽을 없애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와 학교 간의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해서 공동 교육과정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한다면, 이 역시 전인교육을 위해 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사2)

-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되어야한다고 인식하였다. 신규 교사 또는 전인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전인교육에 대해서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신규 교사로서 담임으로써 할 때 옆반 선생님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교육을 그 반의 학생들이 받는 것 같고, 저는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 반 학생들에게는 그거에 비해서 더 좀 안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사의 교육 과정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교사1)

-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데, 수석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수석교사의 경우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학부모와의 소통에 도움을 주고, 교사들에게 조언을 주는 등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석교사들이 교사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 및 교사들의 정신적 지원자로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 생각에는 올해도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학부모와의 활동을 제가 참 많이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 활동에서 어

떠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생겼을 때 그 중추적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실 학부모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관계를 좀 더 하고 학교와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공동으로 함께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 (중등교사2)

다) 교수-학습-평가 측면에서의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교육과정 상에 학습량이 많아 전인교육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선택권이 높아 전인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이지만 학생 선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봉사가 제외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주변에 알고 있는 수학 선생님들 중에는 수학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의적이고 한 가치 영역적인 부분도 중요해서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난 저희 여기 모임에서도 말씀드렸드시피 학습의 양과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 그런 쪽에 접근을 하다 보면 활동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과 내용을 다 못 다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오롯이 또 교사가 짊어져야 할 뉘이거든요. (중등교사1)

공동교육과정이 진짜 6학년인 학교가 아니면 좀 더 작은 복식학급이 있는 학교가 같이 협력해 공동 교육 과정을 하면서 1달에 1번 정도 다른 학교의 선생님도 만나고 그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구요. 예 그거를 통해서 작은 학교들도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학교마다 너무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초등교사2)

근데 저는 처음에 봉사활동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왔을 때는 염려스러웠어요. 애들이 이거 문서만 혹은 형식적으로 혹은 가짜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계기로 해서 학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과정이 제한하는 그거대로 봉사활동을 참여하다 보니 그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진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학생들도 보게 됐다는 거죠. (중략) 어떤 한 학생이 집에 가는 시간까지 차 시간을 기다린 게 1시간 반이었어요. 그 1시간 반 동안 그 학생은 거의 학교생활을 200시간 200일을 하거든요. 365일 중에 근데 매일 1시간씩 우체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중등교사1)

-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이 지식과 기술에 치중되어 있어 정의적 영역은 다루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가 강해지는데, 정의적 영역을 다루기는 쉽지 않으며 평가까지 모두 바뀌어야 전인교육이 실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초중등학교에서는 과정중심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등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강조되어 왔고, 점차 적용되고 있으나 고등교육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정의적 영역을 다루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나 제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평가가 지식과 기술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수업을 할 때 무엇을 평가할지 명확하게 미리 정해두면은 제가 가르칠 때 이 부분 오늘 꼭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지고, 그

결 잘 달성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취 기준이나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전인교육의 여러 요소들이나 영역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 기술 같은 것들은 수치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달성을 했는지 잘 알 수도 있는데, 사회적 기술이나 심리 정서 영역의 부분은 그 평가 기준이나 성취기준에 잘 작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교사도 그걸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생들 본인들도 그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배려나 신체적인 부분,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학생들도 그것을 목표 의식을 갖고 자기가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도 본인들이 그런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잘 인식되지 않아서 더 교육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교사1)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질 때도 학생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전인교육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면 그 항목과 그 영역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내서 성장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고 평가를 하면 좋을 텐데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주고 그거에 도달했는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성장에 맞춰진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교사1)

교육 목표부터 교육 내용 방법 평가까지 각 다 바뀌어야지 그 역량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교수2)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맞추어서 어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 거꾸로 이루어지는 방법이었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요즘은 역량평가에 이제 뭐 수행평가니 과정중심형 평가니 그런 말들이 교육의 자연스럽게 도입되면서 이제 정답이 하나만은 아니다. 도출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중학교 중등에서는 옛날보다가 문제해결력을 중시하고 그 과정의 배움과 성장을 중시하는 이런 것이 그러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중등교사2)

라) 교육기관 측면에서의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 학교에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하고, 교육과정을 위한 투자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실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가 너무 많고,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일도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전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사가 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업무량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업무량이 어마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1인당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인력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무조건 행정직이나 공무원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에 필요한 그런 교사 수가 좀 늘어났으면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장학사2)

이 사회가 너무 교사에게 원하는 것이 너무 많고, 업무도 많고, 업무 지원 전담팀 있다고 해도 그게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다가 다시금 이제 다시 담임교사에게 업무가 전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어진 4시 반까지의 시간 안에서 아이들과 계속 아이들과 계속 생활을 하다가 잠시 2시간 이 시간 안에 업무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선생님들은 또 업무를 보시고 중간 놀이 시간에도 업무를 보시고 하

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교사의 마음은 너무 잘하고 싶고 아이들과 더 신뢰하고 더 놀이도 많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해야할 수업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초등교사2)

교사들이 또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면 결과 산출과 결과를 증빙하는 일이에요. 학교 교육에서의 그 학업 성취도 이외의 것들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때때로는 짧은 시간 안에서는 역효과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인적 성장이나 인성교육을 진정성 있게 하는 교사들은요, 힘만 들어요. (중등교사1)

- 전인교육을 위해 학교 간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선정된 학습공동체의 실제 운영을 위한 모임에 학교장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근무시간 이외의 주말 등 개인 시간을 활용해야한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학교장이나 학교 풍토가 교사의 학습공동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밖 그런 교사학습공동체도 매년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청을 받구요. 선정이 된 학습공동체별로 대략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400만원 정도까지 예산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돈은 다른 그런 일반적인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보다도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다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학습공동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학교 밖에 여러 관심을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선생님들께서 모이실 때 이제 총무 또는 회장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각 소속된 학교에 공문을 인제 보낼 거 아니에요. 초등은 잘 되는데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일단 수업이 많습시다. 수업 수업이 많아서 그리고 또 오

후 늦게까지 이제 수업 시간이 잡혀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그런 일과 시간에 모임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시고, 또 그렇다고 퇴근한 이후에는 각 가정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육아도 하셔야 되죠. 또 인제 밀린 업무도 하셔야 되죠.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습 보충수업이라든가 야간자습 같은 하셔야 되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장학사1)

-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위해 교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학부모의 태도에 따라 학교 교육정책이 위축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 조차도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교사가 전인교육을 시도해 볼 기회나 생각을 잃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에 교사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전인 교육이 가능한가 그런 조건이 되고 있는가... 교사들의 어떤 뭐랄까 권한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커져야 될 거 같구요. (교수1)

교사들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1)

우리 교과마저도 가치교육을 하고 정의적 영역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생활지도 철저히 해야 되고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고 권리가 중요해도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중략)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교사들이 정말 내 신념대로 강하게

내가 정말 뚜렷한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인교육
인성교육 태도 영역의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
문점이 듭니다. (중등교사1)

어떤 제도를 만들기보다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
촉시키는 제도들이 사라져야 된다. (중등교사1)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내 아이가 편안하게 학교 생활 잘 해야 되는데
꾸지람을 들었다 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또 훈육을 받았다. 그
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시각이나 울분을 토해내는 것들을 느
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지금 학부모의
세대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별 이유도 아닌 걸로 맞았던 말이에요. 성
장해서 부모가 돼서 성인이 돼 보니 그건 맞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깐 그런 복합적인 감정적인 배경이 내 자식에게 그대로 투영되
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녀의 행동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의 과거의 경험치까지 함께 그게 투영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느
꼈어요. (중등교사1)

마) 국가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국가에서는 일관된 전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고 인식하였다. 교육과정 관련
지침이 자주 변경된다거나, 프로그램이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 삭감 등으로 갑작
스레 폐지되는 일이 있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전인교육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일관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성적인 측면의 기록을 비교란에 하라고 올해는 또 그렇게 지침이 내

려왔어요. 그게 전 교과에서 이게 해마다 한 몇 년간 교육이 바뀔 때마다 뭐 교과에 이렇게 넣으라 했다. 빼라 했다가 그냥 그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개의치도 않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수학에서 뭐가 있다. 이러면 인성적인 측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넣는 거예요. 그게 수업에 반영 되거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중등교사1)

- 사회적으로 잘못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개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이들도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를 바라볼 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성적만 좋으면 많은 것이 용서되고 허용되는 이런 거를 애들이 경험하는 것 이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 된다. (중등교사1)

-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쉬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면 하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함께 학생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자체에서 학교 인력을 잘 협력하고 또 마을에 있는 전문인력, 또 학부모 인력을 잘 섭외해서 마을의 시설로 해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고 부모 부모님과 함께하고 마을 어른들과 함께 교육하는 그런 걸 바래요. (중등교사1)

3. 전문가 포럼 및 콜로키움

가. 전문가 포럼

- 연구진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모색을 위하여 학계와 중등교육 현장의 교사를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2024년 4월 26일(금)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이 포럼에서는 전인교육의 개념과 현실, 학교 교육의 현실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와 대응 방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교과교육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2024년 4월 26일 (금) 14:00~17:50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502호

프로그램

개회		
14:00-14:05	개회사	윤승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발표 및 토론		
사회: 윤정현 (한성대학교)		
14:05-14:45	발표 1	●전인교육의 개념과 현실, 방향에 대한 교사와 전문가 의견 임현정 (단국대학교)
	토론	송영일 (충남대학교)
14:45-15:25	발표 2	●학교 교육의 현실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 김현식 (제천제일고등학교)
	토론	권혁선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15:25-15:30	휴식	
15:30-16:10	발표 3	●인공지능 시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토론	윤미선 (단국대학교)
16:10-16:50	발표 4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오대영 (가천대학교)
16:50-17:00	휴식	
종합토론		
17:00-17:40	종합토론	좌장: 김원중 (단국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장)
17:40-17:50	폐회	

공동주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 단국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후원** 국가교육위원회 | 단국대학교

[그림 III-7]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전문가 포럼

1) 전인교육의 개념과 현실, 교육 방향에 대한 교사와 전문가 의견 [발표 1]

- 이 발표는 본 연구팀이 실시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전인교육의 개념과 구성 요소, 전인교육의 현황(충실도) 및 개선 방안을 담았다. 특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발표 내용은 보고서의 III장 제1절 내용에 자세하게 담겨 있어 중복 기술을 피한다.
- 이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청되고 있고, 사회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인교육에 대한 개념 규정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전인교육 실행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그에 대한 지원책, 전인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의 양성 및 학교 내에서의 인사 관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2) 학교 교육의 현실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방안 모색 [발표 2]

- 이 발표는 교단에 오랫동안 봉직해 온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교육의 현실을 보고한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사람이지만 학교 교육은 여전히 입시 위주의 지식형 인간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인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벤트성 교육 활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 참여 중심 교육 활동, 창의적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자기주도 학습, 진로 지도와 직업 탐색, 정서 지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 우선사업,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실 및 학업 프로그램,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는 2022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학생 참여 중심 교수 학습 전개를 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감축 운영해야 하는 학교 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졌던 다양한 교내 활동 이력을 2024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종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내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다.

3)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는 AI - 윤리적 이슈와 대응방안 [발표 3]

- 이 발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숙의하는 자리였다. 현재 인류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윤리적 진공상태(Das Ethische Vakuum)’에 빠져있다고 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AI는 필연적인가? AI는 교실에서 꼭 필요한가? AI는 좋은가? AI가 과연 교사를 대신하게 될 것인가? AI 시대에 교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AI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키워 주는가? 아니면 의존도를 높이는가? AI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AI 교육은 누구의 몫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AI Tutoring의 의미와 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는 AI 시대 사람 교사의 역할과 AI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고, AI 시대 교사의 역량은 무엇이어야 하며 학습자의 주도성은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학습자 흥미 기반의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과연 AI Tutor

에게 준비시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AI Tutor를 인증할 기준은 무엇일지와 같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4)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4]

- 이 발표는 오랫동안 교육사를 전공해 온 교육 전문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우리나라 현 교육시스템은 다른 모든 학생과 똑같이 하되 더 뛰어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획일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래사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 경쟁이 아니라 인간, 기계,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융합, 협력, 소통 역량의 함양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이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는 대학입시 개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 따뜻한 경쟁력과 배려, 상대성을 인정하는 교육 등 미래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콜로키움

-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탐색을 위해 전문가 포럼 외에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을 운영하였다. 전인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들을 차례로 초빙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과 관련한 콜로키움을 개최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일정을 제시하면 <표 III-52>와 같다.

<표 III- 52> 콜로키움 일정 및 내용

회차	일시	전문가	주제
1차	2024.04.12.(금) 19:30~21:30	이OO (단국대학교)	전인교육 관련 교육부의 정책 방향
2차	2024.05.03.(금) 20:00~22:00	권OO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탐색
3차	2024.05.10.(금) 20:00~22:00	김OO (단국대학교)	전인교육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탐색

1) 1차 콜로키움 : 전인교육 관련 교육부의 정책 방향

- 먼저 전인적 성장의 의미는 법적 교육 이념에 근거한 학교 교육제도의 운용으로 교육 기본법에 제시된 대로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한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의식, 인류 공여의 박애,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 전인적 성장은 지정의 영역을 말하고, 이는 지적 역량과 정의적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역량은 교과, 비교과 영역에 두루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적 역량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적 역량 면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방법과 측정 및 평가에 있다고 하였다.
- 교육부의 최근 정책들을 보면 지적 역량 부분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도구로서의 지식 정보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 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정의적 역량 면에서도 2024학생건강 정책법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마음과 정신 건강을 구분하여 법으로 제정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독서교육도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정화 등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많으며, 평가 면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는 실정이다.

- 특히 인성교육의 활성화 측면을 부연해 보면 학생 맞춤형 방안을 교과, 비교과로 구분하여 모색하고 있고, 인성교육진흥법 규정을 토대로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가상공간 내 맞춤형 교육, 그룹공간의 학습 토론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인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 중으로 디지털 리더십, 새싹 캠프, 경제 및 스포츠 리더십, 학부모 인성교육 등 가정과 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개발 프로그램의 지자체 사례발표 및 교육부 우수사례 선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 이와 같은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마음과 정신 건강의 구분, 교권 확립,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문제, 학부모 인성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인증제나 진단 교육, 전담 인력 양성 및 전문가 연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일회성이나 전시성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평가와 정책적 환류의 실질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단순한 지식 정보 교육을 지양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깨우게 하는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한 대만의 고등교육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독서교육과 토론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다.

2) 2차 콜로키움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탐색

- 교육정책은 ‘공공성’, ‘강행성’이라는 공통적인 속성도 지니고 있으나, 규범의 강도(법이 가장 강하고 직접적임), 장기(제도·법)·단기(정책) 등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전인교육’ 정책은 분배정책인지? 규제정책인지? 재분배 정책인지? 사실상 전인교육 정책은 Lowi의 분류

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항목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전인교육’이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인지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전인교육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전인교육 정책은 어떠한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수단이 실현가능한 수단인지, 정부의 재정과 인력 투입을 통하여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전인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인교육 정책 방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방향에 입각하여 각자 정책목표와 수단을 결정하게 되므로, 정책방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 연구진이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의한 ‘전인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자율적 주체로서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이라는 개념에 따라 전인교육을 정의하고 정책목표와 수단을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 연구진에서 설정한 전인교육의 개념은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추상적인 용어를 활용하여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인교육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인격 형성’, ‘공동체 구성원’, ‘상호존중’,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정책 수단을 통해서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임
- 정책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 정책목표도 추상적으로 설정될 것인데, 추상적인 정책목표는 정책성과 확인이 쉽지 않을 것임

- 전인교육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구진에서 제시한 전인교육의 구성 요소가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취기준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이미 학교교육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 학교는 이미 업무 과포화 상태인데,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과중시킬 우려가 크며, 학교 현장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형식적인 정책집행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정책 방향 수립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예비교원이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으로 양성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현재 교/사대/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전인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고 있는가? 각 전공 교과 이론에 매몰된 대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전인교육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정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인간(학생)의 인격을 다루는 분야로 정책수단을 언급하는 경우 인격 형성에 필요한 여건 조성(예컨대, 교원의 업무경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음
- 전인교육이 반드시 교육과정(수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과정(수업) 내에서 전인교육이 강조되면 될수록 교과 간 패권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오늘날 학교교육은 과거와 달리 경직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과거 학교는 법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었으나, 오늘날 학교는 사람보다 법(규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른바 ‘학교법화(學校法化)’ 현상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사회가 법화되어 갈수록 ‘인간’이 강조되기보다 ‘권리’만 강조됨)
- 오늘날 학교는 여유가 없음. 주요국의 전인교육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활동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그리고, 느끼며 남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만의 주체성을 다져가는 활동을 하는바, 우리나라 학교를 보면 여러 가지 맥락적 이유(예컨대, 대학입시)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결론적으로 교원 한 명, 한 명이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생들이 덕, 체, 지를 고루 갖춘 교육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3차 콜로키움 : 전인교육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탐색

- 먼저 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미래사회 변화가 대한민
국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미래교육 분야 10대 이머징 이슈
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OECD 교육지표와
PISA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은 인지적 영역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의적 영역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지식 교육에 편중되어 온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덕과
체를 보완하여 전인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교육을 사회 발전의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되어 온 측면이 많았던 점을 반성하면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에서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전인교육이라는 교육 본질적 관점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경쟁이 아닌 자기실현(self-fulfillment)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행복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자신감, 동기, 교우관계, 교사-학생 관계, 가정 상황, 건강한 생활습관, 진로
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내적 동
기를 불러일으키는 교육, 자신감과 자존감을 돌아주는 교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된 교육, 다양한 지적 활동과 경험을 제공
하는 교육, 미래 진로와 학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교육을 추구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전인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에도 교육부의 전인교육 정책 방향과 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능력 개발,
2024 학생건강 정책법, 가상공간 내 맞춤형 교육, 그룹 공간의 학습 토론, 디지털 리
더십, 새싹 캠프, 경제 및 스포츠 리더십, 가정과 지역을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인교육의 성격을 분명하

게 규정하고 추진 정책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인교육 정책은 어떠한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덕, 체, 지를 고루 갖춘 교육적 경험 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덕과 체를 보완하여 전인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셋째, OECD 교육지표와 PISA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은 인지적 영역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의적 영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전인교육에서는 경쟁이 아닌 자기실현(self-fulfillment)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 자신감과 자존감을 돌아주는 교육,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된 교육 등이 추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V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1. 전인교육의 재개념화 및 구성요소
2.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3.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추진 과제
4.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로드맵

IV.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1. 전인교육의 재개념화 및 구성요소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진은 전인교육의 재개념화와 필수 구성요소를 아래 <표 IV-1>과 같이 도출하였다. 시대의 변화와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전인교육의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전인교육의 개념에 비해 ‘자율적 주체로서 인격 형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1> 전인교육의 재개념화 및 구성요소

구분	내용			
전인교육 개념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자율적 주체로서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영역	인지사고	심리정서	사회관계	심신건강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력 ◦ 수리력 ◦ 디지털 리터러시 ◦ 비판적사고 ◦ 창의·융합적 사고 ◦ 의사결정능력 ◦ 문제해결능력 ◦ 메타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성찰과 자기이해 ◦ 자기주도 및 조절능력 ◦ 긍정적 사고와 열정 ◦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 ◦ 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과 배려 ◦ 신뢰와 존중 ◦ 소통과 협업 ◦ 책임감과 리더십 ◦ 공동체의식 ◦ 세계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생활습관 ◦ 건강한 신체 ◦ 건강한 정신 ◦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 놀이와 여가활동

- 전인교육의 구성요소는 지·정·의 또는 지·덕·체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의 사회적 수요와 연구 결과, 델파이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지사고, 심리정서, 사회관계, 심신건강 4개 영역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지사고’ 영역은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리터러시 등 7개의 구성요소, ‘심리정서’ 영역은 자아성찰과 자기이해, 자기주도 및 조절능력, 긍정적 사고와 열정 등 5개 구성요소, ‘사회관계’ 영역은 공감과 배려, 신뢰와 존중, 소통과 협업 등 6개 구성요소, ‘심신건강’ 영역은 바른 생활습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등 6개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인교육의 영역별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2> 전인교육의 영역별 구성요소의 개념

영역	구성요소	개념
인지 사고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	수학의 이치나 이론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비판적 사고	선입견이나 권위에 매이지 않고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창의·융합적 사고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새롭고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의사결정 능력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
	메타인지	자신의 사고를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판단하며 통제하는 능력

영역	구성요소	개념
정서 심리	자아성찰과 자기이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성찰하는 능력
	자기주도 및 조절능력	자신의 일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조절하는 능력
	긍정적 사고와 열정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
	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 태도
사회 관계	공감과 배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태도
	신뢰와 존중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는 태도
	소통과 협업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책임감과 리더십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도적으로 처리하려는 태도
	공동체의식	한 사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과 감정,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려는 태도
	세계시민의식	인류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세계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려는 태도
신체 건강	바른 생활 습관	책임을 다하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태도
	건강한 신체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는 태도
	건강한 정신	생활 속에서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정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능력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예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려는 태도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놀이와 여가활동	놀이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며 삶의 여유를 찾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려는 태도

- 전인교육의 구성요소 중 현재 학교교육에서의 충실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인지사고’ 영역에서는 메타인지, 디지털리터러시, 창의·융합적 사고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긍정적 사고와 열정, 도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충실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신뢰와 존중, 책임

감과 리더십, 세계시민의식 순으로 학교교육의 충실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심신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한 정신, 놀이와 여가활동,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순서로 충실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교육에서의 충실도가 낮게 나타나는 전인교육 구성요소와 그 이유,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에 반영하였다.

- 전인교육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교육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전인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각 주체별로 어떻게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부적인 장애요인과 내실화 방안은 전인교육의 교육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에 반영하였다.
- 또한, 초점 집단 인터뷰(FGI)와 전문가 포럼 및 콜로키움을 통해 전인교육의 운영 현황과 어려움, 요구사항,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2.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 전인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초점 집단 인터뷰(FGI)와 전문가 포럼 및 콜로키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 교육정책의 방향과 12개의 세부 영역을 도출하였다.

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사회 문화 조성

- 1) 전인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 공유: 성공을 위한 교육에서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변화
 - 델파이 조사나 FGI 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전인교육에 대한 사회적 측면으로

제시된 것이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사회 문화, 입시 및 스펙 위주의 교육 시스템,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였다. 또한, 전문가 포럼에서도 입시 위주의 지식형 인간 교육과 이벤트성 교육 활동의 실태 등 학교 현장의 전인교육 상황이 열악함을 제기하였고, 입시 위주의 교육 철학과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인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였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및 사회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주요한 구성원인 학생 자신, 학부모, 교원 사이에도 전인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각각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인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의 방향은 전인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학교 및 사회 문화를 조성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함께 안정적이고 편안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풍요로운 정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필요하며, 정확하게 알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어느 하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모두가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지적 측면에만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부존자원이라곤 인적 자원 외에 기댈 것이 없었던, 작고 가난한 국가였기에 그 불행했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길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줄을 세우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저마다의 개성과 재능을 제각기 꽃피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획일적 기준이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리의 교육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인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공유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의 전환, 즉 성공을 위한 교육에서 성장 또

는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의 인식 및 태도의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특강이나 캠페인, 학교 운동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이다.

2)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교권 확립 및 보호와 병행

- 델파이 조사와 FGI 결과, 학교 현장에서 전인교육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주 거론된 것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 부족,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 침해,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불균형, 교사의 교육주도권 약화,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대처 등의 문제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 관리자(교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민주적이면서도 협력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교사·학생·지역사회 간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평가 및 환류에는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사이의 라포(rapport) 형성이나 유대 관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현직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 교사의 활용과 같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권 확립과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1)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토론 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독서교육과의 연계

- 전문가들은 델파이 조사와 FGI를 통해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 사고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포럼과 콜로키움에서도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교육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덕과 체를 보완하여 전인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형태로 구성되어 교과별·학년별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학습량을 축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율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독서교육과 토론 교육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율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권순구, 윤승준, 2020; 이아영, 2013),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널리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독서 자체가 학생들의 내적 성장을 담보하는 자기교육 활동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론 활동은 그러한 독서 활동의 성과를 더 깊고 더 넓게 한다는 점에서 독서교육과 토론 교육의 연계는 교과 교육에서든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든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장은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학급 규모가 토론 혹은 토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현실화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겠다.

-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인류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법이나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함께 의견을 내고 토론하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토론 교육은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의사소통 및 협력의 방법을 익히게 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토론 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방법론적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토론 교육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단계별·수준별로 시행하는 독일의 시민교육 사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구안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은 토론 교육의 방법을 활용한 독서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신건강을 위한 체육 교육의 강화나 예술적 안목의 함양이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다. 이 역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는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춘 자율적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는 토론 교육, 특히 독서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토론 교육이 그 어떤 교육보다도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기반의 자율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전문가들은 델파이 조사와 FGI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생태계와 함께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공부하고 성장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역 대학의 소멸과 함께 지역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기반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역사회와 확고하게 연계한 자율적 주체를 양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사회 기반의 자율적 교육과정의 개발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원 양성과 학부모 교육

1) 교원 양성 제도의 개선

- 학교교육에서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델파이 조사나 FGI 분석 결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전인교육에 대한 정보와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전인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의 양성과 AI 시대에 맞춰 전인교육 기반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립과 역량 함양이 필수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전인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체가 반영되도록 하여 예비 교원의 역량 함양을 통해 전인교육의 실

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예비 교원의 전인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교사 양성 과정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학생을 자립적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훌륭한 인격체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삶과 사회를 실질적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자질을 갖춘 교사가 필요한데, 독일에서는 이를 위해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 단계별로 의무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질 교사로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교사 스스로 함양하게 할 뿐 아니라 충분한 교육 현장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독일의 교원 양성 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혹은 일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1개월 정도의 교육실습을 마치면 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단에 서기 위해서는 임용고사 합격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관문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며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예비 교사들의 현실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개인적 특성에 맞추어 제각기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과 현실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간과 열정을 투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원 임용 제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교원 양성 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원 양성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2) 학부모 교육 강화

- 전문가들은 델파이 조사와 FGI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출세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듯, 성공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하고 선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적 생활 습관이나 책임감, 자기조절능력, 공감과 배려와 같은 기초소양을 가정에서부터 익히게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그 스스로가 자녀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가정은 편안한 휴식과 자유의 공간임과 동시에 내일을 위한 준비와 성장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가정교육은 특별한 것일 수 없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무한한 신뢰, 이해와 배려, 그것이 곧 가정교육이다. 부모의 사랑과 믿음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익히게 할 것이다. 부모의 격려와 응원은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 법과 약속을 지키는 것도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본 교육은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첫 단추는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가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냐가 중요하다. 학부모 교육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 일이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 가정과 학교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협력하는 장이 학부모 교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학부모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1)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의 확장

- 전문가들은 델파이 조사와 FGI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전인교육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가정 및 사회의 협력 부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체계 및 인프라 부족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술교육이나 체육 활동, 또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사회봉사 교과목이나 사회혁신을 위한 교과목 운영 등 전인교육의 주체로서 혹은 교육 공간으로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쌓게 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숙련된 동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면 과제 해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동체 및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얻고 학업에도 더욱 흥미를 가지고 정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비영리 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독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 개인과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한다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의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 학교급별, 학년별, 영역별, 주제별, 성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속에서 다채롭게 구성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갖추어진다

면, 교과 지식 중심의 학교 교육이 감당하지 못해 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갖추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학부모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 학부모 교육은 가정과 학교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유의미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학교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사회 단체와 기관에 대한 정보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대한 학부모 교육은 학교와 학부모의 공통 관심 영역을 학생에서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 학부모 자신의 문제로까지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수록 자녀의 진로 선택지도 넓어질 뿐 아니라 학부모 자신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와 전문적인 지원을 활용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부모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대학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글로컬 대학, Life 대학 정책과 연계하여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 체계 및 제도 구축

1)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진단과 지원 강화

- 전문가들은 델파이 조사와 FGI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전인교육이 실행되지 못하

고 있는 영역 중 하나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관점의 평가 체계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인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를 새롭게 구성한 만큼 그에 따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진단하고,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지사고 영역의 성취 수준 이외에 심리정서, 사회관계, 심신건강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제도 개선

- 전문가들은 델파이 조사와 FGI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전인교육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적 요인으로 단기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제도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학 입학 제도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 입학 평가 제도에서 벗어나는 전향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바. 전인교육 거버넌스 및 통합시스템 구축

1) 전인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전문가들은 전인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수의 담당 교원이나 단위 학교, 지방교육청,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콜로키움을 통해서 이미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능력 개발, 2024 학생 건강 정책법, 가상공간 내 맞춤형 교육, 그룹 공간의 학습 토론, 디지털 리더십, 새싹 캠프, 경제 및 스포츠 리더십, 가정과 지역을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전인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관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전인교육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양한 정책(인성교육, 시민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등)들을 통합하고 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와 교육기관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넘어선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학부모와 교원을 위한 전인교육 통합시스템 구축

- 전인교육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전인교육 관련 정책의 설계-실행-성과분석-환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면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검토 과제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영역 및 검토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IV-3> 전인교육의 정책 방향 및 세부 영역

정책 방향	세부 영역
1.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사회 문화 조성	1) 전인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 공유: 성공을 위한 교육에서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변화 2)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교권 확립 및 보호와 병행
2.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1)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토론 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독서교육과의 연계 2)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원 양성과 학부모 교육	1) 교원 양성 제도의 개선 2) 학부모 교육 강화
4.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1)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의 확장 2) 학부모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5.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 체계 및 제도 구축	1)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진단과 지원 강화 2)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제도 개선
6. 전인교육 거버넌스 및 통합시스템 구축	1) 전인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 학부모와 교원을 위한 전인교육 통합시스템 구축

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사회 문화 조성

1) 전인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 공유: 성공을 위한 교육에서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변화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관리자)들은 새로운 전인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미 강조되고 있는 인지사고 영역 이외에 심리정서, 사회관계, 심신건강 영역의 중요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인교육 실행을 위해서 교사는 기존의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학부모도 대학입시 위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녀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전인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발시키고, 개선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추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민주적,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 불신의 문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균형 잡힌 관계와 투명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추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가 가능한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전인교육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민주적이면서도 협력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컨설팅, 학부모 연수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1)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의 혁신: 토론 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독서교육과의 연계

- 기존의 인지사고 영역을 중시했던 교육과정과 학습의 형태에서, 심리정서(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 열정과 도전 의식 등), 사회관계(소통과 협업, 신뢰와 존중, 책임감 등), 심신건강(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 등) 영역을 포함한 학생의 종합적 성장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재설계가 중요한 추진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신 건강 영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침 체인지(體仁智)라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체육활동을 통해 체·덕·지를 균형 있게 갖추고,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깨우쳐주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지사고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던 토론 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독서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을 암기하는 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교급별(학생의 생애주기별)로 전인교육의 내용과 수준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생활교육 중심의 초등교육, 토론학습 중심의 중등교육, 인문소양 중심의 고등교육이라는 학생의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교육부, 2016)은 그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태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과 수업 방식의 변화 및 학생들의 개별적인 소질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 맞춤형 교육 방법의 강화, 융복합적 수업 방법 등으로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필요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

한 전인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협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추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원 양성과 학부모 교육

1) 교원 양성 제도의 개선

-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전인교육에 대한 교육철학과 이론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추진과제로 볼 수 있다. 교사양성기관(교육대학,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에서는 전인교육의 이론적 개념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전략과 방법 등을 교육 시켜 예비교사들의 전인교육에 대한 역량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단계별(학년별)로 단기 또는 중기로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의무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삶과 학교 사회를 실질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자로서의 철학과 자질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교원 양성제도는 그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 초·중·고등학교의 현직 교사들에게는 전인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 공동체와 전인교육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추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학부모 교육 강화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의 배움과 밖(학교, 지역사회, 국가)에서의 배움이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인교육에 대한 가정의 역할,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학부모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교육의 의무교육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학부모 교육의 활성화 등 강력한 참여 유도 방안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학부모를 위한 필수 이수 전인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추진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1)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의 확장

-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활동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인교육은 시민 교육으로서의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성찰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부모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 전인교육과 관련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가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교, 지역기관 등)와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부모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추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통해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 체계 및 제도 구축

1)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진단과 지원 강화

- 전인교육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지적 성취 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과정 중심의 학생 성장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평가 체계처럼 학생의 인지사고 영역의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 자체보다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평가 체계의 수립이 중요한 추진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인교육 거버넌스 차원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 관점에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제도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전인교육 거버넌스 및 통합시스템 구축

1) 전인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전인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역사회, 학교, 가정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인교육은 교육의 영역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교육부,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의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성 구성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마련이 필요하다.

2) 학부모와 교원을 위한 전인교육 통합시스템 구축

- 공중파 방송과 소셜미디어 등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고민과 문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고, 상담하고 싶어하나 유용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인교육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양질의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 교사들에게도 지방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수를 통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인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의 우수사례들이 공유되고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은 중요한 추진과제라고 볼 수 있다.

4.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단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은 단기적 시기는 세부적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새로운 전인교육의 개념의 정책적 검토와 그에 따른 전인교육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목표와 비전 수립이라고 볼 수 있다. 전인교육의 목표와 비전이 수립되어야지 전인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 및 사회 문화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 보호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 정책 및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 ‘교육과정’ 영역, ‘교원 양성과 학부모 교육’ 영역,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영역, ‘평가 체계 및 제도 구축’ 영역, ‘거버넌스 및 통합시스템 구축’ 영역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야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및 도구, 제도, 시스템의 개발 등 중기 추

진 과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중기]:** 단기 단계에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준비 과정이 이뤄졌다면, 중기 시기는 실제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및 도구, 제도,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이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단기의 시기에 수립된 전인교육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교권을 보호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및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반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시범운영’이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교원 양성과 학부모 교육’도 개발된 프로그램과 교재를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체계 및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진단할 수 있는 실제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전인교육의 구현이 가능한 평가 체계를 개발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을 준비하면서 통합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장기]:** 향후 장기적 시기에는 전인교육에 대한 목표와 비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변화되고, 이를 통해 ‘학교 및 사회 문화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이 실행되어 장기적으로 세부적인 학년별, 과목별, 지역별 수업 전략이 개발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인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과 학부모 교육’도 이 단계에는 전문 교수진이 확보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지원되며 전인교육 교원 공동체 및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는 중기까지 실행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필수 프로그램 이수 체계와 학부모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전인교육 체계와 학부모 교육 체계가 확립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 체계 및 제도 구축’도 완성되어 평가 결과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의 확립이 성공적 정착이 이뤄지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인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을 통합하고,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통합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수, 최지혜, 신창호(2020). 인성교육의 정책 실천에서 드러난 교육적 역설. **교육 연구논총**, 41(4), 37-62.
- 경기도교육청(2022). 2023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
- 경기도교육청(2024).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23). 미리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경남교육** 2023-141.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발표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12.17.).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대폭 확대된다! -인성교육을 강화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07.09.).
- 교육부(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 교육부(2020).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보도자료**(2021.11.24.).
- 교육부(2023). 2023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
- 권순구, 윤승준(2020). 고전교육의 교육적 성과 분석 연구 - 역량, 효능감, 흥미 변화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5), 161~173.
- 권희경 외(2023).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교원역량 강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23-19**.
- 김경희, 김수진, 김영은, 서민희, 우연경, 이소라(2021).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KICE 교육지표 구성 방안 탐색. **KICE 이슈페이퍼 ORM** 2021-40-12.
- 김경희, 김완수, 최인봉, 김미경, 김희경, 조성민, 김광규, 박준홍, 박중효, 김성식, 김지영, 류성창, 박윤수(2019). 새로운 학력지표 구성 및 측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9-5.

- 김국현(2022). 2022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방향. **윤리연구**, 1(136), 51-73.
- 김도협(2013). 독일의 단계별 교육시스템과 진로교육에 대한 고찰. **교육법학연구**, 25(1), 49-75.
- 김동일, 고희정, 김은향, 이현웅, 김현수, 서미, 이운복, 이윤선, 홍성두(2015).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2015년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 김두정(2000). 광복 후의 학교 교육과정: 공시적 교육과정과 운영의 변천, 평가. **교육발전논총**, 21(1), 61-81.
- 김상규(2019). 세계의 교육제도와 사학. **사학연구**, 36, 1-421.
- 김수진(2015). 인성교육의 주요 접근 및 쟁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승호(2022). 전인의 재개념화 모색. **교육연구논총**, 43(4), 107-136.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신택수(2010).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좋은 학교 특성- 어떤 학교가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가?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0-99.
- 김정환(1997). 전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김정환(2014). 전인교육의 이념과 방법. 서울: 박영스토리.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돈(2013). 한국의 교육 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23.
- 김현진, 김미숙, 이선영, 김정아, 김민성, 김준엽, 조윤정(2020). OECD ESP 사회정서 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Ⅳ): 본조사 결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20-07.
- 노철현(2021). 국가교육과정정책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법: 비판적 고찰. **인격교육**, 15(1), 87-100.
- 류청산, 진홍섭(2006).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덕목 요인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6(1), 139-166.
- 박균열, 김순남, 정미경, 주영효, 박호근, 김진규(2015). 인성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5-16.

- 박형빈(2022). 서당교육의 인성교육적 의의와 수업 적용 방안: John Wilson과 James Rest의 도덕성 요소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33(2), 19-33.
- 변순용(2021). 독일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추병완(편저), **세계의 시민교육**(67-86). 한국문화사.
-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21). OECD 사회정서역량 조사결과 보고서 요약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현안분석 보고서 2021-3.
-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2023 서울인성교육 시행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2024 서울인성교육 시행 계획.
- 성경희, 신세호, 허경철, 박경숙, 정택희, 김양분(1990).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학교 교육 평가체제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손인수(1986). **교육사 교육철학 연구**. 문음사.
- 손인수(1990). **한국교육사상가 평전**. 문음사.
- 심성보(1998).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내일을 여는 책**.
- 양정실, 조난심, 박소영, 장근주, 은지용(2013).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6.
- 오영재, 성열관, 고미숙, 박종필, 방승호, 허은영(2006).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추진 관련 전인교육 Inventory 개발 연구.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 원동연(2017). 5차원 전면교육-인간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입체 학습법. 경기: 김영사.
- 윤길근, 김진규(2021). **전인교육 사상가 평전**. 도서출판 신정.
- 이미경, 주형미, 이근호, 이영미, 김영은, 이주연, 김종윤(2016).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OECD Education 2030 - (연구보고 RRC 2016-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선경(2017). 인성검사 준거설정 방법 비교 연구: Extended-angoff, rasch, the body of work 방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아영(2013). 인문고전독서교육이 초등학생의 독서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독서교육학회지**, 1(1), 177-201.

- 이지원(2022). 중국의_역량교육_현황과_시사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장. 2022년 통권 80호.
- 임병호(2007). 국가별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교육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범모(2012). 내일의 한국인. 서울: 학지사.
- 정연수(2021).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문제 제언-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철학논집**, 71, 303-339.
- 정영근(1991). 신인본주의 교육사상의 형성과 빌헬름 폰 훔볼트. **한국교육사학**, 13, 311-328.
- 안성찬(2009). 전인교육으로서의 인문학 -독일 신인문주의의 ‘교양(Bildung)’ 사상-. **인문논총**, 62, 99-126.
- 정미경, 황준성, 이선호, 허은정, 최수진, 김성기, 박상완, 안성훈, 민수빈 (2017). 교육 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7-01.
- 정재걸(2010). 오래된 미래교육. 살림터.
- 정창우, 손경원, 김남준, 신호재, 한혜민(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2013년 정책연구개발사업 보고서.
- 조난심(2016). 인성교육 정책의 목적과 방향. 2016년 제1차 인성교육 포럼 100세 세대, 인성이다. 2016년 제1차 인성교육포럼 자료집, 3-24쪽.
- 중국공산당 제18기 전국대회(2012.11). 제19기 전국대회(2017.10), 제20기 전국대회 보고서(2022.10).
- 최의창(2009).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8(6), 243-260.
- 전건국. 중국교육 세계를 겨냥하다. 서울: 타래, 2015.
- 한용진, 신현정(2021). 문명사적 전환기의 전인교육 개념 재고. **인문사회** 21, 12(1), 843-858.
- 허희정(2004). 초등교육목적의 전인성에 관한 논의.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현주, 임소현, 한미영, 임현정, 손경원(2014). KEDI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교육개발

원 연구자료 CRM 2014-111.

홍은숙(1999).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교육의 모형 연구. *교육학연구*, 37(3), 221-246.

Andersen, Lene Rachel. *빌딩에서 배운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3.

Character.org(2022). *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lines*. Character.org, Washington, D.C.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Porticus &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2020). *Measuring what matters: Insights on the value of Whole Child Development*.

Raja, T. N. (2016).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인성교육의 방향* (강선보, 정윤경, 고미숙 공역). 서울: 원미사.

The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 virtues(2017). *A Framework f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https://uobschool.org.uk/wp-content/uploads/2017/08/Framework-for-Character-Education-2017-Jubilee-Centre.pdf>)

Williams, M. M. & Schaps. E. (1999). *Character education: the foundation for teacher education: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https://www.pearinc.org/clover-model> (인출일: 2024.03.02.)

<https://casel.org/fundamentals-of-sel/what-is-the-casel-framework/> (인출일: 2024.01.28.)

<https://characterlab.org/what-is-character/> (인출일: 2024.01.28.)

<https://seelearning.emory.edu/en/about> (인출일: 2024.01.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6202>